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오계정신 확립이
국민 정신개조 출발점
5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6월 21일) · 주간

제1001호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대지도론〉
아이가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한다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웃는다.
무지한 이는 달을 건지려는 아이와 같다.

조계종 대국민 인식 '낙제 수준'

고산재단, 대국민 여론조사… 불교 위기 담론 확인

한국불교 대표종단 조계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불교와 가톨릭이 근소한 차이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종교에 대해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 유발 측면이 짙다고 봤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은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의 종교인식과 불교 이미지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1994년 조계종 개혁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사회적 의식과 가치관 △종교 및 종교인식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 △조계종에 대한 인식 등으로 문항이 구성됐으며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중 주목할만 한 것은 조계종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라고 하지만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산문화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계종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33.1%가 '잘 안다' 고 답했으며, 61.8%가 '모르는 편' 이라고 응답했다. 신뢰도의 경우에는 신뢰보다 불신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전체의 14.8%만이 조계종을 '신뢰한다' 고 했으며, 19.8%가 '불신한다' 고 말했다.

조계종에 대한 인상(이미지)평가는 낙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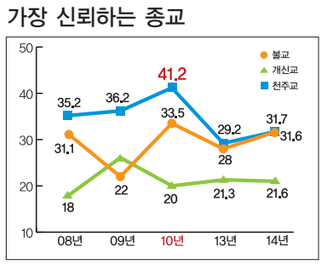
조계종의 △한국사회 발전 △문화재 보존 △민족문화 창달 △국고보조금 투명 집행 △문화재관람료 투명 관리 △자연공원 보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주화 등의 기여도와 여부를 5점 척도로 묻는 9개 질문에 평균이 2.91점에 그쳤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58.3점으로 사실상 '낙제점' 을 받은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 70.3%들이 수행력과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총무원장의 신뢰도와 내부 자정과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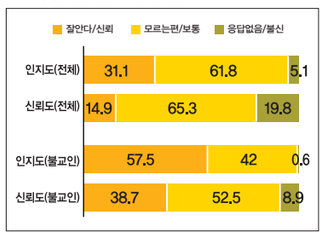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면 신뢰할 만 하다' 는 의견에 전체 27.4%가 '동의 않음' 이라고 답해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자정과 개혁에 적극적' 이라는 의견에는 26.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불교 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산문화재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 등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중요 정책들이 많았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



조계종인지도 및 신뢰도



'조계종 잘 안다' 33% 불과
신뢰보다 '불신' 인식 강해
인상평가 100점 만점 '58점'

종교 신뢰 불교·가톨릭 비슷
국민 절반 "종교, 갈등 유발"
종교인 과세 87% 찬성 의견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불교 31.6%와 가톨릭 31.7%로 근소하게 어깨를 나란히 했다. 개신교는 21.6%로 크게 못 미쳤다. 연령별로는 불교는 20대 이하에서 높았고, 천주교는 50~60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종교를 가지게 되거나 바꾸게 된다면 선택할 종교' 를 묻는 질문에는 가톨릭이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 국민의 25%가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답했고, 불교 17.1% 개신교 10% 순이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04년에는 같은 질문에 불교가 35.6%로 가장 높았으나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어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종교가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한다' 는 의견에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35.9% 등 50.5%가 동의했다. 또 68.0%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 이라고 응답했다. 종교가 전반적으로 사회 통합의 성소가 아닌 갈등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 87.9%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신교 반대율이 12.8%로 가장 높았으나, 모든 종교에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번 여론 조사가 한국불교의 위기 담론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찾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조계종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 일색이라는 점은 20년 전 종단 개혁에 무의미해졌음을 시사한다"면서 "한국불교가 자신의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정치·행정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4~14일동안 이뤄졌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3.1%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사·감사 제적원 제출 선학원 설립정신 위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8일 선학원 관련 示衆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선학원 임원진의 제적원 제출은 선학원 설립정신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종단 행보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7월 9일 기자 회견을 열고 종정 진제 스님이 8일 내린 시중(示衆)을 발표했다.

진제 스님은 시중을 통해 "조계종과 선학원은 그 뿌리가 하나"라면서 "선학원은 선사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이 될 수 있었다. 은혜를 입은 후학으로서 먹물 옷을 입고 조계종단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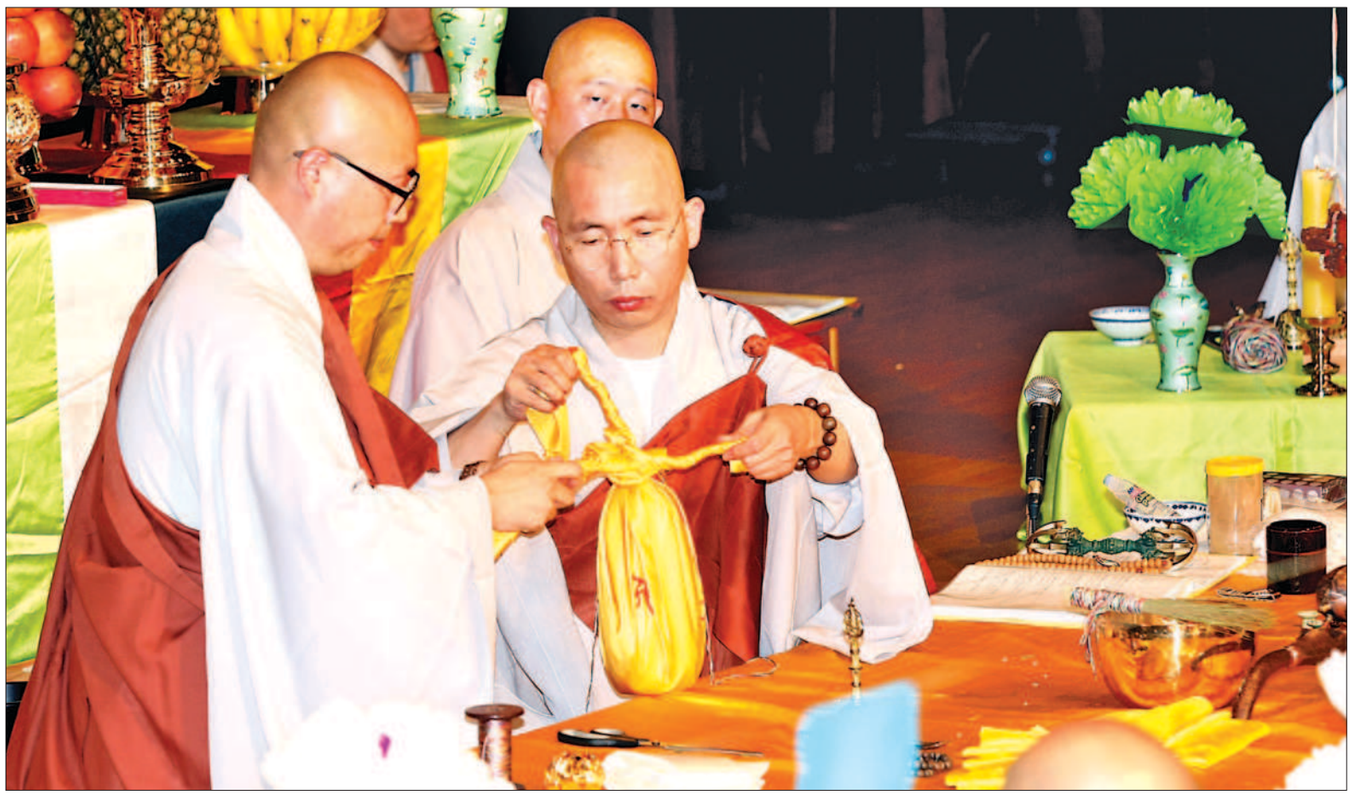
이어 "선학원 임원진의 제적원 제출은 선사 스님들의 선학원 설립정신을 거스리는 행위"라며 "선사 스님들의 고귀한 헌신을 왜곡하고 대중의 공의를 가벼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곧 파승가적 행위로 엄정한 책임이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진제 스님은 선학원 이사 스님들이 종단과 뜻을 함께 할 것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종단은 선학원 구성원이 한국불교와 종도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헌 종법에 따라 제반 문제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선학원 모든 임원진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잘 회향해 종단과 더불어 뜻과 행보를 같이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만 스님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선학원 문제를 종헌 종법대로 풀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만 스님은 "7월 2일 인사차 진제 스님을 예방했고, 선학원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시중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이후 원장 스님이 다시 내려가서 시중을 직접 받아왔다"면서 "향후 시중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현재 종헌 종법에 따라 선학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관련기사 2면〉



불복장보존회 스님들이 7월 9일 조계종총무원 지하 공연장에서 직접 제작한 오보병을 후령통에 넣은 후 이를 불복장에 안치하는 의식을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복장 봉안 의식 일반 대중에 공개

보존회, 9일 총무원 공연장서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회장 무관, 조계종 법계위원)는 7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통 불복장 의식 및 점안의식 시연회' 를 열었다.

이날 시연은 보존회장 무관 스님, 성오 스님, 도성 스님, 경암 스님이 집전했다. 의식은 행사 전 도량결계 및 오방단 설단이 진행됐으며 보존회원 경암 스님의 다라니 인경을 시작으로 청중제회, 생반삼분, 후령통 조성, 알가공양 등의 복장의식이 진행됐다. 이어 법당 및 성상결계, 점안의식, 점필의식 등 점안의식이 진행됐다.

한편, 보존회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월 중으로 불복장, 점안의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사립박물관에 도난문화재 400점 확인

지난 5월 사채 못갚아 경매 출품 '덜미'

지난 5월 서울 인사동의 경매장에 나온 도난 불교문화재 5점. 이 불교문화재를 경매에 내 놓은 사립박물관의 수장고에 도난문화재가 400점 넘게 보관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사찰에서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마이아트옥션에 도난문화재를 출품한 서울H박물관을 추가조사 결과 이 박물관 개인수장고에서 추가적으로 도난문화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경매에 출품된 도난문화재는 박물관장이 미술품 수집을 위해 사채를 빌리며 담보로 잡힌 것들로 사채를 못 갚게 되자, 사채업자가 내놓은 것들로 당시 경매에는 총 18점이 출품됐다. 하지만 5월 압수된 4점 포함, 총 5점이 도난품으로 조사됐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립박물관장 A(74)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며 박물관장의 수장고에 이와 비슷한 도난문화재로 추정되는 문화재 400점이 발견돼 문화재청과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1001호 INDEX

기획 8
주어사지 원형복원 발원 현장



종합 2·3
2014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조계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

불교로 읽는 고전 24
헨리.D 소로의 〈월든〉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절차 논란’ 종헌 개정안 인준 부결

조계종 원로회의서…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진입 무산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중앙종회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 3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결했다.

절차상 하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계종 종헌 개정안이 결국 원로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진입은 무위로 돌아갔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중앙종회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 3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결했다. 종헌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원로회의는 “중앙종회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이 종헌 제130조 무기명 비밀투표 조항을 위반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안건을 중앙종회에 반려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원로회의는 △비구니 호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비구니 갈마는 비구니가 할 수 있도록 할 것 △원로의원의 징계는 원로회의 2/3의 동의를 받을 것 △사면·복권·경감의 대상에서 멸빈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종헌을 개정해 멸빈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어줄 것 등 3가지 입법안을 중앙종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원로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韓개신교인, 부처님 정각 성지 ‘땅밟기’ 논란

유튜브에 게재… 제재 하자 “하나님만이 구원” 황당 답변

서울 봉은사, 대구 동화사 ‘땅밟기’ 선교가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처님 성지에서도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ID Hyun Soo’는 7월 5일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청년 3명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영상을 게제했다.

1분 8초 가량의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이어갔다. 동영상은 현지 인도 스님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ID Hyun Soo’는 “지인이 겪은 일”이라며 “지인이 ‘부처님 성지에서 뭐하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도한다’는 등의 대응을 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알리겠다고 하고서야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타종교에 존경, 존중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인도 부다가야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불교 최고의 성지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석가의 탄생지인 룸비니, 최초 설법지인 사르나트,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와 함께 4대 성지로 불리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불자들이 찾는다. 이런 곳에서 일부 개신교인들이 땅밟기 선교를 자행한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교회 단체마저도 비판하고 나섰다. 교회언론인회는 7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 젊은이 3명이 인도의 불교 성지 경내에 들어가 찬송과 기도를 했다. 이들이 어느 한국교회 소속 청년들이 맞는다면, 이는 크게 꾸짖어야 할 일”이라며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선교는 사회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할뿐더러 결국은 선교의 결과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인도 스님이 직접 촬영해
“이웃종교 대한 최소한 예의 없나”
교회단체마저 “꾸짖을 일” 비판

이어 “한국교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종교 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이들이 한국교회에 속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바로잡습니다〉 7월 10일자 B5면 ‘책으로 만나는 대행 스님 가르침…’ 기사 중 ‘대행 스님은 1982년 한마음선원을 개원한 이래’를 ‘대행 스님은 1972년 한마음선원을 개원한 이래’로 바로잡습니다.

조계종·선학원, 제적원 해석 놓고 ‘攻防’

선학원 임원진들의 조계종 제적원 제출로 종단과 선학원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선학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호소했고 조계종은 최고 어른인 종정 진제 스님의 시중(示衆)을 위시해 선학원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포문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열었다. 선학원은 7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이 제적원 제출을 비판하며 이뤄진 호법부 고발 등 행정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진 스님은 “법인관리법은 재단법인 선학원을 와해시키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법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망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출 사유로 ‘종헌 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조계종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무조건 거부했다는 종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무원이 만든 회의에는 모두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법진 스님은 “합의가 파기됨으로서 종한 제9조 3, 4항 그리고 법인법으로서 종헌 종법은 선학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이고 재단을 고사시키는 법으로서 받아들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제적원에서 종헌 종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종헌 제9조 3, 4항과 법인법에 국한된 것으로 선학원과 소속 스님, 도제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당함을 지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7월 8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등 연석회의 모습〈사진 왼쪽〉과 7월 7일 진행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기자간담회.〈사진 오른쪽〉 제적원 관련한 해석을 놓고 조계종과 선학원은 공방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법진 스님 “제적원 제출, 법인 지키기 위한 조치”
조계종, “종헌 동의 못함은 배종”… 法대로 처리
일부 원로 스님 “한 뿌리인만큼 화합 해결” 당부

하지만 조계종은 종정 진제 스님의 시중 발표와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 및 선학원 대책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로 선학원을 압박했다. 특히 조계종과 선학원의 최고 어른인 진제 스님이 선학원 임원진이 종헌 종법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적원을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선학원 설립정신에 위배된다고 경고한 것은 선학원의 입지를 좁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석회의는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결의하고 선학원 돌출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석회의는 성명서에서 “선학원 이사회는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여, 종단의 종헌·종법을 부정하고, 종도의 공의를 내던졌고,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시켰다. 종도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학원 임원진 스님들은 사익을 위해 선학원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단 집행부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종회 의장단 등은 “선학원 임원들이 제출한 제적원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선학원 분원장스님들과 도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단이 법인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선학원 분원장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대응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7월 8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사의 1/3을 총무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이사진들이 분원장을 선동할 빌미를 준 것”이라며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법인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도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로 스님들은 선학원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스님은 7월 10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선학원 관련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2년 합의를 이룬 것처럼 다시 한 번 종단의 권익과 위상도 세우고 선학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누군가 중재에 나서 문제를 잘 해결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로의원 명선 스님은 “징계 등의 사무적이고 딱딱한 해결방법은 불화를 부르고 결국 갈라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종정스님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직접 나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개혁의 丹心 찾아야 종단 개혁 완수”

조계종단 개혁 20주년 세미나 개최… 20년 성과 살펴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종책 모임이 1994년 종단 개혁의 결과물이며 이것이 필요악이면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19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혁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를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세미나에서 94년 개혁의 과정을 살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년간 종단 운영을 평가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주요 발제자로 참여한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종단 정치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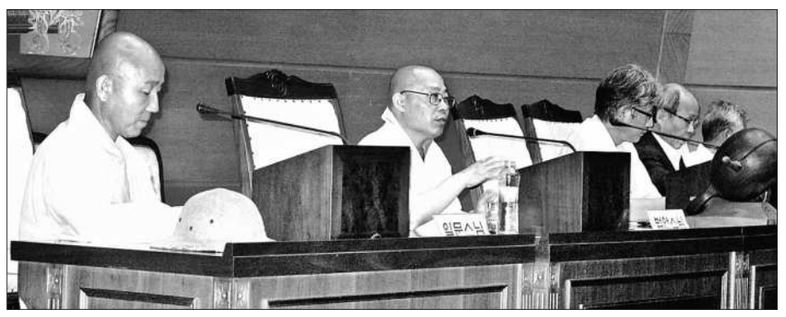
법안 스님은 “1994년 개혁의 성공과 개혁회의의 활동 결과 입안된 각종 입법들은 종단의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며 “그러나 비구니 참종권이나 재가신도의 종단 운영 참여 등 권력구조의 보다 광범위한 분산에는 다다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법안 스님, 권력 구조 변화 살펴
“종책모임 필요악이면 청산해야”

법안스님은 지난 11대 중앙종회에서 시작된 계파모임의 변천 과정을 살핀 후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들은 필연적으로 종단 권력과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로 연합해야 하는 체제를 만들었다”며 “그 결과 형성된 것이 이른바 종책모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책모임은 시기마다 이름을 달리했지만 아직 그 실체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종책모임이 종권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필요악이 아니라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구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스님은 개혁의 단심(丹心,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되찾아야 종단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19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혁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를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류지호 월간 불광 주간이 ‘94년 체제 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를,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사회분야의 흐름과 과제’를 각각 주제 발제했으며,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곽병찬 한겨레신문 대기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영철 콘텐츠개발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사 1부
- 최종석적증명 1부(영문)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8월 15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제18회 만해평화대상 '나눔의 집' 선정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실천부문 이세중 변호사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한 '2014 제18회 만해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에는 위안부할머니 공동체인 '나눔의 집'이 선정됐으며, 만해실천대상은 이세중 변호사가 만해문예대상에는 이란 영화감독 모흐센 마을말바프와 이집트 언론인 아시라프 달라, 윤양희 서예가가 특별상에는 손잡고(노란봉투 캠페인 동참 시민들)가 선정됐다.

올해 평화대상을 수상 단체인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1992년 1월 8일부터 한 주도 쉬지 않고 집회를 열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일본의 사죄 결의 △법적 배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외침은 일본의 사실인정과 배상, 그리고 인류사에 있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참담한 인권유린과 평화의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평화대상 부문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세중 변호사는 평생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참여에 선구적 역할을 한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으로 만해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변호사는 좌우 이념을 넘어서 인권 환경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더불어 특별상은 '손잡고'의 노란봉투 캠페인 동참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안타깝게 여긴 한 시민의 발의로 4만 7천원씩 10만명의 성금을 모아 이를 해결하자는 운동이 바로 '노란 봉투' 프로젝트다. 현재는 가수 이효리의 동참 등으로 기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6월 17일 현재 14억 6869만원이 모아진 상태다.

문예부문 모흐센 감독 등 3인
'노란봉투 참여 시민들' 특별상
8월 12일 만해축전서 시상식

이밖에도 만해문예대상 수상자로 모흐센 마흐말바프(이란 영화감독), 아시라프 달라(이집트 작가, 언론인), 윤양희(서예가, 전각가)가 각각 선정됐다. 이란의 영화감독 모흐센 마흐말바프는 '순수의 순간' '칸다하르' '섹스와 철학' '정원사' 등의 수작을 만들어 왔으며, 10대 때부터 팔레비 독재 왕정에 항거해 반정부 운동을 벌여왔다.



2014년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 단체인 일본 위안부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 사진은 위안부 할머니와 지지회원들이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수요집회 모습.


이세중 변호사


윤양희 서예가


모흐센 마흐말바프


아시라프 달라

아시라프 달리는 현재 이집트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자 언론인이다. 고은 시인의 시집 '만인보' 등을 아랍어로 번역해 아랍 독자들에게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예가 모암(茅菴) 윤양희 선생은 지난 50년간 교육자, 서예가, 전각가로서 영리나 시비를 떠나 선비정신으로 돌올한 예술적 성과를 이루며 후진을 양성해온 한국 서단의 중심인물이다.

상금은 총 3억 원이며, 각 부문 1억 원씩 나눠 지급된다. 시상식은 2014 만해축전 기간인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마음선원은 7월 10일 아프리카학교건립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써달라며 425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사서실장 심경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세월호 희생자·아프리카 학교 건립 지원

한마음선원, 10일 아름다운동행에 4250여만원 전달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아프리카학교 건립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써달라며 425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했다.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과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에 4250여 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진행한 합동 천도재와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탄자니아 학교건립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항상 모범적으로 나눔활동 펼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내서 모은 것"이라며 "좋은 곳에 써달라"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한마음선원 지원금 가운데 2천만원은 탄자니아 학교 건립에, 나머지 2250여만원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도서)도 7월 9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세월호 희생자 피해 지원과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이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70일 넘게 사부대중이 모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화쟁의 정치 펼치겠다"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취임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단체인 정각회의 신임 회장으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진)이 취임했다.

국회 정각회는 7월 8일 오전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강창일 하반기 회장 취임법회 열고 상생의 정치를 위한 불자 국회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강창일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19대 후반기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서 회원님들과 함께 안으로는 '참 나'를 찾는 수행으로 지혜와 덕을 쌓고, 밖으로는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정각회는 하반기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전임 회장인 정갑윤 의원은 명예회장으로 위촉했으며, 부회장에는 주호영·김영주 의원이, 간사장에는 이진복 의원, 간사에는 류지영·임수경 의원, 감사에는 여상규·신경민 의원이 활동한다. **신성민 기자**

"현장 목소리 듣고 지역 포교 모델 개발"

조계종 포교원, 지역포교 활성화위한 순회 간담회 실시

충남…13일 수덕사서 연찬회
인천…17일 나눔공동체 발대식
제주…8월 22~23일 간담회 등
포교역량 지표 조사 10월 발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역 포교역량에 근거한 다양한 포교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포교원은 7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교원은 제34대 집행부 종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중앙·교구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포교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인적자원을 결합해 포교환경에 근거한 포교전략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포교차장은 "전국 지역에는 사찰과 포교사, 신도회 등 많은 포교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구본사를 구심점으로 포교자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교원은 인천(직할), 충남(수덕사), 제주(관음사) 등 3곳을 우선 선정해 사찰, 신도, 단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고, 간담회를 연다.

먼저 포교원은 7월 13일 수덕사에서 '충남 내포 지역의 포교 현황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찾아가는 포교연찬회를 열고, 수덕사 권역 말사 스님과 포교·신도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한 포교원은 인천불교 활성화를 위해 인천불자조직화 사업을 계획하고 7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자비나눔공동체 발대식을 진행한다.

포교원은 "현재 자비나눔공동체는 1팀당 5명인원으로 100팀이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9월 인천 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인천 전법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전환 운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포교원은 제주지역 포교 특성화 전략 및 방향 설정을 위해 8월 22~23일 제주 관음사에서 간담회를 비롯한 연합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포교 인적자원간의 결합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한 포교원은 포교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전국의 포교역량 지표를 △인구 △종교 △포교로 나누어 1차 조사를 진행해왔다.

포교역량 자료조사 현황은 7월 13일 충남 수덕사에서 열리는 포교연찬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제주지역 간담회에서 포교전략 창출의 근거와 지역 포교현황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포교원은 지역별 종교인구, 유형별 사찰, 법회 현황, 포교자격인원 현황 등을 담은 지표조사 자료집을 오는 10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올해 3개 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도 지역포교 활성화 구축 및 지속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도출된 포교모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위한 100재 연다

자승 스님, 박영선 대표 예방서 밝혀… 유족 측 특별법 지지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9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불교계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100재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9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100재를 오는 7월 24일 조계사에서 봉행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이전에 통과돼 유가족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특별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 폭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7월 10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예방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측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만들어 입법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자승 스님은 유가족 측이 제안한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측이 입법 청원한 특별법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은 10일 예방 자리에서 유가족 대표 측이 제안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자승 스님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가 안돼 이번 임시회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종단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1세기 한국불교의 자긍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한영불교사전!

한국불교백과사전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문으로 된 최초의 한국불교 백과사전!
• 570개의 표제어와 180여 컷의 컬러 사진을 통해 보는 한국의 불교문화!
•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설명,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혜원 • Mason 공저/국판양장컬러/656쪽/값 35,000원

한영불교대사전
A Kore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m
• 12,00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표제어!
• 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상세한 설명!
• 표제어의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본의미Basic meaning 표기!
• 주요 개념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표기!
A. Charles Muller • 전옥배 공저/국판 가죽양장/1808쪽/값 9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일 주 문



제2차 생명평화와 우주예술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7월 12일 남원 산내면 한생명강당에서 제2차 생명평화와 우주예술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제41기 단기출가학교 졸업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23일 월정사 문수선원에서 제41기 단기출가학교 졸업식을 개최한다.



2014가족힐링캠프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8월 1~3일 법주사 템플스테이 수련원에서 2014가족힐링캠프를 개최한다. (043)544-5656



제15차 선순례 회향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7월 12일 청원 현암사와 청남대 일대에서 '주지스님과 함께 떠나는 제15차 선순례'를 회향했다. (041)330-7713



2014 청소년여름숲속학교
남양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8월 4~6일 봉선사 일대에서 청소년여름숲속학교를 개최한다.(070)8802-1953



성균관대 겸임교수 위촉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성균관대학교 예다학과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박 소장은 오는 9월부터 다서원전강독을 강의한다.

"청소년 내면 성찰 습관 키울 것"

포텐캠프 교장 조의연 교수



8월 7~11일 고등학생 위한 포텐캠프
내면 성찰로 집중력 향상 유도
간화선·마음공부 접목해 무의식 체험
영어입시, 논술강연 전략 강의도

"입시와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내면을 성찰해 긍정적 에너지를 느끼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생 · 재수생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키우고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 열리는 '포텐캠프(Potential Camp)' 교장 조의연 교수(동국대 영어영문학부)는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포텐캠프는 동국대 창의인성리더십(C.M.L) 연구소(소장 김애주)와 동국Edu&가 8월 7~11일 동국대에서 4박 5일간 개최하는 행사로, 집중 메듀케이션(Meditation+Education)을 통해 무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명상교육 프로그램이다.

조의연 교수(동국대 영어영문학부)는 "입시기간 동안 고등학생, 재수생 및 학부모들은 부담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포텐캠프는 이러한 시기에 학생들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의식 영역'의 체험, '내면 에너지 활용'이라는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계발을 위한 캠프"라고 설명했다.

포텐캠프는 8월 7일 첫날 동국대에서 내면의 '참 나'를 찾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한다. 둘째 날인 8일부터 10일까지 무의식 체험을 집중실시하며, 11일에는 영어입시와 논술강연 전략을 진행한다. 강사로는 조의연 교수를 비롯해 김애주 교수(CML 소장, 前 불교여성개발원장)와 김홍근 박사(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영덕 교수(논술 이과 담당, 동국대 입학처 주관), 정효진 교수(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이수현 강사(메가스터디 영어대표강사)등이 참여한다.

조의연 교수에 따르면 학생들은 첫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행위의 주체, 사유의 주체로 알려진 '나'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나'임을 인식하게 되고 '가변적 나'가 아닌 변하지 않는 '참나'를 체험하는 것이 내재된 무의식 체험활동임을 배우게 된다.

둘째 날부터 2박 3일 동안 외부의 현상에만 익숙해 있는 학생들에게 내면을 보도록 유도하고, 우리 의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은 내부가 아닌 외부 현상임을 알게 한다. 이후 학생들은 여러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고 흘려버리고 내면에 집중하는 체험을 경험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잠재력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내면과 대화하면서 나온다"고 강조하는 조 교수는 "포텐캠프는 안국선원 선원장이자 동국대 국제선센터 원장이신 수불 스님이 진행하는 집중 간화선 수행을 대중화한 '단기' '직입'의 마음챙김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캠프에서는 간화선 지도사인 김홍근 박사의 직접 지도 하에 마음챙김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텐캠프는 지난해와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CML연구소에서 개최한 '창의적 마음챙김 리더쉽 프로그램(CMLP)'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CMLP는 삼성에서 후원하고 201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양기초교육원 '인성 3.0' 대형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무의식'이라는 차별화된 소재를 교육에 접목한 것이다.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4주간 제2회 CMLP를 진행하는 CML연구소는 중앙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60명의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대한 임상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포템캠프는 70명을 모집하며 7월 18일까지 인터넷(www.youcml.com)으로 접수받는다. 참가비는 60만원이다.

(02)2285-4526 **이나은 기자**

동출 스님·김영진 교수 불이상 수상



여성 재가 불자 모임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주최하는 제29회 불이상 시상식이 4월 7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불교 서적 보급을 통한 문서 포교에 크게 이바지한 동출 스님(설법연구원장)이 실천분야 수상자로, 중국 근대 불교학을 중심으로 철학 · 사회학 등 인접학문과의 학제적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김영진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가 연구분야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웰다잉 전문지도자 수료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윤영해)은 7월 5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제10차 웰다잉 전문지도사 강사과정 2급 8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13명이 웰다잉전문지도사 2급 자격증과 수료증을 받았다. 이들은 3월부터 매주 토요일 8시간씩 15주 동안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이론과 호스피스, 자아성찰과 생사체험, 행복체험, 현장 실습, 실기 수업을 받았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불교문화대학원 웰다잉전문지도사 강사과정을 개설해 2009년부터 총 374명의 웰다잉전문지도사(2급 286명, 1급 88명)를 배출했다. (054)770-239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창의 · 인성교육센터 선정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수도권 창의 · 인성교육거점센터'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동국대는 2015년 3월까지 총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남 · 북, 대전 등 7개 지역 중고교 교사 연수 등을 진행한다.

동국대는 지난해 창의 · 인성교육거점센터 선정 이후 8월 중고교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동국대는 △홈페이지를 통한 컨설팅 및 관리체계 구축 △창의 · 인성교육 관련 통계자료 제공 △창의교육 아카데미 운영 △창의교육 현장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창의․인성교육 연구자료 분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환영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꿈과 끼를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 · 인성교육의 현장 확산을 위해 거점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불교생명윤리협회, 탈핵안전연구소 창립준비 세미나 개최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흥선)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탈핵안전연구소(가칭) 창립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

흥선 스님은 "후쿠시마 원전 핵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탈핵안전연구소 창립 이유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갈등이 산재한 사회지만 핵 문제만큼은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일부가 아닌 전체 구성원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핵안전연구소는 이후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거쳐 추후 정식 발족하게 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세월호 義人 양대홍 사무장 49재



보덕사에서 열린 49재에서 유가족들가 스님들이 양대홍 사무장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서울 보덕사(회주 삼중, 주지 일월)는 7월 6일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며 침몰하는 세월호에 끝까지 남아 승객 구조 작업을 하다 죽음을 맞은 세월호 양대홍 사무장의 49재가 봉행됐다. 유가족들과 함께 지장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 법사종 원로 덕암 스님, 법사종 교육원장 법화 스님 등 대중 60여명이 49재에 동참했다.

부산 성광사 성문 스님의 집전으로 대구 청백다례원의 육법공양이 진행됐다. 고인의 어머니와 삼중 스님의 인연으로 보덕사에서 봉행된 49재에서 삼중 스님은 "고인은 육신을 벗어 꿈을 깨고 영원히 남을 고귀한 삶을 선택했다. 부디 극락에서 가셔서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바른 길 열어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공식 재개



7월 5일 발족한 추진회의 준비위원은 총 25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집행위원장 월호, 이하 추진회)의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추진회는 7월 5일 조계사에서 선포식을 갖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지역 순회 대법회'에 올랐다. 법회는 달라이라마가 평소 강조해온 상생의 가치를 담아 각 지역추진위원회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게 된다.

추진회 집행위원장 월호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기대하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대웅전을 채웠다.

추진회는 지난해 10월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에 참석한 스님들과 함께 월호 스님의 발의로 결성됐다. 추진위는 앞으로 2년간 천만인 서명운동, 지역 순회 법회, 사회 각계 다방면 인사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가을 달라이라마 방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선정대학원 개설 학인 모집

(사)한국불교 금강선원에서는 제천 금강사에 불교선정대학을 개설하여 활안큰스님을 모시고 선학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나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분, 선지식을 찾아뵙고도 문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 방황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사랑스런 상담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불교선정대학을 찾으십시오. 반듯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

■ **교육 기간 :** 2년 (수시입학 – 원서 제출 후 교재 교부) **9월 5일 오후 2시 개강**
■ **교육 방법 :** 통신교육으로 이수 (년 4회 특강 및 수련 실시)
■ **교육 내용**

① 부처님께서 실천한 위빠사나와 자비선 (慈悲禪)	② 직지인심의 달마선 (達磨禪)
③ 육조대사의 반야선 (般若禪)	④ 천태대사의 지관선 (止觀禪)
⑤ 화엄경의 무애선 (無碍禪)	⑥ 한국불교의 간화선 (看話禪)

※ 거리 및 기타 사정에 의해 기숙사에 들어와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인은 실비의 비용으로 공양 제공 및 독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1-14번지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4981
홈페이지주소 : http://kumgangnet.com (한글주소 : 한국불교금강선원)

■ **제천연락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금강사 내 한국불교선정대학 ☎ 043)646-3800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45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2014년 7월 20일 ~ 8월 23일
모집 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 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솟대만들기,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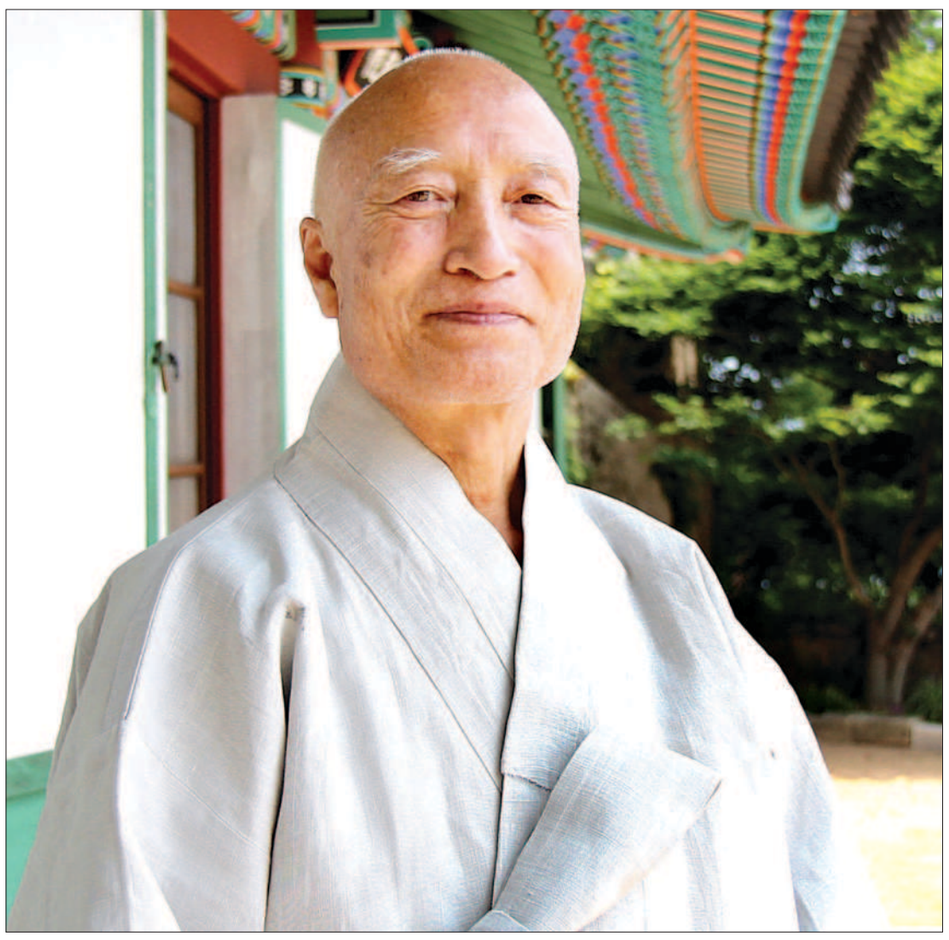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오계 정신 확립이 국민정신 개조의 출발점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무더위가 고개를 빼곡이 쳐들기 시작한 지난 6월의 마지막날. 충남 예산 수덕사 덕숭총림의 제일 큰 어른이신 설정 방장 스님이 계신 정혜사를 찾았다. 스님은 하안거중이셨다. 현대불교신문 1천호 휘호 청탁이 목적이었지만, 평소 친견이 어려운 선지식이라 천재일우의 기회를 빌어 몇말씀 여쭈었다. 연이은 간청에 설정 방장 스님은 점심 공양 시간을 이용해 산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중생계의 작금에 대해 촌철살인의 경책을 내려 주셨다.

인터뷰=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도록 국민정신 개조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설정 스님. 오른쪽 사진은 스님이 주석하시는 정혜사에서 후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붓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이 많이 아파하는데, 치유할 방법을 일러 주신다면.

당한 분들 입장에서 어찌 쉽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다만 유가족들을 위해서 국민이 최대한으로 위로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가 새로워 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다시 놓쳐버린다면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같은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국민모두가 각성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변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쟁과 성장위주로 치닫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제 정신을 놔버리고, 인간성이 상실된 채 오로지 부와 명예만 쫓아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세월호 같은 참사를 낳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겉으로만 각성했을 뿐 다시 그 사건들을 망각하고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다 보니 결국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천민자본주의가 판치고, 또 탁부들이 거드름 피우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관마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전체가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나, 사업 하는 분들은 물론 언론, 교육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투명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의가 쌓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불신을 종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이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정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자기 실현이고, 완전한 자기 인격과도 같습니다.

올해와 같이 사건사고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해에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요.

불교적 인과로 생각해 볼 때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뭉쳐져 맑은 기운들이 한데 어우러지면 사고가 나려해도 멈춰집니다. 가정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다 하더라도 각자 서로 밝은 마음을 가져 보세요. 그 불행과 사고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 기운들이 맑은 기운에 밀려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맑은 기운을 가질 때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 각자의 슬픈 생각, 불신의 생각, 원망하는 생각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맑은 기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기운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걷어내야 사회전체 분위기가 반전되는 계기를 맞습니다.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암울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바른생각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빨리 극복되지,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 추궁하면 결코 빨리 수습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가 상처받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따뜻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님들이 아픈 분들한테 손한번 잡아주며 해주는 위로가 천가지 법문보다 더 와닿는다고 보는데, 수행자들이 이 시점에서 중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청정한 삶과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 목적이 나 자신의 수행과 중생구제에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과정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불교가 지닌 신행적, 사상적, 철학적 모든 상황이 중생을 향해서 얼만큼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생구제가 궁극적 목적인 만큼 수행자들은 언제어디서나 지치고 힘든 이들을 만나면 따뜻한 말과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행자의 본분은 자신에게 엄격한 것**
> **'화'는 모두 본성에 없는 '환'에 불과**
> **하심할줄 알면 인간 관계 폭 넓어져**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분심을 참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 세 개면 사람도 살린다는 말처럼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화를 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화는 모두다 환(幻)입니다. 화라는것이 본성에는 본래 없는 것인데 중생심의 발로여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의 기본은 참는 것, 이기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心)이 수행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납니다. 그런데 마음 한번 바꾸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정말 연민의 정으로 볼 수 있다면, 화 같은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심만 하다보면 내가 더 모자르지 않을까, 어리석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교에서 하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낮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 하는 것이지, '내가 저놈보다 낫다, 잘났다'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하심이라는 것은 비굴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비굴한 것은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에게 빌붙거나 할때 생기지만 하심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심 할 줄 알면 인간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커지고, 자신만만해지고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사들이 말했습니다. 하심하는 이는 만복이 몰려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하심안하고 분노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심하는 사람중 누굴 더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을까요. 인간이 복을 얻으려면 덕이 있어야합니다. 복과 덕을 갖추고 싶다면 비결은 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리더가 가져야할 덕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려 주시지요.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누구를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심을 다해 대해서 대화한다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소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말을 많이하고 적게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갖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실로 얘기를 다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상대가 안받아들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실한 도리만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대가 진심을 알고 소통이 원활해 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정이건 직장이건 무엇보다 화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화합이라는게 다른게 아닙니다. 화합은 어떤 차등이 있으면 잘 안됩니다. 일하는 것, 나누는 것, 생각이 똑같아야 화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섭섭함이 생겨나 화합이 안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접받으려 한다든가 하면 더욱더 안됩니다.

함께 그 집단에 동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권위주의를 보이고 목에 힘이 들어간다든가 한다면, 아랫 사람들이 화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방장이란 소임을 맡고 있지만 항상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어떻게 편하게 공부를 잘할까, 잘못되는 것은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잘못된 가지나 풀은 뽑아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해주고 잘된 것은 격려해 줘야지, 방장이라고 권위의식을 내세우면 대중이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한정 시키면 됩니다. 자기자신의 권위란 자기가 중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만이 진실한 권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오계정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된 짓 아니하고, 악한짓 하지 않는 것이 투도계입니다. 남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는 바로 불상생계입니다. 우리사회가 너무 탁해졌습니다. 오계정신이 우리 사회에 올바로 확립됐을 때 가정과 사회도 청정해져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계 지키기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설정(雪靖) 스님은
1942년 수덕사가 자리한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속가(俗家) 부친이 만공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성장한 스님은 1955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범어사·봉암사 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30대 중반부터 수덕사 주지(1978~1988)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1994~1998)을 지냈다. 2009년 덕숭총림 수덕사 제4대 방장(方丈)에 추대됐다.

지장보살님께서 대한민국 대구에 무량의 가피를 드리우시다!!

현지사 대구분원은 왜곡된 세계불교를 바로잡고 21세기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는 영남권의 중추적인 정법 도량이며, 불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험한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가피로 학업을 성취하다

…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대구분원에 지장보살님 백일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직 사춘기의 방황이 남아있고, 체력도 약하여 공부에 잘 집중하지 못해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어찌 견뎌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화반이라는 성적 우수 학생들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반이 있습니다. 저의 우려와는 반대로 아들은 지장보살님의 크신 가피로 반에서 1등을 해서 심화반 중에도 최상급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싫다고 하던 둘째아들이 요즘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 큰 아들은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분원에서 또 지장보살님께 대학 합격을 발원하면서 백일기도를 올렸습니다. 입학시험에서 아들은 심기 안정되어 실수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치과대학에 가고 싶어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아니었더라면 아들들 학업문제로 얼마나 근심 걱정을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대자대비하신 지장보살님. 세세생생 착한 불자 되어 오직 부처님을 찬탄 공경 칭명염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권은경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품씩 나누어 읽는다)
츰부다라니를 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미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654-5557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부산분원 정기법회
7월 20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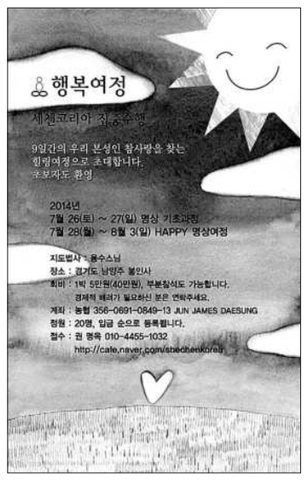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4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51)554-515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티베트명상으로 참나 찾으러 떠나요

세첸코리아, 7월 28일~8월 3일 봉인사서 집중수행



티베트 불교 수행모임인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남양주 봉인사에서 집중수행과정 'Happy 명상여정'을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기상 및 108배 △좌선 △강의 및 질의응답 △포행 △요가 등으로 진행되며 용수 스님이 지도 법사로 티베트 명상에 대해 알기 쉽게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첸코리아는 7월 26~27일 봉인사에서 명상 기초과정도 연다. 참가비는 1박에 5만원이며 부분참석도 가능하다.

용수 스님은 "명상이란 우리 존재의 훌륭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색감과 감정을 대상으로 한 명상 수행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습을 없애고 마음의 본성인 평화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010)-4455-1032

이나은 기자

날마다좋은날, 불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7월 22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불교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도약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는 포럼이 열린다.

중앙신도회 (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7월 2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4 불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가 진행해온 성과와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세션1、2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네 가지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남희 교수(전북대 산학협력단)가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론을 소개하며, 김광수 소장(신나는조합 신나는기업 상생연구소)이 '불교의 잠재돼 있는 유무형의 자산과 콘텐츠개발 및 활용방안'을, 성진경 대표(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가 '크라우드 펀딩의 불교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용방안'을, 강대성 대표(SK행복나래)가 '불교경제주체들의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 지원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종각 판로지원본부장, 불교사회적경제 네트워크포럼 김선배 대표를 비롯한 세션1 발표자들이 나와 활성화방안, 콘텐츠개발, 자금, 판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박주언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불교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무한한 확장성과 활용도 및 사회기여의 새로운 대안모델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청취 및 대안을 공개적으로 쟁점화 해 앞으로 불교가 사찰, 신도단체의 공공영역의 자립적 사회공헌 활동의 전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02)732-7273

이나은 기자

청학동 훈장님에게 예절 배우자

심적사, 7월 26~29일 어린이 인성캠프

지리산 심적사(주지 선담)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인성예절 수련을 위한 '여름 참 나'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는 △1차: 7월 26~29일(초등학생 대상) △2차: 8월 2~5일(중、고등학생 대상) △3차: 9월 9~12일 (가족과 함께) △4차: 8월 16~19일 (직장 및 일반인)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청학동 훈장님과 함께하는 사자소학 배우기 △예절 및 인성교육 △걷기 명상 △좌선 △오백나한 108배 수련 △반딧불 축제(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불교체험 행사로 마련된다.

심적사 주지 선담 스님은 "컴퓨터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사용으로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아이들에게 이번 캠프를 통해 효사상을 일깨워주고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배우게 해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사상을 심어줄 계획"이라며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어른들도 동참해 좌선, 명상 등을 통한 충전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973-1769

이나은 기자

불레협, '붓다로 살자' 실천운동 동참

7월 5일 용주사서 동참 선포… 9가지 실천방안 알리기 앞장





불레협 지도자들은 7월 5일 용주사에서 열린 '제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에서 '붓다로 살자' 동참을 선포하고 '놀이로 배우는 어린이·청소년용 붓다로 살자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사진 오른쪽은 불레협이 개발한 '붓다로 살자 보드게임'.

"붓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따라 저희들 또한 지금 여기서 거룩한 붓다로 살겠습니다. 붓다처럼 자연과 사람을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중략)… 천진불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포교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타가 함께 행복한 붓다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 전문지도자들도 '붓다로 살자' 실천운동에 동참한다.

불레협 지도자들은 7월 5일 용주사에서 열린 '제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에서 '붓다로 살자' 동참을 선포하고 '놀이로 배우는 어린이·청소년용 붓다로 살자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붓다로 살자' 실천운동은 중도와 연기의 세계관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붓다로 살고자 하는 '붓다로 살자' 결사 운동을, 각 사찰 및 단체 단위에서 사부대중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이다.

올해 초 결사도량으로 조계사, 국제선센터, 용인 법륜사가 선포했으며 포교단체로는 불레협이 처음이다.

불레협 회장 혜만 스님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버릇과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좋은 습관이 뿌리 내려야 한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새싹불자부터 청년들까지 '붓다로 살자' 실천 운동이 전개돼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놀이 활동 보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교단체로는 최초로 실천 동참
실천방안 담은 보드게임 시연
혜만 스님 "레크리에이션 통해 붓다로 살자 실천운동 전개할 것"

불레협은 '붓다로 살자 보드게임'을 개발하고,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용어와 다양한 게임을 통해 붓다로 살자 실천방안을 인지시킬 계획이다.

'붓다로 살자 보드게임'은 불교의 대표적인 보드게임인 성불도 놀이를 부루마블 게임형태로 간단하게 변형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게임 참가자들은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대로 이동해 붓다로 살자 9가지 실천방안을 수행한다.

실천방안에는 '△여기는 우리절- 월 1회이상 사찰 법회에 참석합니다 △우리터전 살리기- 에너지 절약합시다 △삼소식- 밥상은 소박하게 차리고 음식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보시하기- 용돈의 %를 사찰과 이웃을 위해 보시합니다. △부처님처럼!- 삼귀의와 오계를 지킵니다. △스마일- 밝은 미소로 사람을 대합니다. △말말말- 남의 말을 경청하고 진실되고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이웃과 인사하며 마을 공동체를 따뜻하게 가꾸겠습니다. △기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등이 있다.

불레협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버릇과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재미와 유익함이 동반된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실천방안을 인지시키면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놀이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하다"며 "어린이·청소년법회에서는 사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놀이를 통한 '붓다로 살자' 동참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의사불자연합회, 진료자 1만명 돌파

"중견 한의사 1백여명 4년간 진료… 지역으로 넓힐 것"



2010년부터 한방진료 봉사를 시작한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정지천, 이하 한의불연)가 2014년 7월 현재 1만명을 돌파했다.

정지천 한의불연 회장은 "지난 4년여 동안 한의불연에 소속된 경력 15~35년의 중견 한의사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용주사, 조계사, 중앙신도회의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며 "이들은 2014년 6월까지 177회에 걸쳐 11,147명을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한의불연 회원들은 용주사에서 2010년부터 113회에 걸쳐 6508명을 진료했으며,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와 합동진료봉사를 통해 2011년부터 38차에 걸쳐 1771명을 진료했다. 또 2012년부터 조계사에서 봉사를 시작해 26차에 걸쳐 2868명을 진료했다.

또한 한의불연은 진료에 소요되는 한약재와 침, 부항, 알코올, 솜, 타이머 등 6천여만원 상당의 각종 소모품을 회비와 기부금, 포교원 지원금, 용주사 및 반갑다연우야 지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한방진료 봉사는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지천 회장은 "용주사와 조계사 진료소에는 법회에 오는 신도님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환자분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내원 환자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함께 가진 노인 분들이 중견 한의사들의 진료와 건강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불연은 2009년 10월, 경희대 한의대 선재회, 동국대 한의대 심우회 한의사들을 주축으로 창립됐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11개팀 30여명의 회원들이 교대로 매주 일요일 진료봉사에 참가하고 있다.

정지천 회장은 "올해 초 인천지역에 한의불연 지부가 결성됐다. 경북 북부, 울산, 부산 지역에도 지부를 결성해 해당 지역 사찰에서 한방진료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장차 더욱 많은 진료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불자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젊은 불자 한의사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心 靈 治 療 (심령치료)

당신은 심령치료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노우"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석학이신 이희승 박사 편저 국어대사전에 심령요법에 관해 해설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학, 심령현상, 심령술에 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요법은 비 종교 행위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 심령연구에 관한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영국 캠브리지대학 몇 몇 대학에는 심령 연구생 제도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에는 심령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매우 뒤져 있을 뿐, 그나마 일본에서는 "일본심령과학협회"라는 간판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에 지부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초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 심령치료의 종류

① 재령에 의한 방법
② 인연 해제에 의한 방법
③ 영계 의사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령치료에는 접촉치료와 손바닥 치료가 있고 저마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약이나 물리적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심령술, 심령학, 심령현상 등 복잡한 내용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심령요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치료는 특수 능력을 가진 영모(靈媒), 영능자(靈能者)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의학 등 방법으로 못 고치는 분은 심령치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많은 분을 심령요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심령 연구발전을 위하여 학교선생님, 의사, 학자 등 사회 각계의 관심있는 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靑 岩 禪 院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2동 602-4호 **전화 02)992-8624**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5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9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1년차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사상 (반야심경·금강경) 3. 유식과 명상 4. 불교사의 전개 (인도·중국·한국) 5. 대승불교총론 6.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주명철교수
2년차	과 목	7. 밀교사상과 천수경 8. 아미타경과 불교의식 9. 화엄경 10. 불교개론 11. 불교문화와 포교 (불교미술·다도) 12. 선불교
	교수진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김형준교수, 정엄스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2일, 불교미술학과 9월4일, 선·명상학과 9월4일]
✲ 불교 대 학 원 개강 [9월2일, 9월4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6일, 범패의식반 9월3일]

■ **모집인원(불교학과)** | 15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5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4년 7월 1일부터 ~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 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지역복지와 연계… 조계종 복지 미래 전략”

교계 복지시설 양적 성장 중
현장성 높은 복지제도 요구 증가
사찰 신도 자원봉사 교육 통해
신행·복지 결합 모델 구축할 것



지난 7월 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올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7곳을 유치했다고 지난 7월 1일 밝혔다. 이로써 재단 산하 복지시설 개수는 157 군데로 늘어났다.

이번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받은 곳은 종합사회복지관1곳과 어린이집 3곳, 여성 · 장애인 시설 3곳이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쌍문3동 빛초롱어린이집, 용인 죽전어린이집, 서울 양재어린이집,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이중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는 운영 주체가 2004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2009년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 4월 1일부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바뀌게 됐다.

조계종복지재단은 한해 평균 20곳 정도 위탁 심사를 통과한다. 복지재단의 사회 기여도와 재단 신뢰도 덕분에 3년 혹은 5년 주기로 있는 재위탁에서도 거의 떨어져본 적이 없다.

불교계 복지의 전반적 로드맵이나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듯 양적 성장을 해나가는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복지 인적 자원을 형성해 연구 · 정책제안 등을 통한 복지 현장성을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월 송파세모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타종교의 경우 차상위계층을 위해 이미 긴급대출, 저리대출 등 재정지원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었으나 불교계에서는 체계적 형태를 갖춘 지원책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불교 복지가 시설 늘리기에만 치중해왔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들리는 이유다.

조계종의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복지재단 역시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전략 마련에 고심중이다. 지방복지 역량을 기르는 것도 주요 과제중 하나다.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늘어나는 데 따른 관리 감독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사회 거점으로 자리잡은 복지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보건, 교육, 경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주민들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 조계종복지재단의 청사진이다. 교구본사 차원의 복지법인 설립 컨설팅 운영을 지원하는 것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 25개 교구본사 중 법인이 설립된 곳은 13곳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의 이같은 계획은 지역 속에서 함께 하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조계종단의 기조와도 일치한다. 올해 종단은 신년기자회견에서 1사찰 1사회복지시설을 운영, 나눔과 봉사로 헌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복지재단은 지역 복지와 포교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중이다. 신도들이 지역사회 복지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찰 자원봉사단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봉사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신도들에게는 불교 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교 위상도 높이고 사회적 지지기반 역시 확보하게 된다.

조계종복지재단측은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지역사회에 얼만큼 기여하는지 대중들 사이에 의문이 많다”며 “많은 신도들 역시 대웅전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하는 것이 신행활동의 전부다. 절 안에서 어떤 역할도 못 찾고 기도만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사찰을 통해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적으로는 농번기 품앗이 등 노동력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신도들의 상조활동 역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장례식에서 스님 혼자 시다림을 집전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봉사교육을 받은 신도들이 신행복지활동의 일환으로 발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회복 모델 역시 추구해나간다. 고창 선운사의 보은염 역시 지역민들이 소금생산을 맡고 선운사가 판매에 나서는 형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선운사는 새로운 사찰공동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은 가안이라 어떤 구체적 모델이 마련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조계종복지재단측의 설명. 그러나 지역 복지 활성화에 불교 미래 역시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교두보 마련에 꾸준히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민간 사회복지 정책, 연구, 교육 등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체결, 모형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방송인 유재석, 나눔의 집에 2천만원 기부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 · 할머니 생활비로 쓰일 예정

방송인 유재석씨가 나눔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무한도전 촬영차 7월 9일 나눔의 집을 방문한 유씨는 1시간 가량 할머니들과 만남을 가졌다.

후원금 전달은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사전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나눔의 집측은 “유재석씨가 돌아간 후 후원계좌로 2천만원을 보내왔다”며 “갑자기 돈을 보내셔서 놀랍고 고마울 뿐”이라고 전했다.

유씨가 후원한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에 쓰이며 나머지 1천만원은 할머니들 생활비 및 시설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6월 26일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2014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에 참가하는 자신의 차량에 '나눔의 집' 문구와 ‘군 위안부 치유해야 할 역사입니다’란 글귀를 새기고 완주할 것을 약속 했으나, 레이스 중 차량 고장으로 완주하지 못했다. 사진은 방송인 유재석씨가 7월 9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배현진 기자**

해인사·운문사 스님 101명 장기기증 등록

생명나눔, 올 상반기 희망등록자 3천여명 돌파


생명나눔실천본부는 7월 4일 해인사와 운문사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원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받았다.

해인사와 운문사 강원 학인스님 전원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지난 7월 4일 두 곳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벌인 결과 등록 대상 연령 미만자와 기존 회원을 제외한 스님 101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 의사를 밝힌 스님은 330명이다.

현장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상 연령보다 어린 스님이 나이가 되면 꼭 신청하겠다며 용지를 받아가기도 했다.

재단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장기기증 등록 ‘스님 1천분 모시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측은 “젊은층 스님들은 흔쾌히 서명에 동참하지만 아직 대다수 스님들 사이에서 는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며 사업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꾸준히 종단 및 교육기관을 방문해 관련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한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인원이 3천명을 돌파했다.

3천번째 주인공은 지난 6월 조계사 백중기도 입재 ‘생명나눔 캠페인’을 통해 참여한 김경미 씨다. 김씨는 “평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못하고 있었다 ” 며 “가끔 조계사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시간을 내서 참여 한 것이 마침 3000번째 라니 영광이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씨는 이에 대해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총 3,296명(7월 10일 기준)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시기 비해 약 1300명 정도 많은 숫자로 월평균 500명의 희망등록자를 모집한 셈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목표는 5천명이다.

배현진 기자

위드아시아, 상승기류 타고 봉사행 순풍 행진 중

이사장 지원 스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임면


지난 5월 위드아시아는 부산 남구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사회복지기관에 선정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았다. 사진은 지원 스님과 이춘성 관장 .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다.

복지관, 어린이집 신규 수탁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코이카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가입했다. 교계 국제구호단체로는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스, JTS, 더프라미스, 아름다운동행, 조계종복지재단 등이 가입돼 있다. 당장 8월에는 합천 평화의집과 함께 비핵 · 평화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위드아시아가 부산 남구로부터 수탁받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연인원 30만명이 이용하는 복지관. 보건복지부 실시 사회복지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기관과 2회 연속 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사업 등 269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드아시아측은 수탁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단체의 국내외 공익형 사업에 대해 신뢰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용호어린이집과 서울 금천구로부터 도담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2014년 9월 1일 개원예정이다.

8월 5~6일 경남 합천에서 열릴 비핵 · 평화대회에서는 69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 역시 열린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원폭피해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행사다.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은 이를 위해 경남 합천군측과 조율해 지원조례 제정에 공을 들였다.

현재 남아있는 원폭 피해 생존자는 약 2천 6백명. 후손까지 아우르면 1만여명이다.

지난 6월 17일 안전행정부가 설립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사로 임면되기도 한 지원 스님은 “불교가 이 시대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위로, 추모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로 임면된 종교인으로서는 지원 스님이 유일하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펼친다.

한편 위드아시아는 연예인 팬클럽 후원을 받아 캄보디아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가수 백청강, 인피니트 호야, 박용국 등의 이름을 딴 공부방 3곳이 캄보디아에 만들어져 있다.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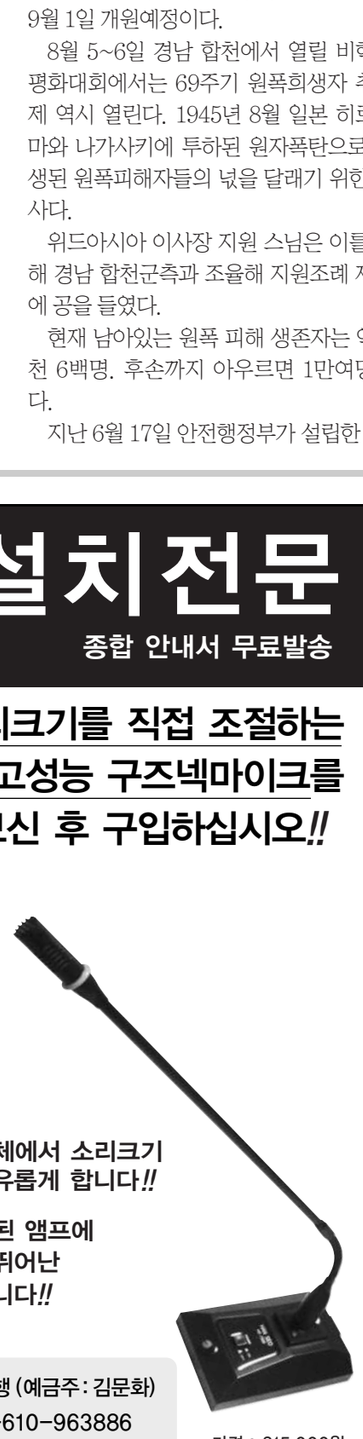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7월 21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7월 21일(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종교화합 역사 현장 주어사, 원형복원 시급”



주어사지 원형복원 기도 입재법회에 참여한 50여 불자들이 법회 이후 원형복원을 추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계종은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주사 신도회 7월 6일 주어사 원형복원 발원 1천일기도 입재

“주어사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종교평화 이룩하자! 주어사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종교평화 이룩하자!”

여주의 한 깊은 산 속에서 결의에 찬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조선 후기 천주교를 공부하던 이들을 숨겨주었다 폐사한 주어사의 원형복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된 것이다.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교구신도회(신도회장 민학기)는 7월 6일 여주 주어사지에서 ‘주어사 원형복원 발원 기도’에 입재했다. 100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기도는 불자들이 상주해 올리며 조계종 제2교구 산하 60여 사찰이 동참해 매주 1회씩 순례도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 여주군 주어사지(走魚寺址)는 한국 근대종교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천주교 발원지인 천진암에 강학회가 열리기 전까지 주어사가 그 장소였기 때문이다. 주어사가 좁아 강학회를 진행하기 불편하자 인근의 천진암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가톨릭 측은 밝히고 있다.

주어사는 조선 후기 신유박해 당시 천주학을 공부하던 권철신 등을 지켜 주던 스님들이 함께 수난을 당한 아픔이 있다. 스님들이 천주학자들을 포용한 종교화합의 장소임에도 그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천진암에도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도들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준 죄목으로 천주학자들은 물론이고 10여명의 스님들도 함께 참수당하고, 절도 폐사됐지만 더 이상 불교의 흔적은 없다. 성역개발사업으로 대웅전 터에는 주어사에서 공부했던 천주교 창립선조 5명의 무덤이 이장됐으며 암자를 표시하는 ‘암’(庵)도 ‘암’(菴)으로 바꿔쓰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이런 문제에 통감한 수원 용주사 신도들과 여주 신륵사, 영월암, 수원 수원사, 화성 신흥사, 의왕 용화사 등지의 불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스님으로는 용주사 문화원장 인해 스님과 신륵사 총무 보경 스님이 함께 했다.

주어사가 위치한 곳은 깊은 산속으로 조선 후기 당시 천주학자들이 숨어있을 만큼 오지다. 이날 기도 입재에 참가한 50여 불자들은 직접 떡과 과일, 각종 기도용품 등을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 주어사로 향했다.

이들은 지금은 풋말만 남아있는 주어사지에서 향을 사르며 정성스럽게 천수경 독송으로 발원기도를 올렸다. 이어 삼귀의례, 권청, 반야심경 봉독 등 불교의례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법회 이후 참가 불자들은 발원문 낭독으로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졌다. 발원문은 수원 수원사 거사회의 이현상 부회장이 낭독했다.

“조정의 탄압으로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 천주학자들을 보듬어 안은 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의 발현이었습니다. 이는 종교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부처님의 원대한 원력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어사 원형복원을 발원하오니 제불보살님의 가피 있으소서.”

불자들은 이어 주어사 원형복원으로 △천진암 천주교 성지화 과정에서 쫓겨난 4개사찰의 상처 치유 △부처님 가르침의 포용성 알릴 기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사회 저변 확대 △불교와 천주교 화합의 계기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님들 천주학자 보호하다 참변
천진암은 불교색채 모두 지워져
원형복원까지 1000일 기도 진행

용주사 인해 스님은 “천주교가 서학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나라를 개혁하고자 한 정조 대왕의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며 “당시 서학을 하는 학자들을 보듬어 안은 불교계의 움직임은 이러한 개혁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인해 스님은 또 “서학자들을 있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죽음을 당한 선배 스님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천주교 성지로만 개발을 추진해온 여주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주시는 2009년 지표 및 학술조사를 진행해 주어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천주교 강학이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해왔다. 여주시는 사지의 의미를 알려 명소로 만들고자 2012년 7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앞서 2011년에는 천주교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 길도 재정비했다.

불자들은 “주어사는 불교와 천주교가 역사 속에서 인연을 쌓은 곳임에도 천주교 성지로 개발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천주교 측이 인근 천진암 성지조성 과정에서 서울 합정동 절두산 천주교 성당에 옮긴 주어사 해운당대사 의징 스님비와 여주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부도탑도 주어사지로 다시 옮겨와야 한다”고 했다.

손정국 신륵사 신도회장은 “천주교계에서 주어사지 인근 토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황파악을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 신도회장은 이어 “1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주어사지 복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신부님 세 명도 참여하고 있다”며 가톨릭계와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여주시 문화관광과는 “주어사지는 현재 산림청 소유로 사업이 보류상태”라며 “불교계와 가톨릭계의 입장을 잘 수용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이번 주어사 복원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용주사 신도회는 6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에 주어사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으며 중앙신도회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주어사지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흩어진 주어사의 흔적들



천주교 절두산 유적지에 있는 해운당 의징스님비(사진왼쪽)와 여주시청 향토사료관에 있는 부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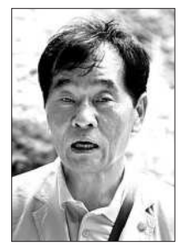
가톨릭계는 지난 1973년 천진암과 함께 가톨릭 강학회가 열린 장소로 지목되던 경기도 여주군 주어사지에서 해운당대사의징지비(海雲堂大師義澄之碑)를 발견해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나루 · 절두산 유적지’로 옮겼다. 비석 전면에 ‘해운당대사의징지비(海雲堂大師義澄之碑)’라 새겨진 이 비는 1689년 해운당 의징스님의 상좌 수견 천심스님이 세운 것이다.

가톨릭 측은 이 비석에 대해 당시 비가 발견된 논 주인이 ‘기증’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의징스님 비와 같은 발견문화재의 경우 일주일 내에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톨릭 측은 신고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뜻대로 타종교 유물을 옮겨온 것이다. 이와 함께 의징 스님의 부도탑은 여주시청 향토사료관에 보관돼 있다.

“주어사 복원, 불교 포용성 알릴 기회”

민학기 용주사 신도회장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천주교를 포용한 곳입니다. 원형복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민학기 신도회장은 “주어사는 자비심으로 조정의 탄압을 받던 천주학자들을 보호했던 곳”이라며 “그들과 함께 수난을 당한 불제자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주어사는 한국 천주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지이기도 하지만 불교적으로도 이와 버금가는 위치에 있다”며 “천진암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진암이 천주교 시설로만 복원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민 신도회장은 이어 “주어사에 얽힌 역사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스님들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주어사는 다종교 사회에서 공존, 화합의 종교평화의 현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도에 이어 참여한 불자들이 관음정근을 하며 주어사지를 참배하고 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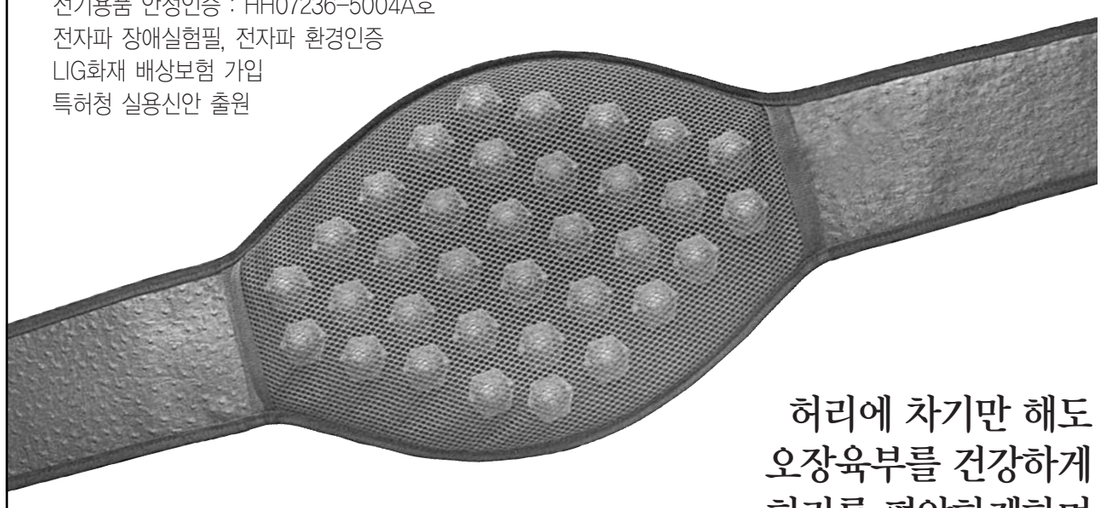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국보급 '수월관음도' 美서 발견

총 3점, 결가부좌 형태 희귀 불화도 포함



美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미술관이 소장한 '결가부좌 수월관음도'(사진 왼쪽)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한 수월관음도,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지장보살도(사진 오른쪽)

사진제공=정우택 동국대 교수

전세계 160여 점 밖에 알려지지 않은 고려불화가 미국에서 대거 발견됐다. 특히 그동안 2점만이 있었던 '결가부좌' 한 독특한 양식의 수월관음도라 더욱 눈길을 끈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지난 2월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美워싱턴 프리어 미술관이 진행하는 '미국 고려불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참여해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 미술관에서 '결가부좌 수월관음도'를 확인했다.

미국의 유명 미술대학으로 꼽히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 미술관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일본 고미술상을 통해 이 작품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고려불화 중에서도 수월관음도는 약 46점으로 대부분이 반가좌 형태이고, 이번 결가부좌 형태는 매우 희귀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결가부좌는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의 조라쿠지(長樂寺) 소장품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딱 2점밖에 없다"며 RISD가 소장품은 보존 상태도 좋고 예술성도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국보급 고려불화도 2점이 더 발견됐다. 보스턴 미술관이 1911년에 구입한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14세기 후반)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1929년 구입한 '반가좌 수월관음도'(14세기 중반)이다.

정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에서 더 많은 고려불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고려불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1차 조사가 완료됐다. 문화재청과 프리어미술관은 2015년 말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로 바라본 '주역', 그리고 중국 철학

불교평론 7월 17일 열린논단 성태용 교수 발제

사서오경 중 하나 임에도 그동안 점복술서로 여겨져 온 〈주역〉을 불교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자리가 열린다.

〈불교평론〉은 7월 17일 서울 신사동 세미나실에서 '주역과 불교'를 주제로 7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논사로는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나서 불교의 중국전래 과정에서 중국적 사유, 철학과의 접합과, 주역과의 만남을 소개한다. 불자인 성태용 교수는 주역철학을 공부해왔으며 최근 Btn에서 '주역과 불교' 강의를 하기도 했다.

불교평론 측은 "불교는 중국에 전래돼 중국적 사유와 철학을 만나면서 그 사상의 폭과 깊이를 더해 온 종교"라며 "중국 철학의 확장과 심화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印 보드가야서 국제불교 학술대회 예정

40개국 300여 학자 결집해, 인도 불교유적 보존·활용 모색

인도의 불교성지를 보존 ·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인도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전세계 300여 불교학자들이 참여해 인도 보드가야 뿐만 아니라 인도의 불교성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정부, 비하르주 정부, 인도 관광청 등은 9월 26~29일 인도 보드가야, 바라나시 등 주요 불교 유적지에서 '2014년 국제불교대회(International Buddhist Conclave 201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도 불교순례지 개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인도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부탄 등 불교국가들과 벨기에, 스위스, 러시아 등 40개국 불교 지도자 및 학자들이 참가한다.

9월 26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27일 보드가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먼저 인도 각 주의 장관들이 불교 유적지에 대한 소개와 주정부 차원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회의에 이어 라즈기르와 나란다대학 유적을 방문한다.

둘째날인 28일에는 바라나시로 이동해 갠지스강 유역의 불교유적지를 답사하며 갠지스강 지역을 고행구도의 여행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인도관광청은 "지금까지 불교순례가 유적 방문에 그쳤다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도에 있는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순례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에도 부작용, 불교에 해답 있다"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 7월 5일 '명상 · 체질 · 치유' 세미나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는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학자, 한의사, 명상연구자, 심리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상 · 체질 · 치유'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명상의 부작용과 불교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 교수는 서구심리치료학계의 명상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며 명상을 체험한 62.9%의 사람들이 불안과 동기저하, 우울 등의 역효과가 있으며 7.4%는 과대망상증 증세를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 원인을 서양에서 명상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는데서 찾았다. 정 교수는 "불교 수행은 일반적인 괴로움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명상은 스트레스라는 고통을 소멸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종교적 거부감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대신 불교수행, 명상의 기능만을 차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최근 유행하는 심리치료, 상담에서도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교수, 이필원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나서 불교와 사상의학의 학제간 융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상' 등 2건 보물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7일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2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3건은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완주 봉서사 향로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보살상이다. 이 보살상은 △165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 △조능(祖能)이라는 조각승 △봉서사 향로전이라는 봉안 장소 △왕실의 안녕과 모든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 등을 남기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대형으로 제작된 상은 아니나,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인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어 시대적 특징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나한좌상'은 17세기 대표적 조각승인 수연(守衍)스님의 조각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특히,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은 얼굴이 작고 신체의 건장함이 두드러지며, 소조나한상은 소조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각 존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 조성 목적, 제작자, 시주자, 발원자 등 불상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어, 이 시기 불교 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의의가 크다.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이와 함께 지난 6월 보물로 지정예고한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등을 보물로 지정 확정했다. 노덕현 기자

제137차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

신라사학회(학회장 김창겸)는 7월 19일 오후2시 서강대 정하상관 610호에서 제137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장일규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이재범 경기대 교수가 '궁예 정권의 종교정책 – 치성광여래와 미륵신앙' △이영애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다산 정약용의 고대사 인식',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의 '고려시대 전성과 마리산 참성의 제천단'이 각각 발표된다. (010)2253-5925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자문위 구성

7월 8일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 등 참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와 활용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는 국외 소재 문화재 보존 · 관리와 환수 및 활용 관련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부 전문가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된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위촉 후 첫 자문회의를 열고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 활용 관련 중요 정책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반기별 정기회의를 열며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소재문화재 환수 자문위에는 불교계 인사로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불교학), 정우택 동국대 교수(불교회화)가 포함됐으며, 김원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국외문화재 환수 · 활용), 김동기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외교),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정책), 오수동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국외문화재 환수 · 활용)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해 김재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동산문화재), 김지명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 원장(국제교류), 김창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법학), 박영규 前용인대 교수(민속공예), 박진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교류), 이근관 서울대 부교수(법학), 이태진 前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국제법), 지건길 前국립중앙박물관장(매장문화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 제40호 원고 모집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한국연구재단 불교학분야 최초의 등재학술지 〈불교학연구〉 제40호 원고를 모집한다. 제40호는 9월 30일 발간되며 원고 마감은 7월 31일까지다.

〈불교학연구〉에 게재 요건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까지로 200매 초과시 게재가 불가하다. 논문 초과 게재료는 120매 이상부터 1매당 3천 원으로 동시 투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교학연구회는 온라인투고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학연구〉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등 연간 4회 발간된다. 노덕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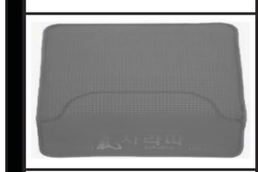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세월호 진상규명, 호남불교계 나서달라”

세월호 유가족 불교계에 호소, 호남불교계 국민운동 전개


호남불교계는 7월 7일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관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간담회를 열고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개회식 장면.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 세월호 가족버스가 7월 6일 전주종교계를 찾아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했다.

세월호 희생가 유가족들과 불자 300여명은 6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 등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지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세월호 영상보기와 함께 주지 회일 스님의 설법,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경과 활동계획,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가 진행됐다.

회일 스님은 “우리의 침묵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사회의 부조리를 바꿔내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 조혁문 씨는 “자식을 잃은 아픔을 넘어 이 땅에서 이번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생업을 포기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좋은우리절에 이어 바울교회, 우아성당 등의 종교단체를 방문했다. 또 7일에는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시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북불교계는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7일 전개했다.

김제 금산사를 비롯한 지역불교계는 7월 7일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관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 유종근 前 전북지사, 서경석 목사, 원팔연 전주 바울교회목사 등 종교지도자들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성우 스님은 이날 “이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와 도민이 힘을 모아 국가와 사회의 부실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적으로 계율과 수행을 통해 도덕적 생활을 함으로서 이런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은 물론 사회공동체들이 합심해 이 사회를 개조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 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사고는 책임윤리의 부재와 도덕성의 실종 등 겹겹이 누적된 총체적 난맥상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고 “무관심, 무책임, 부주의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없이 국가개조는 불가능하다”며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절망과 분노를 국가재창조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국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및 국가개혁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권고했다. 또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전국민 반성운동 전개 △사회지도층, 기득권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실천 △부정부패 척결 △정치권에 대한 국민감시운동 전개 △국가정체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운동 전개 △통일기반운동 확산 등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제1기 화엄선재학당 수료식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는 7월 6일 각황전에서 제1기 화엄선재학당 수료식과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수강생 50명은 수계와 불명을 받고 불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화엄선재학당은 인근 농촌마을인 구례군민을 위한 불교포교 과정으로 화엄사를 찾는 신도들의 기본교육과 지역민들에 대한 불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4월 16일 개강하여 3개월간 불교기초교리, 불교문화, 불교의식 등 수업을 진행했다.

수계식에서 주지 영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의 인연을 바탕으로 수계동참제자들은 자신의 수행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2기 화엄선재학당은 9월 2일 개강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1일출가 하계수련회



지역불교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이 1일출가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7월 5일 김제 청운사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오리엔테이션, 사찰안내, 울력, 자연음차 시음, 좌선, 전북불교대학의 법회와 미래를 위한 108배 3차례, 걷기 백련명상, 열린마당 수계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40여명의 학인이 동참한 이날 수련회에서 학장 도원 스님은 “일일출가를 통해 수행정진하는 불자상을 확립하기 바란다” 며 “1박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속의 불교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단 이주민 노동자 위한 법회 ‘눈길’

스리랑카 노동자들, 공단 휴게실에서 스리랑카 전통법회 열어



전주3공단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한국의 사찰에서 자국의 스님을 초청해 자국 전통법회를 개최했다. 전북 완주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노동자 70여명은 7월 6일 광주 무각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리랑카 디싸스님을 초청해 승보공양법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휴게실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 동참한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3개월전 모친상을 당했으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라싼다(34세)를 위해 스리랑카 전통의식으로 모친의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정용기 포교사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법회는 여법한 법당도 갖추지 못한 채 급조한 불단과 간단한 공양물만을 준비했지만 지극한 심신으로 라싼다 모친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특별히 초청된 모국의 스님을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한편 모처럼만에 외국에서 스리랑카 고유의 불교 의식으로 법회를 봉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디싸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외롭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고 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민 위한 나눔행사 높은 호응 얻어

송광종합복지관 7월 9일 ‘개관 21주년 나눔행사’ 개최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이 설립 21주년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잔치를 벌였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복지관 중 하나이다.

지난 7월 9일 광산중학교 체육관에는 광산 우산동, 월곡2동 주민 500여 명 동참한 가운데 ‘지역주민 한마음 · 한가족 · 한마당 나눔문화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나눔잔치에는 길놀이, 나눔장터, 초청공연을 비롯해 건강한 장수상, 아름다운 부부상, 착한 효도상, 감사패 증정, 저녁식사, 보물찾기, 문화공연 및 노래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돼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마음 · 한가족 공동체로써 협력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아 힘차게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행사를 개최했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밝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동근 구의원, 김광란 구의원, 건강사랑봉사단, 길상사 봉사단, 31사단 윤진영 대령 등 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남 고흥지역 불교문화재 한눈에


봉래사 관음보살상과 복장유물

고흥의 봉래사 관음보살상에서 나온 복장유물, 봉래사 신중탱화(전남유형문화재 제269)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문화재와 고흥지역 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인문학 코드 프로젝트로서 ‘남도문화 바로알기’ 특별전을 매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흥군과 공동으로 〈남도문화전 Ⅴ-고흥〉 특별전을 7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 고흥지역 불교문화는 고려 초기에 형성되어 17~19세기에 가장 성행했던 불교문화를 보여준다. 전시에는 고흥의 주요 사찰 소장 문화재가 전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강대 교육방송국, 광주 환경UCC전 대상

금강대(총장 정병조) 교육방송국(GBS) 학생들이 광주시가 주최한 ‘제7회 즐거운 환경UCC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대상과 환경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모전을 위해 교육방송국 학생들은 3명씩 두 팀으로 구성, 2개 작품의 출품을 목표로 매일 저녁 6명이 함께 1~2시간의 아이디어 회의 등을 가져왔다.

대상을 수상한 ‘피리부는 소년’ 팀은 영상에 사용된 노래(피리부는 소년)의 저작권 문제의 위기가 있었지만, 저작권자의 도움으로 원만한 해결이 돼 상을 수상했다.

금강대 교육방송국은 개교 이래 해마다 방송제를 통해 학교 캠페인 동영상 및 CF 등 학교 주변의 모든 소재를 주제로 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흥미와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억눌렸던 깊은 상처 힐링됐어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세월호 유가족 위한 ‘힐링법회’ 마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7월 6일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힐링법회를 마련했다.

7월 6일 오전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 서너대의 승용차가 도착했다. ‘천만 인의 약속’ ‘세월호 가족버스’ 등 문구가 눈에 띠었다. 세월호 유가족임을 직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서명운동에 나섰는데 울산 지역에 왔다가 이 중 20여명 정도가 사찰에 들른 것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이들을 위해 소규모의 ‘힐링법회’를 대웅전서 마련했다.

혜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저도 어릴 적 가족을 잃어 막막한 슬픔을 느껴봤기에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잠시나마 사찰에서 현재 처한 아픔을 잊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황 센터장은 “명상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힐링은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라며 모두 자리에 누워서 5분간 명상 시간을 갖자고 독려했다.

잠시 후 법당안에 불이 꺼지고 법회에 참석한 50여명은 자리에 누웠다. 명상 음악만 들릴뿐 법당안은 고요했다. 다시 참석자들을 일으켜 세운 황 센터장은 ‘힐링터치’를 제안했다.

황수경 센터장 명상지도
‘힐링터치’로 유가족 위로

황 센터장은 “참석자들은 두 개의 큰 원을 만드세요. 그리고 각자 정해준 파트너앞에 서시고 손을 잡으세요. 저는 이것을 ‘힐링터치’라 부릅니다. 어렸을 땐 부모님이 안아주는 등 건강한 터치를 합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힐링터치’를 그리워하지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아주 건강하게 다른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터치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손을 맞잡고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손을 맞잡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과 마음의 따뜻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대면하는 순간이 명상과 힐링의 시작입니다”라고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세월호 유가족인 홍영미씨는 “아들을 잃고 난 후 각종 단체에서 진행하는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다”며 “특히 혜안 스님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며 환한 웃음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시니 큰 위로가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힐링터치'는 서로 돌아가며 상대를 힘껏 안고 격려해주는 '허그'로 마무리 지었다. 이번 힐링 법회의 마지막은 그림치유 명상이었다. 황 센터장은 다시 하얀스케치북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아무거나 마음대로 그리라고 주문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유가족중 일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아들과 예전에 놀이 공원에 갔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면서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없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며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옆에서 사연을 들은 유가족 및 법회 참석자들도 함께 소리내 울었다.

황 센터장은 “울음을 참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억압된 감정들을 끄집어내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용기가 솟아나지요”라고 위로했다. 1시간에 걸친 힐링 법회는 그림 그리기 명상으로 끝을 맺었다.

제삼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는 “가는 곳 마다 행사가 많아 오히려 더 지친 마음이었는데, 오늘 치유 명상 법회는 그동안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 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 혜안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울산=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15년 완공 부산불교요양병원 건립

원효불원 7월 7일 기공식


부산불교 요양병원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설립된다. 기공식 장면.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를 회향하기 위해 원효불원(선원장 법산)이 부산불교요양병원을 건립한다. 7월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병원부지에서 부산불교요양병원 기공식을 가진 원효불원은 2015년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불사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알렸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감로사 회주인 혜총 스님은 발원문에서 “불사가 성취되면 불교계의 사부대중 모두가 주인이요, 안식처가 될 것이니 부처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원력이 부처님께 닿기를 바란다”며 부산불교요양병원의 원만한 불사를 발원했다.

이어서 원효불원 선원장 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외롭고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서원이 항상 마음속에 하나의 점으로 남아 있었다. 인생이라는 것은 생로병사(生老病死) 그 자체이다. 부처님의 생각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부산불교요양병원을 어르신들을 위한 극락정토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김영환 前 부산광역시장 등 내빈들의 축사 이후에는 마지막 순서로 첫 삽을 뜨는 시삽이 사부대중 200여명의 축하 속에 진행됐다. 한편 부산불교요양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12층 법당을 포함한 총 210개의 병상이 갖춰진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불교 포교, 과거에서 미래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학술세미나 장면

부산불교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이진오 부산대 교수) 학술세미나가 7월 11일 양정 부산불교회관에서 개최됐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현대불교연구원(원장 무관)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는 ‘부산불교 포교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가량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익채 전 금정중학교장은 기조발표에서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활동은 한때 부산 시내 전 대학에 조직되어 2천여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5개 대학에만 있으며 총 회원은 100여명 밖에 안 된다. 또한, 대부분이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대불련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불교 포교에서 청년층의 참여도가 증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경수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과 이사 정승안은 ‘부산불교 청년회 포교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청년 불자의 재생산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청년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광호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장은 ‘어린이 포교가 불교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부산지역 내 어린이 포교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조발표 후에는 장재진 동명대 교수, 송재근 창원대 교수, 김준호 부산대 교수의 집전으로 부산불교 포교의 향후 행보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영병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한 관련 학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자비의 물결, 부산 광복동 거리 적셔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부산서 회향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이 카드단말기 기부 시연을 하고 있다.

전국 114개 모금소에서 거리캠페인을 펼치는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7월 6일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에서 회향했다.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주최하는 행복바라미는 6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총 5개 주요 도시에서 15일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불자를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왔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단말기를 도입해 모금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인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인디밴드 공연, 행복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의 대미를 부산에서 장식했다.

또한,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범어사 부주지 범산스님, 제14교구신도회 이윤희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신용카드 단말기 시연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도 했다.

혜총 스님은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타인과 함께하는 행복이다. 지금 내리고 있는 자비의 비가 전국 곳곳을 적시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향식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천 속에서도 열띤 모금 열기가 지속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역대조사 위한 전통다례 문화축제

포항불교사암연합회 7월 5일 개최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전통다례 문화 축제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화)는 7월 5일 지역문화를 빛낸 역대조사를 위한 ‘전통다례 문화대축제’를 열었다.

포항 내연산 보경사(주지 철산)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영남불교 봉사단 임정회, 포항불교신도단체연합회 정각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보경사 회주 법달 스님,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화 스님,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담 스님, 보경사 주지 철산스님,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 행사추진위원장 준제 스님 홍보부장 청담 스님, 위덕대학교 김정기 총장, 시의회의장, 기관 단체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행사추진위원장 준제 스님은 “앞으로 고증과 학술세미나를 통해 미래불교를 위한 역사 인프라구축에 우리 포항불교가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화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교역사의 중심에 있던 포항불교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해석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계승 발전시키기자. 지역 선사님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의 첫단계로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게 되었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타향살이,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요”

삼광사 베트남 결혼 이주민 및 근로자 법회 마련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베트남 결혼 이주민 및 근로자들을 위한 법회를 7월 7일 경내 법화당 문화실에서 봉행했다. 베트남에서 온 틱뜨엉탄 스님의 집전으로 베트남 불교의식과 함께 시작한 이번 법회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 및 근로자들을 포함한 베트남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다문화센터 회장이자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머나먼 타국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삼광사는 365일 24시간 법당을 개방하겠다. 부처님께 참배하며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틱뜨엉탄 스님은 “오늘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이행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온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시고 따뜻한 법석을 마련해주신 주지 무원 스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민 후인 응옥건(26)은 “삼광사에서 부처님을 뵈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졌다”며 법회를 마련해준 삼광사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베트남 불자 300여명은 틱뜨엉탄 스님의 설법으로 타국생활의 무사 안녕을 발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대한불교 종정단 . 고승단 . 종단 . 대종사 .자문단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대한불교 종단총연합 협의회.

제 6회 7월 29일 각료 임명식 & 대종사 품수 수여식

오후 3시 정각 / 하림각 : 02)396-2442 종로구 부암동 162-3

각종단 종정큰스님, 총무원장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행이 필요합니다.

승려들의 수행 풍토 쇄신을 도모하여 불교의 질적 성장과 정화와 개혁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
1080명의 숨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각료 임명과

※ 350여 군소종단이 하나되어 합동 금강계단 품수를 지속적으로 봉행하고자하니 뜻이 있으신 스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장관급 각료 명단

불원 보각 혜승 대붕 도명 혜선 대풍 성각 지암 도암 혜월 현담 경오 영각 남륜 청운 돈조 보현 대경 도안 법상 도월 대연 혜운 송현 진관 지우 종선 도암2 능허 택봉 청산 성군 정오 법현 지암2 향운 보성 법성 송운 도언 경현 동월 법인 법광 제성 법지 송몽 법주 도일 구암 심오 혜광 석담 원광 청광 혜상 혜관 도경 성보 보명 현덕 보운 무량수 혜정 법조 해공 성범 지연 다정 구암 혜일 석장원 보현2 법용 지훈 법상2 각운 정음 선명 혜륜 혜진 이한규홍보실장 금조 목성 만근 외 500인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합장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법왕청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02)733-5671. H·P 011-229-6061

시간 멈춰버린 천년암자엔 수행 가풍만이

작은 암자를 찾아서

① 완주 태조암



작은 불상을 모신 법당이 고졸미를 자아낸다.

1675년 조선시대 위봉산성과 함께 건립
19세기 말경 조성된 만불탱화 일화 유명
조선불교 초대교정 박한영 스님 출가사찰


전주시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태조암에는 법당과 요사채만 있어 산속 작은 암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북 완주 태조암(太祖庵)은 지금은 위봉산이라 불리는 주출산 정상인 되실봉(524m) 아래 위치해 전주 시내와 드넓은 호남평야를 굽어보고 있다. 예로부터 되실봉을 중심으로 위봉사쪽에 비가 내리면 위봉폭포로 흘러가고, 태조암쪽에 내리는 비는 송광사앞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태조암이 창건된 것은 1675년 위봉산성이 축성될 때다. 1592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전주 경기전에 보관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조경묘의 전주 이씨 시조 위패를 피신시키기 위해 쌓은 위봉산성안의 행궁과 함께 태조암도 창건됐다.

실제로 조선말(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 전주부성이 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자 태조어진과 위패가 태조암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그래서 산자락 아래의 위봉사를 에두르는 산줄기 전체가 성곽을 이루고 있다. 위봉산성은 거의 허물어져 일부를 제외하고 돌무더기로 남아있고, 행궁은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태조암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랜 역사를 켠켠히 이겨내고 있다.

태조암은 창건당시 행궁 수호사찰이었지만 지금은 비구니 선원을 운영하는 위봉사의 산내암자로 오롯이 수행가풍을 이어가고 있다. 송광사방면서 휘돌아 굽이도는 3km 정도 뱁재(위봉재) 정상에 위치한 위봉산성에서부터 태조암 오르는 길이 시작된다. 송광사 방면서 오르는 고갯길은 뱁재지만, 위봉사 방면서 오르는 길은 무주령(無主嶺)이다. 이는 주인없는 고갯길이란 뜻이다. 같은 고갯길이 두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흥미롭다. 고개 정상에 오르면 원형만 남아 있는 위봉산성 서문 앞 길가에 차를 세워두어야 한다. 이 곳에서부터 찻길이 없고 임도를 따라 30분 걸어 올라야 태조암이 보인다. 이정표는 0.97km를 알려주지만 몸이 느끼는 체감거리는 훨씬 길다. 그 만큼 가파르다.

암자를 오르는 길은 역시 숨을 몰아쉬며 걸어야 제격이다. 하늘을 뒤덮은 울창한 숲이 이끄는 대로 걸어 올라야 제 맛이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인적없는 울창한 숲 그늘 산성길을 홀로 걷다보면 어디선가 불쑥 옛 병졸이 튀어나올 것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 옛날 전란에 대비해 쌓은 성곽이란 말이 실감난다.

태조암을 오르자 사람은 없고 수백년은 족히 돼보이는 느티나무가 객을 반긴다. 장마철 변덕스런 비를 맞고 간신히 도착한 태조암은 전주시내가 한눈에 들어 올 정도로 멋진 풍광이다.

이런 국가대표급 자연에 비해 태조암은 대웅전인 법당(法堂)과 요사채가 붙어있는 인법당(人法堂) 한 채인 단촐한 구조다. 천상 수행자가 아니면 이곳에 오래 머물기도 어려울 듯한 그야말로 깊은 산속 작은 암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래서 더욱 정감이 가고 외경심이 든다.

태조암과 관련해서 신비스런 일화가 전해진다. 19세기 말경 태조암서 여섯 스님이 극락정토 만다라(만불탱화)를 조성했는데, 탱화가 조성될 당시에 태조암쪽 산마루가 온통 탱화에서 방광(放光)하는 빛으로 휩싸여 마을 사람들이 산불이 난 걸로 착각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이 극락정토 만다라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9천500명의 아미타여래를 표현한 불화이다. 현재는 위봉사에 봉안돼 있는데 8폭만이 남아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상(圖像)을 보여주는 탱화로 부처님의 표정은 물론이고 두발과 의상까지 다채롭게 묘사된 점이 특징이다.

태조암은 또한 현 조계종 전신인 조선불교 초대교정(현 종정)을 지낸 박한영 스님의 출가사찰이기도 하다. 완주 삼례출신의 박한영 스님은 불심깊은 어머니가 위봉사서 금산 스님의 생사법문을 전해주자 이에 감명 받아 19세에 금산 스님을 찾아가 태조암으로 출가했다고 전해진다. 태조암은 사명 그대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선사들의 향훈이 촉촉이 흐르고 있었다. **완주 태조암=조동제 전북지사장**

태조암 가는 길

■**대중교통**: 전주대~수만리 행 106번 버스(하루 6회운행 막차 수만리행 20:00, 전주행 21:40) 전주 시내버스(063)272-8102

■**자가용**: 호남고속도 익산JC~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741번 지방도(송광사, 위봉사), 혹은 익산~비봉(741지방도)~고산~동상(호반 드라이브)

주변 둘러볼만 한 곳

■**위봉산성 (사적 471호)**

전북 완주의 위봉산(524m)에는 유사시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태조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조선조 숙종 때에 축성된 위봉산성이 있는데, 산자락 아래의 위봉사를 에두르는 산줄기 전체가 성곽을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 변란을 대비하여 주민들을 대피시켜 보호할 목적으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숙종 원년(1675)~숙종 8년(1682)에 쌓은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 둘레는 약 8,539m, 성벽 높이는 1.8~2.6m, 성안 면적은 1백66만여㎡에 이른다.

관련 시설물로는 성문 4개소, 암문지 6개소, 장대 2개소, 포루지 13개소, 추정 건물지 15개소, 수구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일부 성벽을 제외하고는 성벽 및 성문, 포루, 여장, 총안, 암문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다른 산성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유사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 위한 행궁을 성 내부에 두는 등 조선 후기 성곽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태조암과 함께 축성된 위봉산성 입구

■**위봉폭포**

위봉산성이 동문쪽에 있는 위봉폭포는 높이가 60m이며, 2단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는 옛부터 완산 8경에 드는 절경으로 유명하다. 폭포주변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빼어난 경관을 이루며, 가까운 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웅치전적지 (전라북도기념물 제25호)가 있다.

■**위봉사**

위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말사이다. 백제 무왕 5년인 604년 서암대사가 창건, 1359년(공민왕 8)에 나옹선사가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당시의 규모는 28동이었고 암자도 10동이나 되는 대가람이었다. 1911년에는 선교31본산의 하나로 전라북도 일원의 46개 사찰을 관할하였으나, 여러 번의 화재로 인하여 지금은 그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다. 1990년에 위봉선원을 짓고 삼성각을 보수하였다. 1991년에는 나한전을 중건하고 일주문을 세웠다. 1994년에는 극락전을 건립하여 아미타여래상을 봉안하였으며, 2000년에는 범종각을 지었다. 조선말에 건축한 요사채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됐다.

■**공기마을 편백나무숲**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에는 밥공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공기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 뒤편으로 펼쳐진 10만여 그루 편백숲은 1976년 박정희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2년여 전,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 '최종병기 활'이 개봉된 뒤부터다. 40년 가까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울창한 편백숲이 치유의 숲으로 알려진 것이다. 숲을 둘러보는 길은 여러 갈래다. 등산로를 따라 578m 옥녀봉, 570m 한오봉까지 올라가 능선을 타는 방법과, 6km 길이의 산책로인 임도를 걷는 방법이 있다. 또 지난해 주민들이 흙길로 만든 2km 남짓의 편백숲 오솔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아 수목원**

산림휴양, 산림문화공간, 자연환경, 식물종의 다양성 확보를 바탕으로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1995년 개원했다. 155ha의 면적에 금낭화 자생군락지와 산림문화전시관, 산림생태체험관, 분재원 등을 갖추고 있다. 산책로와 임도를 따라 올라볼수 있는 3개의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다. 입장료는 무료다. (063)243-1951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탑의 진화
⑭ 중국의 불탑(1)

남방의 '영구매납' 안 따르고 '친견' 택해

부처님의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시작된 불탑은 남방 불교에서는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형상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북방불교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불교 수용 이전부터 어느 정도 체계화된 고층 누각의 건조 기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불교의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는 다층건물식 불탑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바로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 즉 실크로드 지역에서의 변화를 시발점으로 중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 만나 점차적으로, 또 다각도로 바뀐 것이다.

중국에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가 처음으로 전해진 사실은 당(唐)의 도선(道宣)에 의해 저술된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에 사리 수용과 관련된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한법본내전(漢法本內傳)』에서 이르기를, 명제(明帝:227~239)가 이미 불법을 널리 펴고 절을 세우고 스님에게 도첩을 주니 오악(五嶽)의 도관에 있는 모든 도사들이 재주를 시험하기를 청하였다. …… 이때에 서역에서 가지고 온 사리는 오색으로 광명을 발하며 공중으로 높게 올라가 덮개와 같은 형상으로 빙빙 돌며 햇빛을 가렸다. 마등(摩騰) 나한은 뛰어올라 높게 날며 신통력을 자유롭게 보였다. 하늘에서는 꽃비를 내려 부처님의 사리와 스님들 머리 위에 흩뿌렸고, 하늘나라의 음악소리가 들려오니 번화하게 모인 사람들은 신심을 느끼게 되었다. 『대정신수대장경』(52권 410쪽 중단)

위의 기록으로 서역에서 전래된 사리가 신통력을 보임으로써 군중을 교화시켰다는 사실과, 불교 전래 당시 기적 같은 종교적 신비성을 통한 정착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에 불탑신앙이 예고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많은 문헌에 사리신앙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는 '태시(泰始) 원년(265)에 서역 오장국의 담마라스님이 낙양에 도착해 법운사(法雲寺)를 창건하고, 이곳에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佛牙]를 비롯해 경전과 불상 등도 봉안했다. 『대정신수대장경』(51권 1015쪽 상단)라는 기록이 설하져 있다. 또, 『고승전』에 의하면,

오나라 적오 10년에 처음으로 불상을 모시고 도를 행하였다. 손권이 즉시 강승회를 불러 "어떤 영험이 있는가?" 하고 묻자, 강승회가 답하길, "여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어느덧 천 년이 흘렀습니다. 유골인 사리는 신비하게 빛을 발하여 사방을 비춥니다. 예전에 아육왕은 탑을 세운 것이 무려 8만 4천입니다. 대개 탑사를 세우는 것은 여래께서 남기신 유화(遺化)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손권은 과장되고 허황하다 생각해서 강승회에게 말하였다. "만일 사리를 얻는다면 마땅히 탑사를 세우겠지만, 그것이 헛되고 망령된 말이라면 나라에서 정해진 형벌이 있으리라." 이에 강승회는 7일 동안의 기일을 청하고 그를 따르는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법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이 한 번의 일에 달려 있다. 지금 지극한 정성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는 모두 고요한 방에서 결재하면서 구리로 만든 병을 상에 높고 향을 피워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 7일 저녁 무렵이 되어도 보이는 바가 없자, 모두들 두려움에 떨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오경(五更)이 되자 문득 병 속에서 달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

남방 불탑-불교사상 표현
중국 불탑-사리신상 배경
남방의 '영구매납' 안 따르고
친견방식 택했던 것으로 짐작
초창기 동한시대 불탑 전무

남북조시대 많은 불탑 조성
현존 最古-숭복사 9층 석탑
'누각식' 이 역사 길고 가장 많아
탑 내부 계단으로 정상까지 이동

수양견 아쇼카왕 이어 113개 조성
기록만 남고 전란으로 모두 소실

승회가 가서 살펴보니 과연 사리가 들어 있었다. 다음날 강승회가 손권에게 이를 바치니 조정에 모인 신하들이 모두 모여 바라보았는데, 오색의 찬란한 광채가 사리병 위로 뻗쳐 나왔다. 손권이 직접 손으로 구리 쟁반 위에 병을 기울이자 사리가 부딪쳐 쟁반이 곧 깨어지고 말았다. 이에 손권이 숙연해하자 강승회가 말하길 "사리의 신비로운 위엄이 어찌 다만 광채를 발하는 일에만 그치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불로도 감히 태울 수 없고, 금강의 방망이로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대정신수대장경』(50권 325쪽 중단)

이처럼 중국 삼국시대의 역경승으로 오나라에 불교를 전파한 강승회(?~280)는 사리를 '여래가 남긴 유화' 라고 정의하면서 부처님과 동일한 것으로 사리를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혹은 남방 불교 지역에서 사리를 탑신 안에 영구히 매납(埋納)하던 방식과는 달리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당시에는 사리를 친견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는 동한(東漢)시대(25-220)의 불탑으로 현존하는 것은 찾을 수 없지만, 그 시대의 회화에서 당시 인도식 반구형태의 탑의 형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불탑의 조형적 형상은 누각식을 비롯하여, 밀첨식, 정각식, 라마식, 화식, 금강보좌식, 과가식, 〈표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시대별로 각 형식의 불탑의 예를 들어 중국 불탑의 변천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 역사에서 삼국시대(220-280)를 거쳐 남북조시대(420-589)에는 많은 불탑이 조성되었다. 현존 하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숭복사(崇福寺) 9층석탑〈사진1〉으로 북위 천안왕조(466)에 조성된 것이다. 이 불탑은 원래는 산서성의 숭복사에 있었으나, 중일전쟁 중에 일본사람들에 의해 탑신부와 상륜부가 분리되어 탑신부는 일본으로 반출되어 도쿄 황실 박물관에서 수장하고 있었다. 그 후 일본 패망과 함께 중국으로 반환되어 남경박물관에 잠시 보관되었다가 현재는 대만의 타이페이 대북국립역사박물관(台北國立歷史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다. 상륜부는 다행히 중국 산서성 삭주시 문화재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학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불탑의 현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요즘 들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불탑의 탑신은 높이가 약 153cm로 4개의 사각형 석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단부, 1층에서 7층까지의 중간 탑신부, 8층에서 9층까지의 상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된 이 4부분의 조각이 조립식으로 합쳐져 하나의 완전한 탑을 이루고 있다. 기단 정면에는 공양 올리는 사람과 향로, 사자가 조각되어 있고, 측면에는 남녀 인물상이 크기에 따라 각기 배열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공양인을 포함한 100자가 넘는 음각이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누각식 지붕장식으로 조성되어있으며, 각 층마다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각각 조각하였다. 특히, 상륜부에는 석가모니불상과 다보불상이 조각되어 법화경의 견보탑품 경설 '이불병좌' 의 도상적 표현〈사진2〉으로 추측되어 우리나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성과도 연관성을 짐작 할 수 있다. 이 불탑은 참배객들이 스스로 신앙심이 돈독하게 될 정도로 정교한 불상조각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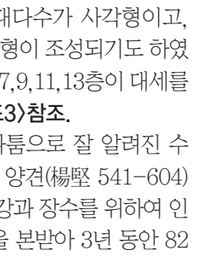
남북조 시대에 조성된 누각식 탑의 또 다른 예로는 하남성 등봉시 숭산의 숭악사탑(嵩岳寺塔)〈사진3〉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북위 효 명제 정광연간(520년)에 조성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돌탑[전탑]으로, 높이는 40m이며, 15층이다.

이러한 누각식탑은 한족(漢族) 특유의 불탑 건축 양식으로 중국의 불탑 중에 가장 역사가 길며 형태에 있어서도 가장 높고 크며 그 수량도 가장 많다. 탑 내부는 일반적으로 벽돌모양의 돌이나 목재의 계단이 있어서 탑의 정상까지 올라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탑의 층수와 내부누각의 층은 일치한다. 그러나 숭악사탑의 내부는 소위 통층으로 외부는 15층의 모습이나 내부는 단층의 구조를 하고 있다. 현재 내부 중앙에는 최근에 봉안한 불상〈사진4〉이 있으며, 심하게 훼손된 지궁(地宮)〈사진5〉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누각식 불탑의 형태는 남북조에서 수,당 시대에는 대다수가 사각형이고, 송대에는 육각, 팔각형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층수는 홀수로 7,9,11,13층이 대세를 이루었다. 〈표2〉, 〈표3〉참조.

고구려와의 패권다툼으로 잘 알려진 수(隨)나라의 초대황제 양견(楊堅 541-604)은 그의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인도 아쇼카왕의 업적을 본받아 3년 동안 82개 사찰에 약 113개의 목탑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다만 수대의 탑으로 산동성에 있는 신통사 사문탑〈사진6〉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 불탑은 수나라 양제 7년(611년)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석(青石)으로 겹쳐 쌓은 정방형 정각식(亭閣式) 단층탑이다. 높이는 15m이고 한 변의 길이는 7.4m이다. 사방 벽면의 중앙에 각각 4개의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사문탑이라고 부른다. 탑 내부에는 남쪽으로 보생불(保生佛), 북쪽으로 미묘성불(微妙聲佛), 동쪽으로 아촉불(阿蜀佛), 서쪽으로 무량수불(無量壽佛)이 봉안 되어 있다. 1971년 탑 상부에서 '大業七季造' 이란 글자가 새겨진 것이 발견되면서 실제 조성연대를 알 수 있었으며, 탑 내부에서 사리를 담은 사리함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남방 불교권에서의 불탑은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위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즉 불교사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조성되었다면, 중국에서는 사리 숭배신앙을 근저로 불탑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글 · 우인보

〈사진1〉

숭복사 9층석탑

〈사진2〉

숭복사 9층탑 상륜부

〈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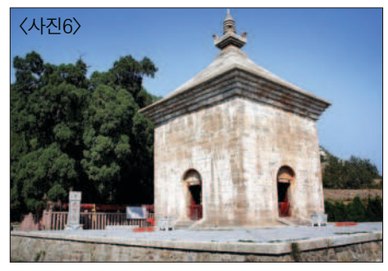
숭악사탑 전경

〈사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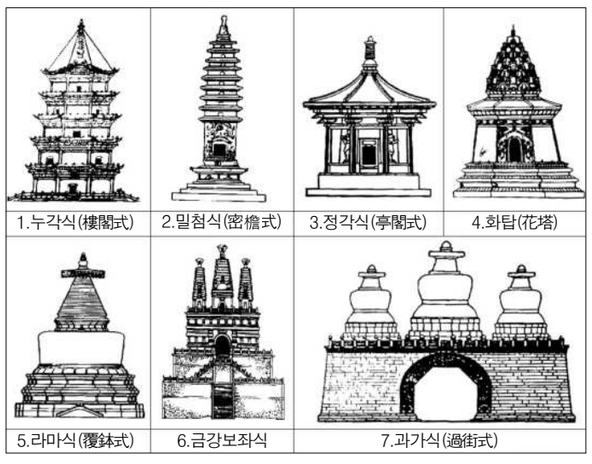
숭악사탑 내부의 최근에 모신 불상

〈사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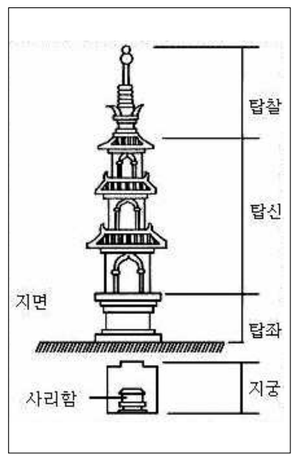
숭악사탑 지궁이 훼손되어 있다.

〈사진6〉

산동성에 있는 신통사 사문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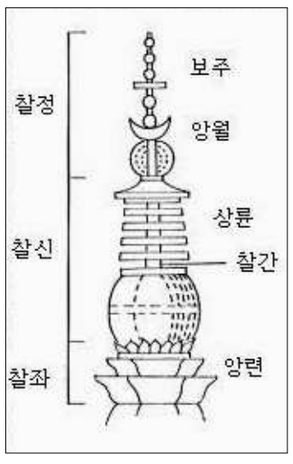
〈표1〉 중국 불탑의 형식 구분



〈표2〉



〈표3〉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한국의 구법승

14. 고려시대 대표 구법승

신라불교의 열망, 고려에도 이어져

신라 말 불교의 밀교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고, 선근공덕과 도교의 음양오행, 풍수지리를 묶은 도참설까지 유행하며 고려시대로 이어지게 된다. 고려시대 중국은 송나라와 원나라였다. 이때의 문화를 수용한 주체는 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구법승들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선종과 교종의 갈등이 증폭되고, 승려들이 국가가 관장하는 관료조직으로 흡수되기도 했다. 이때마다 구법승들은 한국불교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

교장 결집, 천태종을 펼치다

대각 의천 스님

먼저 고려불교를 새롭게 한 대표적인 구법승으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꼽을 수 있다. 문종의 넷째 왕자로 1055년에 태어난 의천 스님은 11세에 출가해 개성 영통사의 경덕국사 문하에서 화엄을 연마했다. 조예가 깊었던 의천 스님은 23세부터 화엄을 강의하기 시작해 일생동안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천 스님은 특히 교장 수집을 발원했다. 송나라 유학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의천 스님은 송나라 유학을 결심하고 왕에게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하지만 스님은 유학에 대한 결심을 굽히지 않고 왕과 태후에게 편지를 남기고 제자 수개(壽介)를 데리고 몰래 중국으로 건너간다. 왕이 허락하지 않는 유학, 풍랑을 거스르는 배에서 몇 개월씩이나 목숨을 걸어야 갈 수 있는 송나라로 의천이 유학을 간 이유는 '삼장(三藏)의 정문(正文)' 과 헤아릴 수조차 없는 '백가(百家)의 장소(章疎)', 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31세가 되던 1085년 송나라에 도착한 스님은 14개월 동안 머물며 송나라 지도자급 승려들을 만나고, 불서 발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다.

송나라에 들어가서조차 송나라 관료인 양걸(楊傑)의 안내를 받으며 유행하고, 혜인원에 머물 때는 불교전적 7500여 권을 기증할 정도로 재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의천 스님이기에 행각은 여느 구법자들과는 많이 달랐다. 스님은 중국의 화엄종 조사 진수정원 대사와 교유했는데, 이어 50명이 넘는 당대 각 종파 고승들을 만나 불법을 묻고 3000여 권의 전적을 수집해 이듬해 귀국했다.

의천 스님의 이런 실천은 〈속장경〉과 엄청난 수의 교장(敎藏)을 출간하는 결실로 이어진다. 고려에서 의천 스님은 〈대각국사문집〉 〈대각국사외집〉 〈신집원종문류〉 〈석원사림〉 〈간정성유식론단과〉 〈신편제종교장총록〉 등을 편찬했으며, 불교역사 이래 최초로 〈속장경〉을 간행했다.

스님은 귀국 후 흥왕사 주지가 돼 활동의 중심으로 삼았다. 스님은 35세에 천태종을 개창하고 모후인 인예태후의 원찰로 국청사를 기공했다. 스님은 화엄종을 기반으로 천태종을 개창해 기존 선종을 포용하려 했다. 42세에 숙종 즉위 후 흥왕사에 올라 그동안 중단된 국청사 공사를 재개해 기공 8년만에 낙성을 하여 주지로 부임, 천태종을 창립한다. 그리고 4년 뒤 숙종 6년인 1101년에 47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대각국사가 천태종을 창립한 까닭은 천태의 근본사상인 회삼귀일(會三歸一)과 일심삼관(一心三觀)의 교의로써 국가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선(禪)과 교(敎)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

화두 참구로 조계종 기반 다져

태고 보우 스님

태고 보우 스님은 조계종 중흥조이자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려말 대표적인 고승이다. 보우 스님은 13세 때 회암사 광지선사에게로 출가했다.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의 종풍에 따라 스님은 선가의 가풍에 자연스레 젖어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를 참구했으며, 교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26세 때 화엄선(華嚴選)에 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교학의 한계를 깨닫고 궁극적인 깨침에 이르고자 모든 반연을 끊고 화두에만 전념했다. 충숙왕 17년인 1330년 용문산 상원암(上院庵)에서 관음기도를 하고, 충숙왕 복위 2년인 1333년 성서(城西) 감로암(甘露庵)에서 정진했다.

송도(松都) 전단원(檀園)에서 무자(無字) 화두를 참구하던 중, 1338년 1월 크게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백운암에 머물던 보우 스님은 47세이던 1346년 원나라로 건너가 이듬해 임제종의 18대 법손인 석옥청공선사를 만나 인가를 받는다. 당시 석옥스님은 보우 스님에게 "불조의 명맥이 끊이지 않게 하라"는 당부와 함께 가사와 주장자를 전했다고 한다. 연경



태고 보우 스님

신라-고려 교체 이후 혼란 불교로 극복

대각 의천 '교장 수집·속장경 간행'

태고 보우 화두참구 수행법 제시

나옹 혜근 '염불문' 등 대중불교 전해

에 머물때는 황실의 칭송을 들으며 성대한 법회를 개설했다고 한다.

보우선사는 부처와 조사가 전한 진리는 문자나 언어에 있지 않다는 선교관을 가지고 한결같이 무자를 비롯한 화두 참구를 수행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그 참구과정에서는 어떠한 지해(知解)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귀국한 스님은 수많은 납자들이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끌었다. 1357년, 공민왕이 보위에 오르자 왕은 보우 스님을 왕사로 임명하고자 했으나 스님은 끝내 거절했다. 그러나 공민왕은 왕사의 법복과 인장을 스님 처소로 보내 주자 스님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왕사로서 원융부를 설치해 종단의 화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뒤 스님은 스스로 왕사 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소설산에 머물었고, 1371년 공민왕은 이러한 스님을 나라의 스승인 국사로 책봉했다. 스님은 한양 천도 등의 정치적 자문도 하였다.

보우 스님은 당시 구산선문의 경쟁이 심각해 폐단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일문으로 통합을 추진, 사원의 규칙도 〈백장청규〉로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나옹 혜근 선사

고려불교 부흥시킨 정토문 선지식

나옹 혜근 선사

나옹 선사는 고려 말 스님으로서 20세 때 친구의 죽음으로 문경 대승사 요연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양주 회암사에서 4년간 정진했는데 불과 24세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었다.

충목왕 4년(1348) 원나라 유학길에 올라 인도인인 지공 스님이 있는 법원사에서 3년 간 가르침을 받는다. 이후 항저우 휴휴암(休休庵), 정자선사(淨慈禪寺)에서 수행하며, 임제종의 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서 법을 받았다. 그 뒤 다시 지공선사를 찾아가 심법(心法)의 정맥(正脈)을 이어받아 두 스승에게 심인을 전수받았다.

연경에서는 광제선사에서 개당법회를 열고 원 왕실의 환대를 받았다. 원나라 황제의 청으로 광제선사(廣濟禪師) 개당법회를 열었으며, 지공선사의 가르침을 안은채 10년 만에 고려로 돌아온다.

귀국한 후에는 공민왕과 태후의 청으로 궁궐에서 선법의 요체인 심요(心要)를 설하였다. 나옹선사는 이때부터 고려 불교를 부흥시키는 중심축이 되었다.



천태종이 매년 단양 구인사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각 의천 스님 다례재



태고종이 매년 서울 태고사에서 개최하고 있는 태고 보우 스님 다례재



남양수 회암사지에 남아있는 나옹혜근선사 부도탑과 석등

스님은 대선사였으나 민중을 위해 염불 법문을 권장한 선문과 정토문의 선지식이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권하는 〈서왕가(西往歌)〉를 지었고, 또 〈승원가(僧元歌)〉를 지어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염불법을 알기 쉽게 가르쳤다.

스님은 1371년, 가사와 법복을 하사받았으며 왕사에 봉해졌다. 공민왕에게 존숭(尊崇)받고서 법호(法號) 보제존자(普濟尊者)를 받았다. 1379년 정월 지공 스님의 영골이 화엄사에 도착하자 영골에 예를 올리고 광명사에서 안거 하였다. 9월에는 양종오교(兩宗五敎)의 승려들을 시험하는 공부선(工夫選)을 관장하였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번잡하여 밀양 영원사로 가는 도중 여주의 신륵사에서 세수 57세, 법랍 37세로 입적하였다.

신륵사 법상 위에 앉은 나옹선사가 일렀다. "너희들을 위하여 열반불사를 마치겠노라." 봉미산 봉우리엔 오색구름이 덮였고, 선사를 태우고 가던 말은 먹기를 그치고 슬피 울었다고 전한다. 우왕 2년(1376년) 5월 15일, 스님이 된 지 37년 만이었다.

나옹화상의 법맥은 무학대사가 이었고, 목은 이색은 위와 같은 일들을 비문에 적었다. 옹선사 비와 부도는 회암사터와 신륵사에 있으며 원주 영전사에 세운 승탑(僧塔)인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탑(原州 令傳寺地 普濟尊者塔)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다. 〈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간관계의 고민을 가진, 삶이 왜 이따위냐고 소리치고 싶은, 번뇌 만발의 사람들에게 빙긋이 웃음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까칠한 손바닥이야기!!

신간

부처 마을의 손바닥 이야기



말로는 모든 게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힘들면 쉬웠던 말들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이 얼마나 무서운 살덩이인지, 또 조복받기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법당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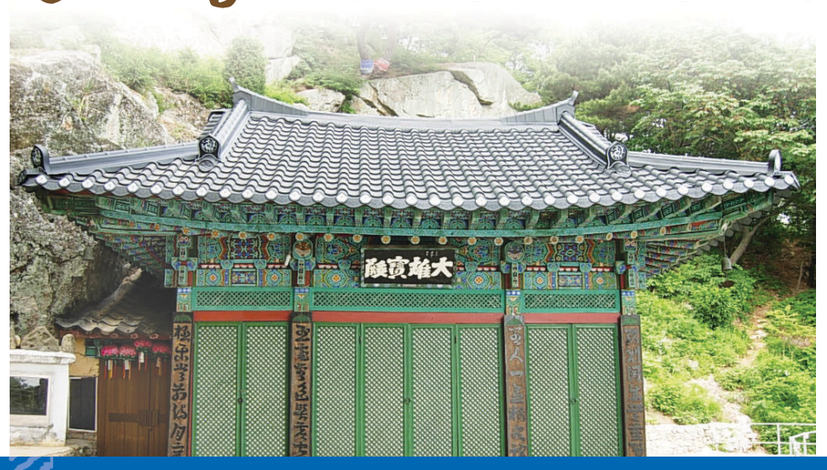
60년을 넘게 절에서만 일꾼 노릇을 했기에 공양물은 물론 절집 일에 관한한 달인이라고 불러도 좋았다. 심지어는 스님들의 얼굴만 보아도 공부가 된 스님인지 아닌, 머지않아 여신도와 스캔들이 날 스님인지 아닌지도 척 궤고 있었다.

번뇌하는 인간들의 유쾌한 아이러니가 가득한 40가지 이야기!!

이형순 지음 | A5 신국판 349쪽 | 값 15,000원 | 클리어마인드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클리어마인드
문의 02)2198-515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생사업 무너지니 천당이 무너져

법 신 ⑥

이 소식처에서 삼악도가 뒤집히니 지옥이 와지끈 부서지고 생사업이 무너지니

그러니까 벌써 이 자리에 가면 죽었다 살았다 이거 헛거라는 말 알았거든. 그러니까 생사업이 무너졌어.

생사업이 무너지니 천당이 우지끈 넘어지는 풍광이다.

지옥이 와지끈 무너지니 천당이 우지끈 무너져. 참 좋죠? 천당과 지옥을 내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되지 남이 만들어 놓은 천당에 가서 거지짓 할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부질없이 꿈틀거리느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망설이다가 혹일하에 날뛰는 백귀에게 사로잡히면 헤어나지 못하니 쫓기는 길은 바로 불구덩이가 아니면 흙구덩이니라.

그러니까 이 도리를 모르면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결단을 하라. 분별에 있지 않다. 여래 땅에 이르는 길은 집(재가)에 있고 집을 뛰쳐남(출가)에 있지 않으니 그 법도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앎과 모름에 있지 않으니 그 지견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늙음과 젊음에 있지 않으니 그 상모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남자와 여자에 있지 않으니 그 성별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미함과 깨침에 있지 않으니 그 지혜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바름과 삿됨에 있지 않으니 그 도리에 차별이 없는 까닭이요, 착함과 악함에 있지 않으니 그 행위에 차별이 없는 까닭으로서 오로지 쫓아서 온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느니라 호의 젯트기에 있을 따름이다. 이 당처인지라, 가지 가지마다가 거문고 줄이요 잎 잎마다가 피리 소리더니 어즈버야, 이 천억 화신인 석가모니불의 가풍이로다.

사실로 우리가 이만 하면 됐지 이 이상 더 바랄 거 뭐 있습니까? 이 이상 또 바래요? 이 이상 더 바라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 바랄 것도 없고. 그러하니 다만 우리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공연히 자기 부처를 자기 스스로가 구속하고 있을 따름이여. 왜 구속을 해요? 왜 경계에 닿질려서 놀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는 무엇이냐. 파순이가 사도예요. 경계를 좋아해. 경계를 그리 좋아해. 변하는 경계. 그래서 거기 놀아나. 그것이 파순이거든요. 보살은 무엇이냐. 경계를 그대로 굴리더라도 거기에 들어앉질 안 해. 이것이 보살이에요. 이것이 부처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계를 그대로 굴려. 꽃도 굴려 자식도 굴려. 가정도 굴려. 굴리긴 굴릴지언정 전부 그거 꼭두놀이거든요. 그러하니 꼭두놀이가 하나의 묘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묘용인 줄 알고 그대로 잘 굴릴지언정 거기에 쏙 빠져서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돼요. 이러한 대목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불법은 어렵다 이것인데, 어려우나 쉬우나 간에 어떻든지 그대로 안 할 수도 없다 말이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오늘도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건 오늘 끝냅시다. 전부 일일이 이유를 다 들었잖아요. 이러한 까닭이다 저러한 까닭이다. 마침 이렇게 다 해 놨거든요. 하나라도 틀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금시 말한 것.

이 소식에서 법중대왕이 나오신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에 실감이 나.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뚱이 이대로서 여러분이 법중대왕이 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천당 지옥 무너지니 고국산천에 월일색이로다.

천당 지옥이 턱 무너졌어. 무너져놓으니 되돌아서 고국산천에 월일색이다. 달이 환한데 이거는 내 달이다 이거는 니 달이다 이거는 어떻고 어떻고 거기 무슨 분별이 있습디까? 하나의 그림이나 한가지라. 월일색이라. 하나의 그림이나 한가지다 그 말입니다.

서른둘의 위의라서 깨끗하온 행인것을 뉘라알리 여래땅에 바로드는 소식임을 만약오늘 저언덕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어느때를 다시맞아 사람몸을 지으려노

실로 우리는 이 몸 받은 것이, 우리가 현재 사람의 몸 받았으니 후세에도 사람의 몸 받는다. 물론 받을 수도 있죠. 하늘에 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어떻든지 여러분들, 이 사람의 몸 받은 이 기회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도반으로서 서로 얘기하는 건데 참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어떻든지 집에 돌아가시거든 그만 파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 경계에서 놀아나는
> 파순이가 사도
> 보살은 경계를
> 그대로 굴리거나
> 거기에 들어앉지 않는다
>
> 천당 지옥 무너지니
> 고국산천에 월일색이로다
> 어떤 분별도 생기지 않고
> 하나의 그림이 한가지다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실한 행동으로 나무아미타불 달성해야

⑨-2항순중생

'늘상 보현(普賢)의 광대(廣大)한 수행을 닦아 둥글게 가득찬 무상(無上)의 보리심(菩提心」)으로 끝내는 부처를 이룩하리라'

수순은 남의 마음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 또 앞에서 말한 중도실상(中道實相)의 도리에 순합하는 그것이라고 알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환기할 일이 하나있다. 가령 구한말(舊韓末)의 역적배들, 이를테면 이완용 송병준 하는 따위 인물들이 있어 사안(史眼)으로 평한다면 그들은 한 국가의 중신(重臣)으로,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맞추어 좋게 했던가? 일본사람의 마음을 한 없이 좋게 해주었다. 아마 일본 사람에게는 거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반역하고 한 없이 슬프게 만들었지만, 그렇다면 이 역적배들은 일본 사람한테는 수순을 했다. 이것이 수순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을 반역자로 규탄한다. 이를테면 중도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중도의 도리란 커다란 의리, 대의(大義)이기 때문이다. 이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을 그들은 저질렀기 때문이다.

원효대사는 수순을 편이나 중대시하여 그 목적은 결국 중도(中道)의 실상(實相)이라고 하는 대사회 건설의 원리에 맞아야 된다고 하였다. 그것을 우리는 입명단(立命段)이라고 한다. 최후의 입명, 목숨을 어디에다 바칠 것인가 하는 얘기다. 목숨은 어디에다 바치고, 어디에다 세워져야 하는가?

'바라건데 항상 내 죽을 때를 위해 모든 장애를 말끔히 씻어 내리라'

임명종시라고 그냥 해 버린다면 그것은 간단하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늙고, 병들어 자연 생활을 끝마칠 때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목숨이란 게 한낱 들숨 날숨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이 끊어지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70이나 80에 가서 그때야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설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을 바에야 우리는 평소에 이런 각오를 해두어야 한다. 즉 목숨은 늘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럴 때 어디에다 바쳐야 한다고. 그 어디에라는 것이 우리는 중도의 도리, 대의(大義)라는 것이라고. 그 때에는 일체의 얽매이고 거리끼는 일들을 말끔히 씻어야 된다. 완전 소탕해 버리고 깨끗해져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대의를 앞에 두고 큰 용단(勇斷)이 있어야겠다. 크게 뼈대가 있고 마디가 억센 것이고 절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충신이 선죽교(善竹橋)에서 피를 흘렸다. 포은(圃隱) 선생은 충절(忠節)을 가지셨다. 계례의 장래에 커다란 포부를 가졌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충무공(忠武公)이 진충보국(盡忠報國)했다. 그의 충성스런 의절(儀節). 그의 죽음. 이를테면 이런 것이 원아임욕명종시(願我臨欲命終時). 언제든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를 각오한다. 그렇게 행동했다. 포은 선생의 최후에서는 그것이 역력히 보인다. 우리도 늘 일상생활에 그렇게 있는 것이다. 누가 날 받아놓고 죽는 사람은 없다. 법화경(法華經)에 이르듯 우리는 상재영축산(常在靈鷲山)이다. 전쟁하는 사람처럼 항시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터에 있다. 이 생각을, 대의를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의무가 무엇이냐? 의무감, 사명감(使命感)에 눈 떠 있어야 한다. 이런 때, 자기를 붙들어 매는 온갖 장애물을 용단으로써 탁 끊어 팽개치고 깨끗이 잊어버린다. 일대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기 아미타불을 우러러 보고
곧 안태한 극락의 지경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 대 목적(大目的)밖에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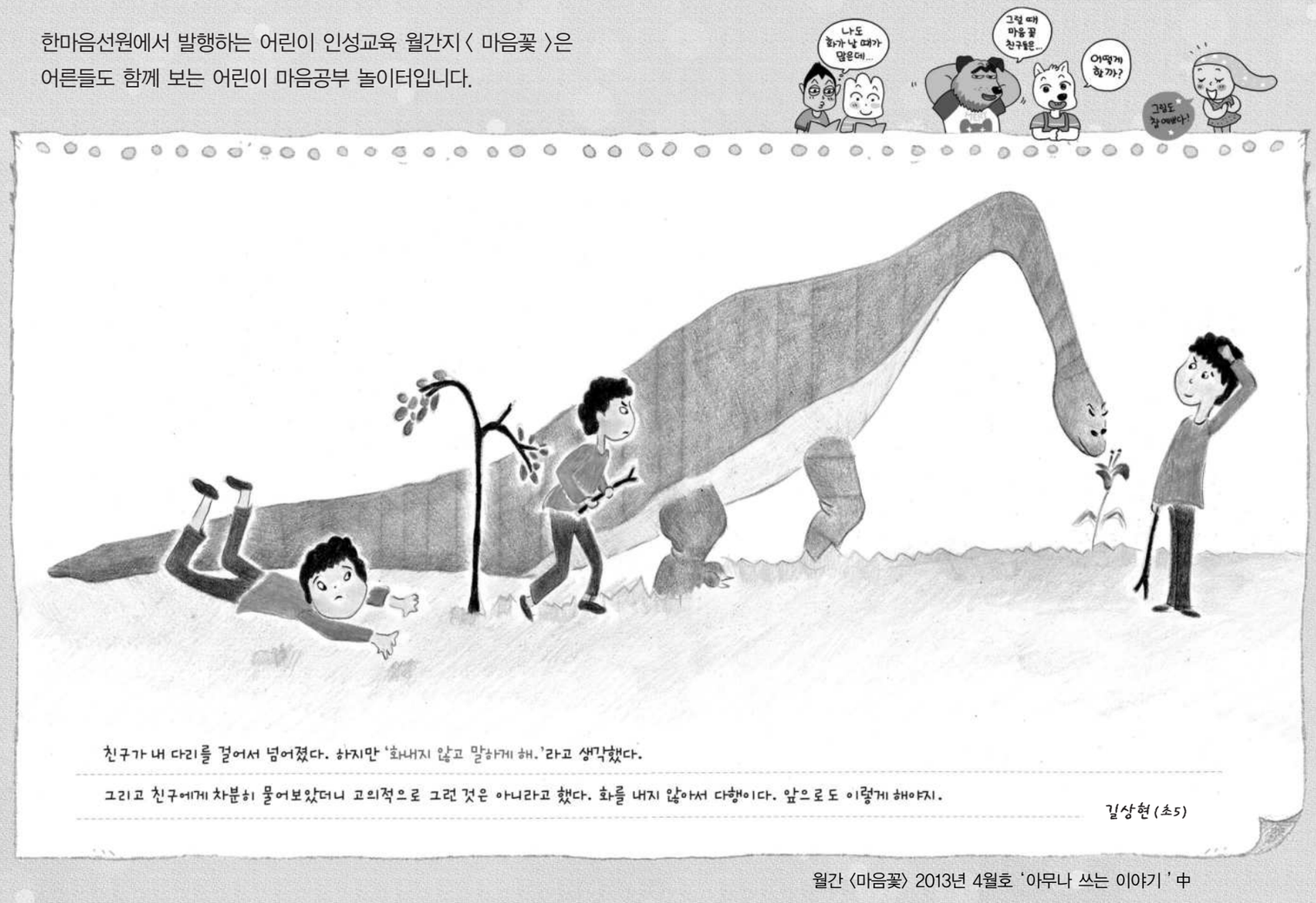
그런데 흔히 절간에서 보는 일인데 불제자(佛弟子)란 사람들이 수순중생(隨順衆生)한다는 뜻이겠지만 남의 마음 맞추느라고 이상스럽게 속화(俗化)하여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헌챙이 만챙이에 다 곤챙이가 되어 무골충 노릇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편이나 딱한 형상이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거룩할 리가 없지 않은가? 수순을 잘못 생각하여 중생과 더불어 속화하고, 그들의 부패에 영합하는 것은 장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구한말의 역적배들을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였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의사(義士)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 여러 남자를 거쳐 온 바람둥이의 창녀(娼女)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선들 정절(貞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대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같은 것이며 설혹 일시적인 사조가 윤리의 도착을 빚어내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설(逆說)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역설이 성행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가 병들었다는 것을 얘기할 따름인 것이다. 인간의 역사적인 행동은 반드시 자타의 비판을 받게 되며, 이렇듯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서 우리는 이를 사회성(社會性)을 띤다는 말로 일컫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입명단(立命段)에 있다. 입명단은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들의 진실한 행동, 그러니까 일편단심(一片丹心)이라 할 수 있다. 일편담심이란 순일무잡(純一無雜)한 것이다. 순전히 하나인 것이고 여기 잡된 것이 섞이어서는 안 된다. 잡년이라든지 또는 잡놈이라든지 하는 잡(雜)이 섞이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동력이라야 우리의 공동 목표인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달성 할 수 있다.

> 목숨은 한낱 들숨 날숨에
>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 목숨이 끊어지는 때가
> 따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 "죽을 때 위해 모든 장애를
> 말끔히 씻어 내리라"
> 아미타불을 우러러 보고
> 곧 안태한 극락의 지경에
> 대목적(大目的)만이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펴어라, 얍!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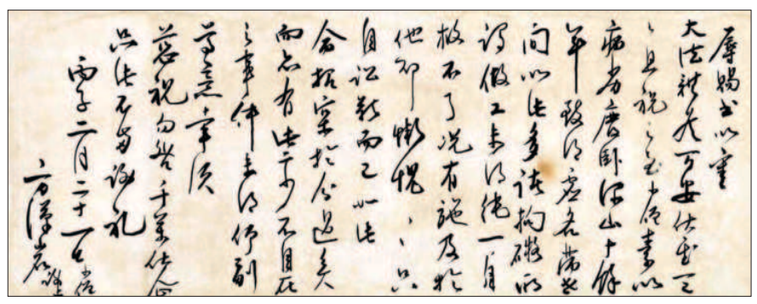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5〉

"자신도 구제 못하는데 어찌 남을…"



한암 선사가 진진응 화상에게 보낸 답서

진진응(陳震應) 화상께 보낸 답서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법체(法體) 만안(萬安)하시다고 하시니 삼가 위안이 됩니다. 빌어 마지않습니다.

소승은 평소 병약(病弱)한 몸으로 깊은 산속(오대산)에 들어와 10여 년 동안 칩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오히려 허명(虛名)을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허명 때문에 구애(拘碍)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부하는 것이 순일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가 없다"는 경우인데, 하물며 어찌 타인을 구제하는 데까지 힘이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저 자책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실로 과분한 일입니다만 또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사소한 일이 있어 스님의 뜻에 우러러 부응하지 못합니다. 부디 자애로운 마음으로 깊이 헤아려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자애롭게 여겨 허물하지 마시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만 줄이옵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병자(1936년) 2월 21일

소승(小僧) 방한암(方寒岩)은 답장을 올립니다.

이 편지는 진진응(陳震應, 1873~1942) 화상에게 보낸 답서로 1936년 2월 21일에 보낸 것이다.

진진응 스님은 화엄사 출신이다. 구례 광의면 출신으로 15세에 화엄사로 입산하여 1928년 7월 55세 때에는 화엄사 주지를 역임했다. 화엄사, 선암사, 쌍계사 등 전라남도와 경남 일대의 대표적인 강백이었다.

또 1910년에는 이회광 스님이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과 합병하려고 하자 만해 한용운, 석전 박한영 스님과 함께 저지했던 스님이기도 하다.

한암선사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진진응 스님은 지리산 쌍계사 강백으로 있었다.

내용은 진진응 스님이 한암선사를 초청한 듯하다. 아마 법문을 해 달라고 청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초청에 부응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순일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어찌 타인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저 자책하고 탄식할 뿐입니다."라는 말로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다.

편지 가운데 한암선사가 "날이 갈수록 허명(虛名)이 세간에 가득하여 이로 인해 구애(拘碍)되는 바가 많다"는 말은 겸양지사(謙讓之辭)인데, 이 당시 한암선사는 만공 스님과 함께 대표적인 선승이었다. 그래서 법문을 요청하는 곳이 많았는데, 널리 아는 바와 같이 치아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타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행사나 법회에 참석하시러 나가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진진응 화상의 청법에 대한 답신
청법에 응하지 못함 양해부탁
행사·법회 참석 한 번도 없어
종정 추대되고도 추대식 참석 거절
진진응화상…한국불교 지킨 대강백

심지어는 1941년 6월 처음으로 조계종이 창종되어 종정에 추대되어도 서울에 가지 않았다. 서울에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종정을 수락하셨다.



진진응 스님은 한암선사 보다는 3살 위였다. 그리고 한암선사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61세 때였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음률에 불법 실어 재소자들 상처 씻겨준 불음 포교 30년

불음가수 김무한

섬세한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덧없이 흐르는게 세월이라
구름처럼 흘러흘러 나는지금 어디메뇨
마음의 님을 찾아
얼키고 설키었던 인연 타래
한올한올 풀다 겨워 돌아보니
머문자리 무상초 홀로피어
…
형상 없는 무딘마음
홀연히 벗어놓고
불암불암 개골가락 절로 흥겨우니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살다 나는 가리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살다 나는 가리

- '무상초' 중

불음(佛音) 가수 김무한씨가 1990년대 처음 만든 노래다. 노래하는 것이 좋았던 그가 불법을 접하고 무상초 등을 부르자 사찰 공연에서 그를 초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랫말에 감화를 받은 스님은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노래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30년간 시간 날 때마다 그는 교도소에서 무료로 노래하게 됐고, 이후 남부교도소 합창단 지도자까지 맡게 됐다.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그는 40명의 재소자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고 있다.

재소자들은 세상의 이치를 몰라 헤매던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다. 무지한만큼 위험한 삶이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조그만 이정표가 되고 싶었다.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노래로 그들을 깨치게 하고 싶었다.

'덧없는 세월의 굴레를 쓰고 무디운 수레바퀴만 굴리고 있네/ 내 모습들 부끄러워… 거울에 비친 내 그림자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등의 노랫말을 따라하며 재소자들은 회한의 감정에 휩싸인다. '부모은중경'을 부를 때는 부모님 생각에 많은 재소자들이 운다.

자연히 그들과 불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본디 마음의 차이에 대해, 화의 덧없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음악에 기대 진지하게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들에겐 더없이 후련했을 터다. 출소를 앞둔 재소자들은 그에게 그간 고마웠다며 손편지를 쥐어주기도 한다. 선생님하고 지내면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게 됐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그가 지금껏 발표한 곡은 30여 곡. 군 법당, 지역 사찰 할 것 없이 부르는 곳 어디든 시간만 되면 기꺼이 찾아간다. 지친 장병들에게 찬불가, 샹송, 팝송 등 장르 구분없이 노래로 기운을 북돋워준다. 장병들의 호응도 열성적이다. 거의 매 주말마다 그는 전국 군법당을 방문한다.

대중음악처럼 듣기 편한 포크송 같은 그의 음악은 단연 불교 음악계에서 독보적이다. 대다수 불교음악이 처지고 느린 곡조로 이루어져 있어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는 바람이 녹아있다.

어릴 때 숱한 죽음 겪으며 방황
생사 탐구하러 나선 만행길
험난한 인간사 옆에서 지켜보며
불법 만나면서 희열·감사함 느껴

30년간 불음 가수·명상음악가로 활동
교도소와 군법당 다니며 무료 공연
재소자들, 덕분에 바르게 살겠다고 감사

그는 태교명상음악가로도 활동했다. 소중한 아기를 맞으며 부모로서 자신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태교음반 '아기와 함께 온 선물'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지혜로운 성인이 될 수도 있는 아기를 위한 음악이기도 했지만 부모로서 태교의 중요성을 알길 바랐다. 호흡법을 가르치며 매번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 불교 이야기가 담기다 보니 교회에서 공연하다 쫓겨난 적도 있었다. 그는 7년 동안 태교전문가가 함께 하는 강연, 음악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해왔다. 1996년 마음으로 가는 길, 1999년 다시 부르는 찬불가를 발표한 후로 앨범제작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것도 태교명상음악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동국대 평생교육원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에서 명상음악을 잠시 선보이기도 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부처님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게 되어 환희가 일어난다는 호평을 받았다.

마음을 울리는 노래에 그를 응원하는 팬클럽 역시 생겨났다. 산사에 갔다 우연히 들은 그의 노래에 감동해 가수를 묻고 물어 겨우 팬까페에 오게 되었다는 이, 크고 작은 도량할 것 없이 불러주는 곳 어디나 가는 덕에 전국 각지서 그를 찾아왔다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마르고 닳도록 CD를 들었다며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감사함을 전한다.

죽음 그리고 또 죽음

그의 노래가 사람들 마음을 울렸던 것은 그 속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깊은 위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노랫말에는 녹록치 않은 그의 삶이 담겨 있다. 그의 인생사를 듣는 이들은 도대체 몇 생을 살았냐고들 한다.

다섯 살이 채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만 귀에 남았다. 매일 집 앞 바다로 나가 하염없이 모래사장을 거닐었다. 파도소리가 그의 마음을 달래줬다. 어느 날 자신과 마찬가지로 바닷가를 걷고 있는 스님이 눈에 띄었다. '저 스님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걷고 있는 것일까'. 어린 아이 마음에 의문이 들었다. 스님과 아이는 그 후로 종종 마주쳤으나 서로 알은척 하지 않고 각자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울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여인을 보았다. 다음날 그 여인은 시체가 되어 누워있었다. 파리한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죽음이 무서웠다.

엄혹한 세상에 그에게 유일하게 의지가 되던 이는 여동생이었다. 자신을 잘 따랐던 여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워줬고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을 버티게 했다. 그러나 그 동생마저 잃었다. 동생의 죽음을 잠결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듣고 끅끅 울음을 삼켰다. 할아버지가 하던 말 중 '윤회'란 말이 와 닿았다. '다시 여동생을 볼 수 있겠구나'. 그게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었다.

이미 열 살이 되기 전, 그는 죽음이라는 화두를 받아들었다.

만행의 시작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화가 났다. 어째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누



전국 어디든 부르면 그는 노래하러 간다. 1999년 만해축전 초청공연.



군법당에서 노래포교 하는 모습.



여주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해 명상을 가르치고 불음을 들려준다.

파손, 도난 걱정 끝!!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 입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복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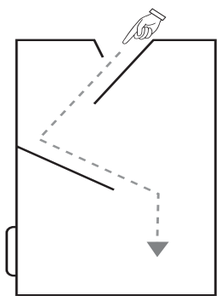




◆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 주문 후 2~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기업은행 010-5414-2304
국민은행 614101-01-048120
농협중앙 221103-52-056910
하나은행 479-910037-98607



기존 불전함의 투입구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

구인걸까. 사람들은 왜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견뎌야 하는 걸까. 인생이 대체 뭐냐고 물으면 어른들은 그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답답했다.

삶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이리저리 떠다녔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길 위에서 만났다. 힘 좀 쓴다는 무리, 자신들과 한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노숙도 했다.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치열한 삶이었다. 라면 하나에 생사를 건 이들을 보며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삶이란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나선 길은 아니었다. 때문에 세상사 악다구니 틈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절대로 자신을 놓아본 적이 없었다. 교복입은 학생들에게 괜히 해코지를 하는 이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말렸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푸는데 힘을 자신의 방편으로 삼는 이들이 가여웠다.

"분명히 타락할 수도 있었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아마 어렴풋이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보니 성품은 타고나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물들지 않는거였구나 싶어요."

온 몸에 화상입은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적도 있었다. 그는 거기서 6개월이나 친구도 아닌 이를 보살폈다. 연고없는 사람이라 차마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다. 24시간 간호하며 그가 낫기를 기다렸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생사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보았다. 살이 썩어들어가는 사람, 자살한 사람, 약물중독으로 실려 온 사람,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 등을 보며 다시 생사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만행을 거듭했지만 정처없는 방황이었다. 사람들이 때로는 무서워 논밭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도 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생병에 걸렸다. 독초를 먹고 죽다 살아나기도 했다. 어떤 군인은 안쓰러운 몰골을 하고 있는 그에게 자기 밥을 내밀었고 낯선 할아버지는 자신을 데려다 새옷을 입히고 밥을 먹였다. 어릴 때 어쩐 이유에선지 길가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백원짜리 지폐를 주며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던 말이 떠올랐다. 조건없이 베푸는 그들 마음씀씀이가 고마웠다.

생사고해에서 만난 불교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던 그에게는 음악이 유일한 위로였다. 어렸을 적 파도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던 기억이 그를 노래하게 만들었다. 지금껏 만난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자신이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 자비심은 아니었다. 무력함이었다. 고통에 대한 연대감이 타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혼자 촛불을 켜놓고 자기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적도 있다.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었다. 그가 혼자서 바다와 이야기 하며 마음을 풀어놓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려 기타를 짚고 업소에서 라이브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날 때마다 절에 갔다.

전국을 방랑하다 경주에 있는 조그만 암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 불교와의 첫 만남이었다. 반야심경을 읽는데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니.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던 것에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체 누군가 싶었다. 그때부터 경전을 파기 시작했다. 대장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몇 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일요일이면 스님들 법문을 들으러 사찰을 돌아다녔다. 잠도 오지 않았다. 탑돌이를 하루종일하며 생사궁극에 대해 탐구했다. 오랜시간 가졌던 의문이었기에 그는 간절하게 답을 구했다.

"여러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두 번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슬픔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마주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켜봐야 했던 고통받던 이들의 모습은 제게 그 답을 구하게끔 했죠. 다인연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수 김무한은 …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불교 명상가수다. 1986년부터 전국의 군법당과 교도소를 돌며 불음을 전하고 있다. 2006년 부터는 7년간 80회 이상 임산모를 대상으로 태교 명상 음악회도 열었다. 1996년 '마음으로 가는 길' 음반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1999년에는 '다시 부르는 찬불가' 를 발매했으며 태교 명상음반 '아기와 함께 온 선물' '김무한의 3분 명상' 등도 제작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그는 불교와의 만남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그는 끔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을 알고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감사함 역시 가지게 됐다.

"일체가 부처님이자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우리가 만물전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소금은 바다에서 만들어졌지만 작은 소금이 사실은 자신이 바다의 일부였음을 알게 된다면 큰 희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세상의 소금들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체고 우주라는 것을요."

요즘 그는 15년 만에 새 앨범을 준비중이다. 음반 제목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심우도)' 다. '화엄의 바다' '꽃의 바다' '마음이란 침묵의 노래' 등이 실렸다. 성철스님의 글을 기반으로 만든 곡도 있다. '화' 는 남부교도소 재소자 합창단과 함께 부를 생각이다. 음원과 악보는 전국 교도소에 보내질 예정이다.

"생사근본문제가 해결됐으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인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지 못하기에 윤회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걷다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고 했다. 누구나 좋은 것만 보려하는 세상에서 그는 누구도 보려하지 않는 추하고 더럽고 거친 삶의 민낯을 직시했다. 만행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냐고 물었다. 그는 다시 바다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물음은 바다에서 시작됐고 바다에서 답을 얻었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준 빗방울들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세상위로 떨어지는 수많은 빗방울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와 그들은 이미 바다였습니다."

글=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전법일기

"다문화 신부들에게 잘해주세요"

"내 마누라!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이주여성 쉼터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들이 뭔데 내 마누라, 내 새끼 데려가려는데 막아!"라며 들어오려는 사나이와 실강이가 벌어졌다. 욕설과 고함, 폭력이 난무하면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긴급 피신한 여성은 애를 안 주겠다고 울고, 남편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고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정도 양보안하면 누가 집에 들어가겠냐고 되물으면 남편들의 기가 꺽인다.

아내의 역할을 도와주는 양성평등 문화에서 자란 여성과 보수적인 남성위주의 삶 속에서 자란 남편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적지 않아 이 문제가 극복되면 원만한 합의하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주 여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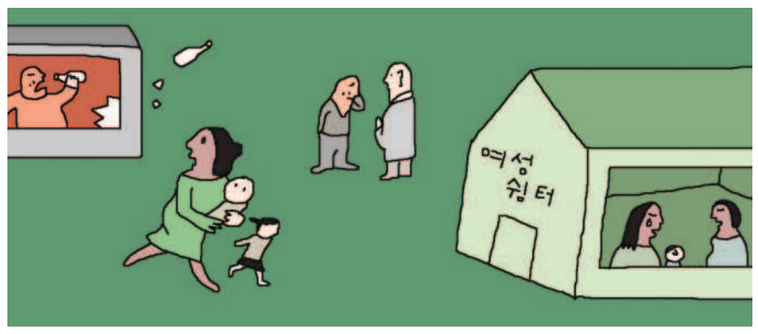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정답은 서로가 공통분모를 찾아 조금씩 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쉽사리 해결 되지 않는다. 술을 먹은 다음날이면 순한 양이 되는 남자들이 있다. 그렇다고 밤새 아내를 괴롭힌 상처와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성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술을 자주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배 좀 그만 피면 좋겠어요." "밤늦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가정에서 이런 조건들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일에 밖으로 나돌아 다니면 가출한다는 걱정에 몇 년씩 집안에 가두는 경우도 있다. 언젠가는 한국 땅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면 좋을 일을 나두고 옴짝달싹 못하게 말리면 그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먼 곳에서 자신을 믿고 와준 용기 있는 신부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려는 마음, 그 마음이면 꼬이고 헝클어진 실타래도 천천히 풀어갈 수 있다.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간이었는데 여기서는 물건이 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선족, 95년 이후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국제결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5년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등 점차 그 나라가 다변화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여성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는 그 여성에게 큰 돈을 들였다고만 여긴다. 하지만 정작 그 여성이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십분의 일이 되지 않는다. 중간에서 알선을 하는 사람들이 비용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이주 여성들의 선택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을 선택한 것이다. 불행해지기 위해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그들은 아버지나 형제로부터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는 문화가 아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더 높다. 이런 문화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남존여비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부를 뿐이다.

특히 조금 굼뜨기만 해도 멍청이라고 하거나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 빨리 너희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농담은 이 여성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신랑과 평균 12세 이상의 나이 차이, 언어소통 부재, 부부갈등, 시부모와의 갈등은 이주여성들이 넘고 넘어야 할 현실의 산이다. 고맙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함께 노력하며 더 즐겁게 살아보자는 말… 남편들이여, 이 말부터 연습하고 표현해 보자.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 경전사경 ※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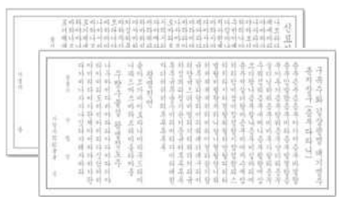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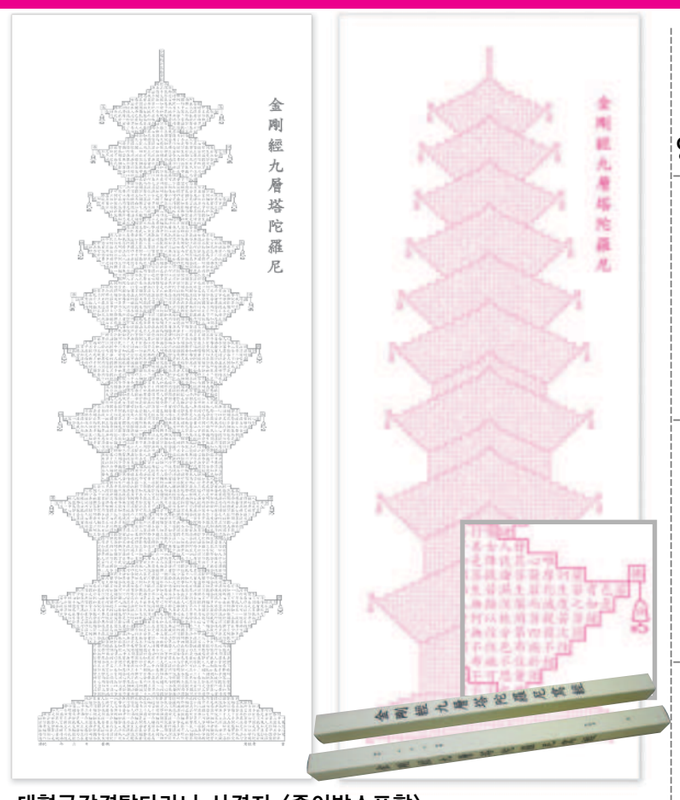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촘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대형 금강경 탑다라니 사경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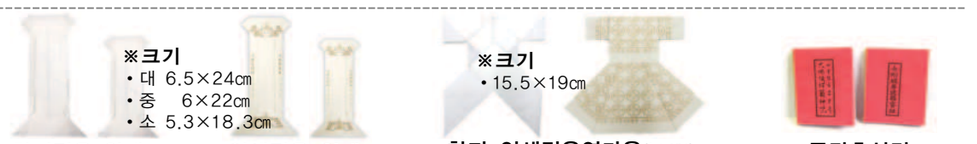
대형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 〈종이박스포함〉
정 가 5,000원 할인가 @4,000원(50장 이상) • 색상 : 먹색/적색 中택1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68㎝×195㎝ • 전통재래한지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B형-여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D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크기 • 15.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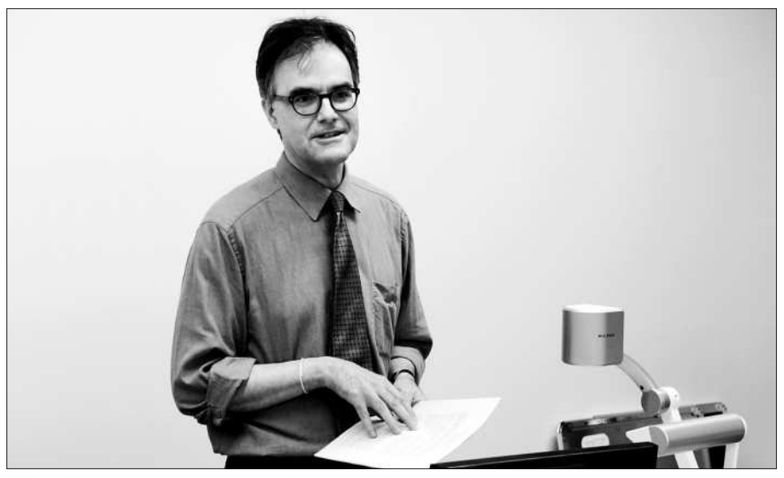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英 불교관심… '믿음' 보단 '실용성' 때문"

게티 교수, 英 친불교 경향 주목…
"불교 소비상품으로 전락할 수도"


루펫 게틴(Rupet Gethin) 교수. 브리스톨 대학 산하 '불교학센터(Center for Buddhist Studies)'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서구 사회에 비친 불교'를 주제로 다양한 저술을 펴내고 있다.

"영국에서 불교는 종교에 앞서 '명상'과 '치유'로 정의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라는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영국의 종교 성향은 단지 '믿음'을 따르기보다는 '삶의 실용성'에 더 우의를 두는 경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브리스톨 대학 산하 '불교학센터(Center for Buddhist Studies)'를 운영하고 있는 루펫 게틴(Rupet Gethin) 교수가 최근 〈HAARETZ〉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주목된다. 또한 유대인들이 발간하는 글로벌 영자 매체 〈HAARETZ〉 지에서 기획 · 진행한 인터뷰라는 점에서도 이채롭다.

이번 인터뷰에서 게티 교수는 영국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통 믿음의 위기'를 꼽았다. 20세기를 살아가며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양의 종교와 철학에서 정의한 절대 가치에 대한 '의심에 찬 질문'을 던져야 했는데, 그때 서양에 등장한 종교가 바로 불교였다.

"서양의 절대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사유의 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게티 교수는 "동양의 정신, 특히 불교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것은, 당시 회의를 품었던 영국인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라며 "지금도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인들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AARETZ〉 지는 "25세부터 45세까지의 청장년 영국인들이 불교나 명상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 참여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라고 주목하고 게티 교수의 말을 인용, "업보, 중생, 윤회 등의 불교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는 교리에 앞서 수행을 통해 깨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절대 가치에 대한 질문은 '내면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믿음을 강요하는 '교리'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행'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HAARETZ〉 지는 "절대 가치에 대한 회의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느끼는 분노, 두려움, 고민 등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비롯됐다"는 게티 교수의 말을 인용, "영국의 기존 종교는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기독교 가치에 의지해 해결하려고 한 반면, 불교는 '대응에 앞서 먼저 바라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영국의 청장년들이 이러한 차이점에도 주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게티 교수는 "불교가 영국에서 '종교적 완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불교는 아직까지 영국에서 명상이나 치유라는 '소비 상품'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 병원에서는 환자 치유를 위해 명상을 접목하고 있고, 근로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명상을 접목하고 있다. 개개인 역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명상에 접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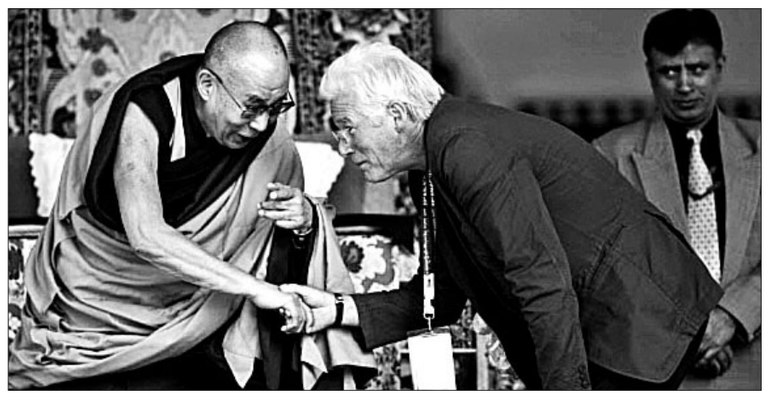
"'수행'보다는 '복용'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게티 교수는 "감정을 조절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불교는 아니다"라며 "혹자들은 '그것도 불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 영국에 건너온 불교가 교리와 수행에 주목했다면 지금의 불교는 실용과 효율에 더 주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부처님께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고, 이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전제한 게티 교수는 "그러나 고에서 벗어난다는 게 단지 '일상 극복'을 뜻하지 않는다"며 "일상 극복은 불교의 단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영국의 불교는 종교성보다는 실용성에 가깝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리차드 기어, 달라이 라마 생일 법회 초청

"불교 수행은 내게 삶의 모든 것"


리차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의 79번째 생일을 기념해 열린 법회에 참석했다.

리차드 기어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미국 연예매체 스플래쉬닷컴은 7월 6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배우 리차드 기어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차드 기어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레 교외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이날 법회는 달라이 라마의 79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리처드 기어를 비롯한 수만 명의 신자와 군중이 참석했다.

리처드 기어는 법회에 모인 외국인 수천 명을 대표해 연단에서 달라이 라마에게 인사했다.

30년 이상 수행해 온 불교신자인 리차드 기어는 스스로 "아직은 초심자"라고 말하면서, 불교수행에 대해 "연기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불교 수행은 내게 삶의 모든 것이 열리고, 미묘한 것을 느끼게 하고,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달라이 라마는 이슬람 수니파 반군의 시아파 유혈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는 수니파 반군이 북부 5개 주 일대와 수도 바그다드 서부를 점령한 이라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수니파가 같은 무슬림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개탄했다. 또 달라이 라마는 불교국인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소수 종교파인 무슬림을 박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자카르타 글로독 불교계, 지역 화합 이끈다

다르마 자야 사원 필두로 이슬람교 등 타 종교 교류 활발
사원 대표 축제 '록 퉁 의식'에 타종교인 지역주민 자격으로 대거 참여


중국불교계 사원이 다르마 자야(Dharma Jaya)가 매년 열고 있는 록 퉁(Lok Tung) 축제에는 불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등의 지역 주민 대부분 노란색 옷을 입고 참여, 축제를 즐기고 있다.

자카르타의 차이나타운 글로독(Glodok) 지역의 불교가 종교를 넘어서 지역 화합을 이끌고 있다고 〈Jakarta Post〉 지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독 지역의 중국불교계 사원이 다르마 자야(Dharma Jaya)가 매년 열고 있는 록 퉁(Lok Tung) 축제에는 불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등의 지역 주민 대부분 노란색 옷을 입고 참여, 축제를 즐기고 있다.

〈Jakarta Post〉 지는 "260년 전 중국계 자카르타인에 의해 세워진 다르마 자야 사원의 록 퉁 축제는 방생(Fang Sheng) 법회와 무대 공연 등으로 이틀간 열린다"며 "첫째 날 마련되는 무대 공연에는 10여 개 팀이 참여하는데 주로 합창과 군무 등을 선보이고, 둘째 날 봉행되는 방생 법회는 수천여 마리의 조류를 날려보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록 퉁 축제의 백미"고 전했다.

기독교도이지만 사원을 찾았다는 씨씨(Cici · 57) 씨는 "두 아들이 사원의 재적 신도"라고 소개하고, "처음에는 아들들의 권유에 못이기는 척 사원을 찾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생명을 살린다는 뜻의 방생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록 퉁 축제의 공식 복장이 노란색 상의를 보여주었다.

록 퉁 축제 첫날 이슬람교도로서 공연 무대에 오른 아미르(Amir · 35) 씨는 "글로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1979년부터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종교나 인종에 선을 긋지 않고 있으며, 사원에서 마련한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골독 지역에서 불교계가 지역 화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제한 〈Jakarta Post〉 지는 압둘 파타(Abdul Fatah · 55) 씨의 말을 인용, "다르마 자야의 스님과 중국계 불자들이 기금을 조성해 무슬림 고아를 돕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사원 축제가 이제는 지역 축제가 되었다"고 의미를 더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ephen Axford/Catherine Marciniak/HotSpot Media

"붉은 빛과 자주 빛 조화로 더욱 화려한 축제"

인도 타왕(Tawang)에서 티베트불교 특유의 화려한 춤과 연극 등을 선보이는 토르가(Trogya) 축제가 3일간 열렸다고 〈Mail online〉 지가 보도했다.

타왕은 인도의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 속한 곳으로 해발고도 3,500m 높이에 위치하며 유서 깊은 티베트 불교문화와 소수민족의 전통이 어우러진 곳이다.

"이번에 열린 토르가 축제는 '악령을 추방하고 행복을 가져온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한 〈Mail onling〉 지는 "타왕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타왕 사원(Tawang Monastery)의 안뜰에서 개최된 토르가 축제는 티베트불교 특유의 화려함으로 고즈넉한 히말라야 산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축제를 촬영하기 위해 3일간 타왕 민가에 머물렀던 호주의 사진작가 스테판 엑스포드(Stephen Axford)와 캐서린 메키넥(Catherine Marciniak) 씨는 "인도, 부탄, 티베트 3개국의 문화가 만나 곳으로 인도 동북부만 한 곳이 없다"며 "토르가 축제의 화려함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면에서 세 나라의 문화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깊은 역사성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Mail onling〉 지는 "올해 토르가 축제에는 타왕 사원의 스님 100여 명이 직접 진행을 도왔다"며 "붉은 승복과 자주빛 문파족 전통 의상의 조화가 올해 타왕 축제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추천 불서(12)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그대 안의 신령스런 불씨를
되살려 활활 타오르게 하라!

불씨

지문스님 지음 | 양장 | A5 | 318쪽 | 13,000원

"허공은 가장자리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중심이자 가장자리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도 끝이 없고 미래로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이 바로 맨 처음이자 맨 마지막입니다."(본문 중에서)
1970년 부산 범어사로 출가, 광덕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은 후 범어사, 통도사, 극락암, 해인사 등에서 수선안거 한 지문 스님의 법문집. 저자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완벽하다면서, 우리의 참된 성품도 신령스러운 빛으로 드러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가 이 빛을 따라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령스러운 빛(불성)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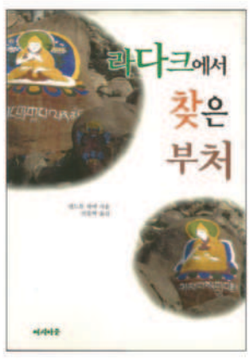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스님 이야기

저자 지묵 | 448쪽 | A5 | 148*210 | 12,000원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과 불자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15명의 스님들에 의해 쓰여진 85명 스님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솔한 수행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잘 알려지거나 높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보다는 숨어있는 선지식과 수행자 위주로 구성을 하였다. 책에는 송광사 지묵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한국의 부루나존자'로 불리는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큰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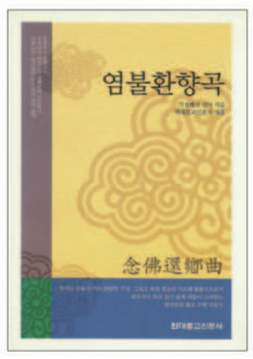


英 시인이 티베트 스승을 통해
영적으로 눈뜬 여정을 그린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연호택 옮김 | 신국판 | 377쪽 | 12,000원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h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 '라다크로 가기까지', '탐험', '링포체에게로' 순으로 구성된 이 책은 생태공동체의 한 원형공간으로 제기되고 있는 라다크 마을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전통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비록 책 속이지만 링포체를 만나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의 말을 접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을 옮겼다고 한다. 이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에고(Ego)를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 해설

염불환향곡
(해설집/독송집)

기성쾌선 지음 | A5 | 197쪽 | 7,000원(독송집 5,000원)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을 해설한 책. 18세기의 선지식인 '기성 쾌선' 스님이 지은 비교적 짧은 글로 부드러운 가요 형식을 취해서 알기 쉽게 불교를 소개한 글이다. 제목에서 보듯이 그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여기서 고향이란 우리 마음의 본원을 이야기한 것이다. 중생들이 우주적 마음의 본원에서 빗나가, 고향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본원을 회복하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염불환향곡은 조선 영조43년에 경남 밀양군 화악산 운주암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 환향곡은 장엄염불이면서 별곡처럼, 가요체로 엮어졌는데 가요체의 염불곡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석문의범〉등에 나오는 장엄염불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 · 물 ·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흥교스님 지음 | A5 | 374쪽 | 15,000원

"이 빛깔 저 소리에 끄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려 한다면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본문 중에서)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불성의 본디 모습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산속의 절에서 들을 수 있는 풍경소리처럼 새로움을 일깨우는 흥교 스님(대각회 이사장)의 법문을 담고 있다. 저자는 33조사의 깨달음의 노래와 십우도 해설을 통해 마음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해 본 불교의 가르침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된 '달(진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방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추구한다.



대자유를 찾아 세속을 떠난
출가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빛 물든 사람들

정과스님 지음 | 302쪽 | 148*210 | 10,000원

봉암사, 해인사, 칠불사, 송광사,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화두수행을 한 정과 스님이 출가 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책. 자연 속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맡기고 진정 자유로운 삶을 찾아 세속을 떠난 스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기슭 빈집', '무아에 대한 오해와 혼란', '참회와 발원', '차라리 흘러가는 구름에게'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편안함과 한가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억겁의 윤회를 끊고 영원한 진리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수행자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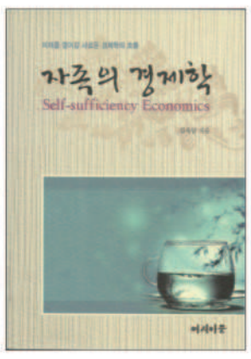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
담긴 수필 · 판화로 힐링을!

작대기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 줄)

장용철 지음/정병례 판화 | 161쪽 | 148*210 | 9,000원

오가는 지하철 구내에서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의 편린을 만나게 해주는 '풍경소리'의 작가 시인 장용철의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긴 예화들을 담은 책. 여기에 전각작가 고암 정병례의 판화를 함께 엮었다. 이 책은 지하철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의 게시판에 실렸던 글과 수상집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에 수록되었던 글,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저자의 글이 담겨 있다.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지고 가기도 벅찬 등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받쳐주는 작대기 역할을 해주는 글을 모아 엮었다.



탐욕 · 집착 벗어난 새로운
불교경제학의 패러다임 제시

자족의 경제학

김옥암 지음 | 229쪽 | 128*188 | 11,000원

자유시장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며 순환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물욕을 좇는 만큼 그 희비쌍곡선은 클 수밖에 없고 그 어디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경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파급력 역시 만만치 않다. 그 좋은 예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한 지난 2008년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이다. 그 일을 계기로 세계의 지성들은 다시 한번 따뜻한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족의 경제학'은 그 따뜻한 경제론 중에서도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탐욕의 경제사상을 제어하고 소욕지족의 경제사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대 경제학과 김옥암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소욕지족으로 만족하는 불교경제학의 이론적 모색과 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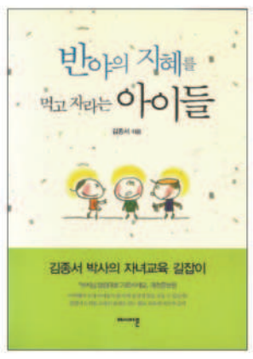


정일선사의 인가를 받은
능허거사의 화두참선 구도기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지음 | A5 | 238쪽 | 12,000원

정일 선사(선학원 이사장 역임)의 가르침과 그의 인가를 받은 능허 거사의 간화선 수행과 화두 타파 이야기. 저자는 한때 세속의 부와 영예를 누리고 살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유명 기도처를 오가며 불교의 깨달음을 갈구하던 중 1998년 서울 보광사 조실이었던 정일 큰스님을 만나 용맹정진하여 4년만에 부처님 법의 이치와 인과의 도리를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여 1년만에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두 공안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의 관문을 3년만에 타파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해에 바라밀선원을 세운 저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어찌해야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김종서 지음 | 231쪽 | 148*210 | 9,000원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 박사(2013 대한민국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자). 그는 개인주의와 가족이기주의, 물질 위주의 사고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비방으로 '생활 속의 불교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불법의 도리를 풋대로 삼은 자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담고 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기 충족 예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 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

간송미술관 대표작 공개 '눈길'

'간송문화' 2부: '보화각' … 9월 28일까지

간송 미술문화재단, 간송 C&D가 주최하는 '간송문화' 2부: '보화각'이 9월 28일까지 동대문 DDP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불상, 회화류, 자기류, 서예, 전적 등 총 114점의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간송미술관의 대표작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명품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제목 보화각은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라는 뜻으로 193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 보화각의 이름에서 따왔다. 보화각은 1971년 간송미술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1부에서는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국보 제 72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 285호) 금동여래입상(제 284호) 금동삼존불감(국보 제 73호) 등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금동삼존불감은 대웅전 안에 석가삼존상을 모신 형태의 소형 원불이다. 원불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소원을 비는 불상으로 이를 모시고 있는 소형 대웅전인 불감은 건물 높이가 17.8센티미터이다. 이 작품으로 당시 대웅전의 건축 양식을 짐작할 수 있다.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癸未銘金銅三尊佛立像)은 6세기 초반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호신불로 유행하던 금동삼존불상이다. 하나의 광배 안에 주불과 협시보살이 함께 표현된, 이른바 일광삼존(一光三尊) 양식의 전형을 보인다. 이 작품은 6세기 중반 즈음 삼국시대 불상 양식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현재 국보 72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은 당나라

금동삼존불감 등 114점 공개
동대문 DDP 디자인 박물관서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불입상으로 겉옷을 마치 보살의 천의(天衣)모양으로 접어 두 어깨에 걸치고, 다 펴 입지 않아 치마의 아래 위가 노출되니 마치 치마만 입고 서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는 당나라 초기 양식이 신라화한 독특한 표현으로 보물 28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 겸재 정선의 '압구정', 김득신의 '야묘도추' 등의 명품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1644-1328

정혜숙 기자



'간송문화' 2부: '보화각'전이 9월 28일까지 동대문 DDP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금동삼존불감(국보 제 73호)

신심으로 그려낸 '불화'에 미래 담다

10회 전시 맞은 통도사 불화반
7월 27일까지 박물관기획전시실서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회장 신윤희, 이하 통도사 불화반)이 10번째 전시를 열었다. 1999년 개원해 불화장 故 석정 스님의 유지를 받든 통도사 불화반은 현재까지 300여 수강생을 배출해 왔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65명을 배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한국 불화의 전통과 현재를 이어오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16년째 불화반을 이끌고 있는 조해종 강사(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강사)는 이런 성과는 전통성을 고집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요즘 합성수지 재질의 포리졸 재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당장은 사용이 편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물감이 손에 묻어 나와요. 반면 아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감이 뭉쳐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성향이 있죠. 석정 스님께서는 전통 방식을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꼭 아교를 사용합니다. 아교를 사용하면 그림을 배우는데도 두 배의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아교를 사용하는 불화가는 5%정도다. 이렇게 전통을 고집하는 방식이 소문나다보니 전문가들도 통도사 불화반을 찾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많은 불화전문가를 배출한 곳이 통도사 불화반이기도 하다.

스님은 항상 불모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는데 수강생들에게 좋은 불교미술품을 꼭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불화반 전시 모습



통도사 불화반은 1999년 개원해 불화장 故 석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전통방식의 작업을 고수해 가고 있다. 사진은 조해종 강사(오른쪽 두번째)와 불화반 회원들의 수업 장면.

故 석정 스님의 유지 받들어
전통방식 고수하며 작품 임해
이수자 65명 배출 전문가 양성도

친견하게 했고 늘 신심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 문화재 중에는 석굴암처럼 미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있기도 하지만 거조암 오백나한, 운주사 천불천탑 등은 형식미는 떨어질지언정 신심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과 경외감을 일으키게 한다. 석정 스님은 이런 예를 들어 전문성보다는 신심으로 불화를 대할 것을 강조했다.

4년째 불화를 배우고 있다는 신윤희 회장은 "그림은 신앙으로 그린다는 스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작품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는 스님께서 남기신 용왕탱 초를 완성, 전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통도사 불화반 이수자들로 구성된 돌샘 모임도 형성이 됐다. 구민정 돌샘 회장은 만 12년째 불화반을 다니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화를 그리고 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불화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니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수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절에 작품을 보시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 내놓은 신중탱은 경주 양남면 죽림정사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일 전시 오프닝에는 3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등 10회를 맞은 통도사 불화반 전시는 많은 이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박경희의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38명 수강생의 후불탱화, 탄생도, 백의관음, 42수 관음 지장보살, 인로왕보살, 신중탱, 팔금강, 동진보살, 칠성탱, 독성, 산신, 용왕, 비천, 쌍용, 6곡 연단 등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전시는 7월 27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또한 청원 스님의 '석가모니불', 불화강사 조해종의 '영산회상도' 오기웅의 '수월관음도' 이승규의 '지장탱화 석가모니불' 권영수의 '석가모니불(홍탱)' 문경옥의 석가 삼존도가 전시된다. 불화반 수업은 매주 수요일 연구반 · 목요일 기초반이 진행된다. (055)384-0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중앙신도회 '만남 넋전 아리랑' 후원

8월 2~4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문화공연의 일환으로, '만남, 넋전 아리랑' 공연을 선정하고 후원한다.

8월2일~4일 조계종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3일간 개최되는 이 공연은 심우성(한국 민속극 연구소)과 승무 예능보유자 이애주(서울대 명예교수), 극단 서낭당 최일순 대표가 등이 참여한다.

중앙신도회는 "지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원혼을 달래고 일제 강점 이래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또 가슴 쓰리게 쓰러진 넋들을 기리는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넋전은 사람의 넋을 모양내어 오린 종이로, 불교의 제사의식에서 유래되어 민간 제사의식에까지 널리 퍼졌던 전통문화 중 하나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심우성 선생이 2000년대 이후 넋춤의 전통문화 복원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연은 8월2일~3일 오후 7시, 8월4일 오후 8시 총 3회이며 전석 20000원이다. (010)3204-3095

정혜숙 기자

세월호 추모다큐 '거위의 꿈' 제작

종교계 · 시민단체 모금 운동 전개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다큐영화 '거위의 꿈'을 제작한다. 모금운동으로 제작될 이 영화는 공동대표에 법안 스님(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성유보 희망래일 이사장 등이 참여하며, 운영위원장은 서울대 김세균 명예교수가 맡았다. 고문으로는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과 천주교 강우일 주교가 참여한다.

감독은 '21세기의 묵시록(KBS)' '광주항쟁 그후 20년(KBS)' '한국 호랑이 그 흔적을 찾아서(KBS)' 등을 제작한 임종태 씨가 맡았다. 임 감독은 "유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이른바 홧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자식들이 살아 있는데도 구하지 못하고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한이 가슴에 맺힌 듯했다. 다양한 자료조사를 통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꼭 밝혀내고자 한다. 가족들과 추진위원단을 통해 이미 상당한 동영상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20분 분량으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제작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옥내외 집회에서 무료 상영할 수 있는 30분 분량의 시범 버전을 제작할 계획이다. 모금 목표액은 4억원 이상으로 펀드 모금과 기부 모금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안 스님은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의 결과물이며 우리 사회의 비겁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이 국민들의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영화제작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이 시대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 어린 영혼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010)7757-5907

정혜숙 기자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다큐영화 '거위의 꿈'이 제작된다. 이미지는 애니메이션으로 미리 제작된 엔딩 장면의 한 컷.

마하연 투 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코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문화

‘불법’ 창작의 방향성 제시 “춤 동작은 행선과도 같아”

마묵무용단 윤민석 감독

“내가 누구인가를 늘 마음속으로 물었죠. 이렇게 내면을 깊이 있게 관찰하다 보면 제 스스로를 성찰하게 돼요. 이런 제가 부처님 말씀을 만나면서 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스님들의 일화나 법문을 찾아 읽다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질 정도로 감동을 받아요. 이제 불교는 제 창작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묵무용단 윤민석 감독(47)은 ‘하얀 코끼리’ ‘바르도’ ‘아난아 아난아’ 등을 통해 선(禪)적 정서를 작품으로 승화시켜왔다. 불교를 창작의 모태로 삼았다는 그는 요즘 〈관무량수경〉을 춤으로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마음으로 춤을 춘다는 의미를 가진 마묵무용단을 이끌며 수행에 수행을 거듭하는 윤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재만 남성무용단과 국립국악원 무용단 등에서 활동하던 윤 감독은 어느날 홀연히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전통무를 창작으로 풀겠다는 의지에서였다.

“한국 무용을 전공했는데 그때 제일 좋아했던 춤이 승무에요. 하지만 전통춤을 창작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서 현대무용을 전공했어요. 힘든 유학시절을 보내면서 만난 것이 바로 숭산 스님의 책이에요. 프랑스 문화원에서 숭산 스님의 〈부처님께 재를 털면〉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큰 위안이 됐죠. 그후로 5년 정도는 매일 108배와 좌선을 할만큼 스님의 책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독립무용가로 활동하게 된 그는 다큐 ‘차마고도’를 보고 받은 감동을 ‘하얀코끼리’로 표현해 작품을 올렸고 매우 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승무 무용가 이철진(성균속그장 대표) 씨 역시 그의 작품에서 선의 정신을 보았고 〈능엄경〉을 작품으로 만들어볼 것을 권했다.



마묵무용단 윤민석 감독은 禪적 정서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목된다.

프랑스 유학시절 숭산 스님
책 읽고 5년간 좌선과 명상
禪을 창작무로 표현 ‘주목’
〈관무량수경〉 공연 계획도

하지만 능엄경은 너무 어려웠고 이를 창작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허공에 걸려 있는 현재 그 순간을 무용으로 표현한 ‘바르도’다. 이 작품을 통해 창작적 기반을 쌓은 그는 지난해 11월 〈능엄경〉을 ‘아난아 아난아’로 제작해 발표했다. 수행의 과정을 춤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시공을 초월한 판타지로 깊은 사유의 탐구를 통해 경전을 읽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다. 이를 위해 대원사에서 단원들과 함께 매달 3천배 기도를 올릴 만큼 그는 정성스럽게 작품을 준비했다고.

“입재에서 회향까지 주지 석문 스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어요.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20개의 불상을 소품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죠. 그런데 연습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아 결국 불상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스님께서 정말 신경 써주셨는데 많이 미안했습니다. 3천배를 하는 동안은 몸을 알아차리게 됐고 육체가 업을 쌓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서 마음의 갈등이 멈추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죠. 이 경험은 제 작품을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난아 아난아’는 그에게 아직도 미완성이다. “부처님 말씀을 무용으로 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심오한 경전을 하나의 작품으로 단번에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난아 아난아는 계속 수정을 해 좋은 기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는 별의별춤 페스티벌 듀엣작품 ‘잡감’(7월 18일~20일)을 준비중에 있으며, 7월 23일부터는 경남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무용 교육도 계획중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무량수경〉의 마지막 관법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연꽃을 관하고 그 안에 나를 찾는 과정을 작품화 할 생각입니다. 저의 감동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춤 동작은 세포 하나 하나의 움직임을 스스로 느끼고 관찰하는 행선과도 같죠. 이 선의 느낌을 춤으로 잘 표현해 관객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00년도 ‘칼리 그라피티’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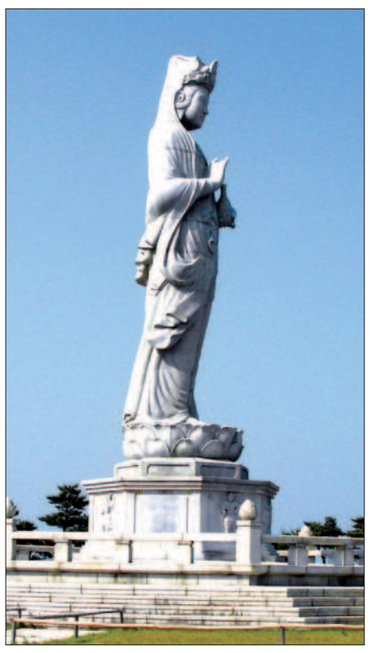
마묵무용단의 ‘아난아 아난아’. 〈능엄경〉을 춤으로 표현해 화제가 됐다.

관음의 원통이치 일고자 한다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㉘ 낙산사 ㊦





낙산사는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대표적인 도량이며 해수관음상으로도 유명하다.

도가 쇄하거나 오래가거나
상관할 일 아니거니
인간사 근심 걱정 무엇 하러 신경 쓰랴.
천하 경영하려던 대장부의 큰 뜻을
애오라지 산과 바다에 노는 데 부치노라.
초여름 청명하고 화창한 사월에
배꽃이 흐드러진 낙산사 누각일레.
푸른 바다 만 리에 아스라한데
해 돋자 채색 구름 걷히어 가네.

일체의 세상일을 다 떨쳐버리고 오른 유람길에서 시인은 스스로 자유로운 영혼임을 강조하며 시를 열고 있다. 때는 초여름 청명하고 화창한 날,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의 낙산사 누각, 이 설명만으로도 이미 세간의 모든 근심걱정은 내려놓은 듯 하다. 낙산사 지역은 아주 맛이 좋은 배나무가 재배되어 진상품으로 쓰였는데 일명 ‘낙산배’다. 지금도 낙산사 홍예문 쪽으로 들어가면 낙산배의 시조목을 만날 수 있다. 이 배나무는 2004년 화재에서도 살아남아 더욱 대견스러운 볼거리가 됐다.

아무튼 윤증은 낙산사 누각에서 일출을 제대로 보았다. 해가 돋아 오르고 채색구름이 걷히는 그 풍경 속에서 선비의 호연지기가 저절로 길러졌을 것이다.

향로산작족운반(香 ↑散作族雲盤)
채훈장명적취간(彩暈長明積翠間)
욕문락가선사숙(欲問洛迦禪寺宿)
행인요지오봉산(行人遙指五峯山)

향로봉 흩어져서 족운반이 지어지니
푸른 빛 쌓인 사이 채색 우리 노상 밝네.
낙산사를 물어라 하룻밤 묵자 하니
길 가는 사람 멀리 오봉산을 가리키네.

허균(許筠 1569~1618)의 시다. 제목은 ‘가는 길에 낙산을 바라보다’ 이고 〈성소부부고(惺所覆ㅊ 藁)〉 제1권 ‘풍악기행(楓嶽紀行)’ 조에 실려 있다.

나그네가 낙산 근처에 당도했을 때 날이 저물었다. 당연히 이름난 낙산사에서 하룻밤 자고자 절이 어디에 있는가 묻는다. 그러자 길 가는 사람은 낙산사가 있는 오봉산을 가리킨다. 어떻게 보면 싱겁고 담담하기 그지없는 정황의 묘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시 한 수에도 시대의 변혁을 꿈꾸었던 허균의 정신은 들어 있다. 허균에게 해 저문 길은 모순투성이 현실이고 낙산사는 백성이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개혁된 세상이 아니었을까?

이근원통 수행

관음신앙의 중심 도량인 낙산사를 주제로 시를 지으려면 관음신앙과 낙산사의 역사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할 뿐 시적인 의미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시를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낙산사의 역사와 관음신앙에 관련된 상식이 없으면 시구의 깊은 뜻을 알아 챌 수 없다. 그렇다고 아주 깊은 학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김부의(金富儀 1079~1136)의 시 ‘낙산사’를 읽으려면 관음신앙과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자등림해안고(一自登臨海岸高)
회두무부구진로(回頭無復舊塵勞)
욕지대성원통리(欲知大聖圓通理)
청취산근격노도(聽取山根激怒濤)

처음 오른 바다 언덕 높기도 하여라.
머리 돌리매 다시 묵은 티끌 없네.
대성의 원통한 이치를 알고자 하거든
산근에 부딪치는 노한 파도 소리 듣소.

이근원통이란 소리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수행법이다. 인간의 육식(六識) 중 청각에 해당하는 듣는 작용에 집중하여 삼매에 드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낙산사 아래 바위굴에서 이 수행을 통해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하는데, 그로부터 이근원통 수행이 관음신앙의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다.

김부의가 지은 시의 앞부분은 낙산사의 맑은 기운을 읊은 것이다. 바닷가 높은 언덕에 자리한 낙산사에 이르니 속세의 티끌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맑은 기운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가피를 입고 ‘원통한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언덕에 부딪히는 파도소리에 귀를 집중하여 이근원통의 수행을 완성해 보라는 것이다. 의상처럼 제대로 수행해 보라는 뜻일 게다.

이렇게 낙산사의 신앙적 의미를 시에 담은 경우도 있지만, 승경으로서의 낙산사를 읊은 시들도 많다. 최립(崔 1539~1612)의 문집 〈간이집(簡易集)〉제8권 ‘동군록(東郡錄)’에 수록된 ‘낙산사(洛山寺)에서 즉흥으로 읊다’라는 작품을 보자.

누관해일석문기(樓觀海日昔聞奇)
월득중추일세기(月得中秋一歲期)
차지차시봉고우(此地此時逢苦雨)
천공정아영동시(天公停我嶺東詩)

누각의 바다 해 기막히단 말은 들었다만
중추의 둥근달 보려면 일 년을 기다려야.

일출 보며 근심 걱정 내려놓기

윤증(尹拯 1629~1714)의 경우 낙산사에서 일출의 광경을 제대로 본 듯하다. 그의 문집 〈명재유고(明齋遺稿)〉 제2권에 ‘낙산사(洛山寺)에서 판상 시에 차운하다’라는 시가 있다.

불관도소장(不管道消長)
하지인락우(何知人樂憂)
차장호시지(且將弧矢志)
료부해산유(聊付海山遊)
수하청화절(首夏淸和節)
이화낙사루(梨花洛寺樓)
창명정만리(滄溟正萬里)
일출채운수(日出彩雲收)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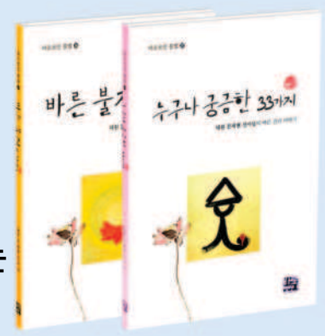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6권의 저서 출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 ~ 7/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3	깨달음	법륜	정토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명상선물	현빈	이층버스
6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법	나무를심는사람들
7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8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담앤북스
9	법구경 (영문, 한문, 빠알리어 수록)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불교에서 본 우주	강승환	운주사



불교의 역사는 전등의 역사

고승열전–전등의 역사

정병삼 지음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2만5천원



"한량없는 오랜 시절 덕을 닦으시어 나면서부터 죽지 않는 법 스스로 아셨네. 편안하고 조용하며 허둥대지 않아 밝게 드러난 모습 미묘하고 단정하고 엄숙했네."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를 가장 장엄하게 읊었다고 하는 〈불소행찬〉에서 석존의 탄생을 노래한 부분이다.

불교는 2천5백여 년 전 인도의 작은 왕국에서 출생한 싯달타 태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길을 세간을 위해 개시함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석존이 인도해준 그 길을 따라 깨달음의 빛을 이어온 역대 고승들에 의해 불교는 전승되었다. 곧 불교의 역사는 역대 고승들에 의한 전등(傳燈)의 역사이다. 책은 그 기나긴 전등의 역사를 묶은 것이다.



1955년 8월 3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니대회 기념사진

책은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한국의 고승들을 소개하고 있다. 총 5편 60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은 시아본사(是我本師) 편이다. 도상학으로 풀어낸 석가세존의 전기이다.

"석존의 자취를 찾아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4대 영장의 순례였다. 4대 영장은 탄생지 룸비니와 성도지 보드가야, 초전법륜지 녹야원과 열반지 꾸시나라였다. 마투라에서 출토된 사상도는 탄생 · 성도 · 전법륜 · 열반의 4대 영장에 삼십삼천하를 더 넣은 것이다. 이후 붓다의 행적에 따라 각각 사상(四相) 또는 팔상도로 표현되었다."

송광사 '팔상탱'과 〈석시원류〉에 바탕을 두고 석존의 출생과 열반에 이르는 에피소드를 장면별로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불교교학과 문화의 공부연원(工夫淵源)을 아울러 담지한 필자의 이력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불타전이다.

불교 교단은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부처님에게는 항상 따르는 제자만 해도 천이백오십인의 대성중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제자가 10대 제자와 16나한이다.

제2편은 '인도의 고승들' 편으로, 경 · 율 · 론 삼장에 근거한 십대제자들의 행장은 물론 석존을 배반하고 승단의 분열을 초래했던 제바달다의 입장과 비구니 승단의 출현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대승교학의 천재들인 유마거사와 마명, 중관의 용수보살과 유식의 세친조사의 행적과 사상이 일목요연하게 서술되어 있다. 교해(敎海)의 심연과 지평을 자유자재로 순례(巡禮)하지 않고서는 정리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총 5편 60주제 석존의 전기 비롯
인도, 중국, 한국의 고승 소개
300 쪽으로 압축한 2500년 불교사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유교를 비롯한 뛰어난 사상을 가진 중국에 알려진 것은 중국문화의 기틀이 세워진 서기전 1세기경의 전한 때였다. 책의 제3편은 중국불교를 빛낸 인물들을 중심으로 중국불교의 사상사를 개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중국에 불교를 안착시킨 석도안, 역경의 새 지평을 연 구마라집, 여산혜원과 천태지자 대사, 도선율사, 구법의 화신 현장삼장. 법장화상과 선도, 혜능과 신수, 징관과 종밀, 영명연수, 대혜와 굉지에 이르기까지 유장하고도 큰 폭의 중국불교사를 파노라마처럼 엮었다.

서기전 5세기경에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서역을 거쳐 중국에 알려진 것은 이로부터 5백년이 지나 1세기 남짓한 시기였다. 불교의 발상지와는 전혀 다른 문화 풍토에서 몇 백년에 걸친 이해 과정을 거쳐 불교를 중국적 토양으로 정착시킨 도안 시대에 이 중국화된 불교는 다시 동방으로 전파된다. 마침내 우리나라에까지 불교가 전파되기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4세기 후반인 삼국시대였다. 삼국 중 고구려(소수림왕 2년 · 372)에 먼저 불교가 전해진다.

제4편과 제5편은 한국의 고승들 이야기로 1700년 우리불교 전등의 역사다.

4편에서는 초전의 아도화상, 원광의 구법과 자장율사, 대륙에 떨친 교한 원측법사, 불교철학의 정화 원효대사, 사상과 신행의 선도자 의상, 도의선사, 보조국사, 태고와 나옹의 임제선, 서산과 부휴대사의 선풍, 연담과 인악의 강풍, 백파와 초의의 선론을 다루고 있으며, 5편에서는 경허선사의 근대선, 용성선사의 대각운동, 석전선사의 교육과 포교, 만공선사의 전통선풍 중흥, 한암선사의 조계종풍 중흥, 만해선사의 겨레와 선, 만암종사의 교단개혁, 효종선사의 구도행, 동산선사의 선율겸전, 금오선사의 투철한 선수행, 운허종사의 역경과 교육, 지관종사와 불교대사림으로 마무리했다. 총 300여 쪽에 2500여년의 불교역사를 압축한 책은 교학에 대한 깊은 내증(內證)은 물론 자료열람과 현장답사로 확장된 역사적 사유가 교차하는 필자만의 각별한 공부여정이며, 대중에게는 선물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타적 실천이 해탈의 문"

보현행원품 강의(개정판)

광덕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천원



〈반야심경〉이 반야부 경전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면, 보현보살의 열 가지 서원을 담고 있는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핵심 사상과 이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책은 광덕 스님이 1989년 9월 불광출판부를 통해 발간했던 〈보현행원품 강의〉의 개정판이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한 품으로, 광대한 보살의 실천을 담고 있는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엄경〉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입법계품의 정수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크게 1부 화엄과 2부 화엄으로 분류된다. 1부 화엄은 입법계품 이전까지 내용으로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부사의한 해탈의 세계(不思議解脫境界)'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2부 화엄은 입법계품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부사의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보살의 광대한 실천'을 다루고 있다. 그 광대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실천의 길이 바로 보현행원(普賢行願)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은 선재동자의 지난한 구도행각을 담고 있는데, 그 구도행각은 '보현행원품'에서 끝을 맺는다. 여래의 해탈세계로 들어가고자 했던 선재동자의 구도행의 종착지가 다름 아닌 '보현행원품'에 나타난 열 가지 실천행이라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설법을 듣고 구법여행을 떠난 선재동자는 긴 여정을 거쳐 마지막 53번째로 보현보살을 만난다. 선재동자는 마지막 선지식으로부터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듣게 되니 그것이 바로 '보형행원품'이다. 따라서 '보현행원품'은 오랜 구도행을 마감하는 최후의 법문이며, 광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열 가지 보살행이다.

1968년 〈보현행원품〉 한글본 발간
1989년 〈보현… 강의〉 현재 34쇄
불법은 이론 관념 아닌 '실천' 강조

이와 같이 '보현행원품'은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래서 입법계품에서 따로 떼어낸 '보현행원품'의 한문본은 신라시대부터 별쇄본 형태로 널리 보급됐다. 억불의 시대였던 조선시대에도 언해본이 빈번하게 간행되는 등 위상은 여전했다. 이처럼 '보현행원품'은 한국불교에서 위상이 매우 높은 경전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한글 번역본이 나오지 않는 등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8년 광덕 스님에 의해 한글 번역본이 출간되고, 1989년 9월에 〈보현행원품 강의〉가 발간됐다. 〈보형행원품 강의〉는 1989년 초판 발행 이후 현재까지 34쇄가 인쇄되었으며, 약 5만 3천 권이 보급되었다.

'보현행원품'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수행의 길을 제시한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끝없이 중생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같이 이타적 실천이야말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문이라는 것이 '보현행원품'의 요지이다.

광덕 스님은 "불법은 이론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행에 있다."고 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매 순간순간 여래의 무한한 공덕은 성취되며, 광대한 해탈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을 수행의 삶으로, 사바세계를 보살의 원대한 꿈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는 환희심 넘치는 메시지가 〈보현행원품 강의〉에 담겨 있다.

박재완 기자

삭막한 일상 채워주는 따뜻한 메시지

현각 스님의 마음 두드림

현각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 1만5천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 겸 동국역경원장인 현각 스님의 따뜻하고 죽비와 같은 지혜의 메시지를 담은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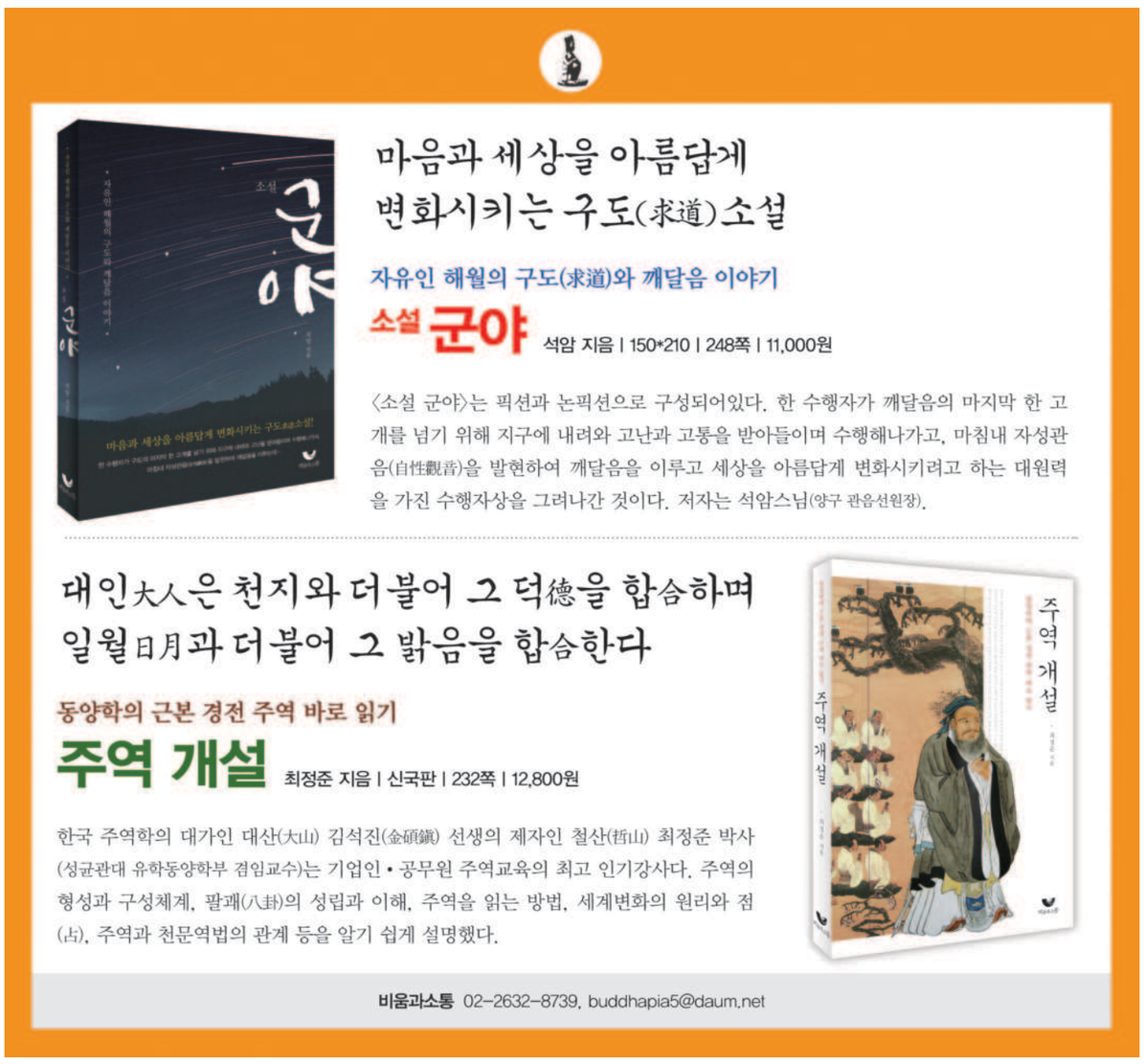
현대 인류의 삶은 나날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힘겨워지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깊어지고 있다. 시간에 쫓기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메말라 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수 없는 세상, 그렇게 힘들어진 세상에, 그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불가에 귀의한 후 일생을 '선'의 깨달음으로 정진해 온 저자 현각 스님이 삭막해져가기만 하는 일상을 따뜻하게 채워주기 위해 지혜의 메시지를 전한다. 2011년 〈현각 스님의 선문선답〉, 〈한국을 빛낸 선사들〉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에세이로, 현각 스님은 우리가 놓치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자연의 순간들을 면밀하게 잡아내어 우리말로 유려하게 풀어내고 있다.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근거리는 설렘을 선물할 줄 아는 〈현각 스님의 마음 두드림〉은 삶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현각 스님의 마음 두드림〉을 읽고 현각 스님의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일상의 아름다움과 한 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각 스님의 마음 두드림〉은 삶의 크고 작은 기쁨과 변화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날카롭게 포착해 풀어내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하는 동안, 자칫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일상의 변화를 섬세하고도 아름답게 발견해냈다. 현각 스님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현각 스님의 일상에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만큼, 감성적이고 수려한 단어로 이를 풀어내고 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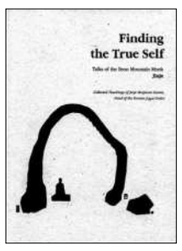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영문 선법어집 출간

종정 영문 법어집 〈Finding the True Self〉

진제 스님 지음 | 로터스렌턴 펴냄 | $22.95



간화선 세계화에 앞장서 온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영문 법어집 〈Finding the True Self〉를 펴내 한국 정통 간화선을 배우려는 서구인들에게 유용한 선수행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문 법어집 출간은 〈Open the Mind, See the Light(마음을 열어 빛을 보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조계종이 최상승 수행법으로 여기는 간화선과 바른 참선 수행법에 대한 소개로, 소참법문,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또 하나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스님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통 간화선 참법을 세계인들에게 여실히 증명해 보여준 것이다.

책 속을 들려다 보면 진제 종정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내린 각가지 선법문들과 미국서 설한 법문들이 소개돼 있다. 참선에 임하는 자세를 비롯해 수행자의 본분, 상세한 가르침을 소참법문과 문답 형식으로 담았다. 특히 이 책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해방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니터 교수와의 대담이다. 또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면서 전 세계 유대교의 정신적 스승인 랍비 잭 뱀포라드와의 대담도 수록됐다. 이 두 글들에서는 간화선과 진제 종정 스님의 법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법어집 표지와 본문 중간사이에는 선(禪) 판화가로 유명한 통칙 스님의 판화 작품들을 넣어 서구인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번 법어집은 법어번역 분야서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출신의 일본 조동종 코운 프란츠 스님이 전체적인 번역과 편집 책임을 맡았고, 한국 불교계에도 잘 알려진 불교계 석학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가 서문을 썼다. 세계적인 불교잡지사인 〈부다달마〉 부편집장이기도 한 프란츠 스님은 진제 종정 스님의 법문 원고를 처음 접하고 발심해 만사를 제쳐두고 수개월간 번역과 편집작업에 몰두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이번 번역에는 한국불교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홍연주, 진우기, 박희원씨 등 전문번역가들도 함께 작업했다.

진제 종정 스님은 팔순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미국을 세 번이나 방문해 법문하는 등 한국의 간화선을 세계화 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특히 2010년 말 세계적인 신학자 폴니터 교수와의 대담을 시작으로, 2011년 가을에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 선대법회' 를 열었다. 이어 2012년 초에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60주년 행사에 초청받아 법문했다. 또한 그해 가을에는 UN세계종교지도자협의회 초청으로 UN플라자에서도 법문하는 등 그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선법문을 하고있는 진제 스님

국내외 법회서 설한 간화선 법문
수행자 본분 및 가르침 문답 구성
미국계 일본 스님 프란츠 책임 번역

한편 진제 종정 스님은 이번에 출간한 영문 법어집을 미국과 유럽의 대학과 주요 도서관에 기증해 세계인들에게 한국 간화선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 책은 세계 최대 미국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 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만일 아마존측 심사를 통과해 공식 판매가 결정된다면, 한국불교사상 처음으로 판매되는 한국불서가 된다.

이 책의 저자인 진제 종정 스님은 1953년 해인사서 출가해 석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8년 통도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에는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음으로써 경허, 혜월, 운봉, 향곡 선사로 전해내려온 정통법맥을 통해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 법손이 됐다. 이후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했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조계종 대종사에 올랐고, 이어 2012년에는 제13대 조계종 종정에 취임했다. 현재는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도 겸임중이다.

진제 종정 스님은 전문을 통해 "사상과 종교를 초월해 만인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마음' 을 수양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인 간화선 참선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깨달음의 최상 요체인 간화선 참선법을 만인에 선양함으로써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목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원력으로 이 책을 세계인들에게 권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화엄사상 요체인 법성게 수행적 입장서 풀이

법성게 강해

의상대사 지음 | 김상백 풀이 |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법성게〉는 통일신라 시대 해동 화엄종의 초조인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공부한 뒤, 그 내용을 210자로 요약해 게송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책은 그렇듯 화엄사상의 요체를 드러내고 있는 〈법성게〉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고 설명했다.

의상대사는 황복사서 출가해 원효를 만나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간다. 중간에서 원효대사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깨치고 신라로 돌아왔으나, 당나라로 건너간 의상은 화엄종의 2조인 지엄 스님 문하에서 공부했다. 이때 중국 화엄종 3조인 현수 법장과는 동문이 되었다. 의상대사는 〈화엄경〉 80권을 다 공부하고, 화엄사상의 핵심 요체를 함축해 나타낸 〈법성게〉를 지어 스승에게 인가를 받았으며, 게송을 그림으로 배치한 〈화엄일승법계도〉를 그렸다. 도안은 7언 30송으로, 도합 210의 글자를 도인로 배치했다. 이를 〈해인도〉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법성게〉는 해동화엄의 발원을 이루는 명문으로서, 이후 한국불교가 화엄사상을 중시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게송이다. 그래서 의상대사는 공부를 다 마친 후학들에게 〈법계도〉를 한 장씩 선물하곤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법성게〉 첫머리에 의상대사는 〈법성게〉를 지은 동기에 대해 '이(理)에 의하고 교(敎)에 근거해 간단한 반시(槃詩)를 만들어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마저 없는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는 〈법성게〉를 대승 보살도에 입문하는 입학장이자 동시에 윤회를 마치는 졸업장과도 같다고 평한다.

이 책은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은 〈법성게〉를 이론적, 교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실천적, 수행적인 입장서 풀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것은 이 책의 저자가 평생 참선수행을 한 노승의 재자제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론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 결국에는 번뇌에 쌓인 현실을 타파하고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경전과 논서는 길을 가리키는 안내자 또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의상대사가 함축한 화엄의 웅혼한 세계를 수행의 입장, 특히 참선수행의 관점서 바라보고 풀이한 것이다. 그렇다고 불교의 교학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게송에 스며 있는 복잡한 교학을 알기 쉽게 정리해 그 의미를 수행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예컨대 〈법성게〉 첫 구절인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에서 '법성' 을 풀이하면서 이를 한 단어로 볼 경우에는 우리의 본래 성품인 진성으로, 이는 곧 간화선서 화두를 타파한 경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법성을 법과 성으로 나누어 보면 법은 객체인 불법으로서 객체이자 용이요 사라 할 수 있고, 성은 주체로서 본성, 체, 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대립적인 이분법을 떠나 수행을 통해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깨달은 데만 그치지 말고 깨달음 이후 보림으로서 바라밀행을 통해 그 깨달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이 책은 단순히 〈법성게〉 자구를 분석하고 논리적, 교리적으로 그에 합당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편역자 김상백은?
1961년에 태어나,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1학년 때 선배를 따라 경북 풍기 성혈사에 갔다가, 당시 주지인 봉철 스님과 인연을 맺고 시창(是窓)이란 불명을 받았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나서 봉철 스님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고, 2011년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가르침을 받았다. 저서로는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극락도 불태워 버려라〉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 큰 마음으로 모든 중생 가슴에 품자

죽음수업

김영로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올 4월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로 죽음에 대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야말로 살아 있다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다 해도 죽은 게 아니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제 죽음수업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 상실감과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독보적인 영어교재로 유명한 영어순해 저자 김영로 선생도 4년 전 아들을 잃었다. 그는 자식 잃은 슬픔을 성자들의 말씀과 수행을 통해 극복하면서 티베트 금강승 수행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책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수행체험 통해 거듭난 저자의 깨달음이 책 속 단어 한 글자마다 영글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업은 기쁨을, 악업은 고통을 가져온다는 인과 법칙을 통해 알고 보면 모든 생명체는 우리들의 가족이므로 잃은 가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욱더 큰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가슴에 품으며 살자"고 조언한다. 고통의 근원인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고통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 열리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은 저자가 평소 수행 하면서 곱씹어 읽고 마음에 새기던 말씀들, 즉 부처님과 린뽀체들은 물론 공자, 루미, 슈바이처, 피카소, 베케트, 프랭클, 프란치스코, 스티브잡스 등 동서고금에 회자되는 위인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가려 뽑고 이에 해설을 덧붙였다. 저자의 빛나는 안목이 담겨 있어 수행에 관심 가진 이들 이외에도 현재 가족과 친지, 이웃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들을 치유하고픈 이들에게 필독서가 될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한다. "제가 좋아하는 만뜨라 가운데 하나는 집중과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의 제목은 죽음수업이지만,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라는 부제에서도 엿볼 수 있듯 진정한 삶을 위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책이다.

총 6장인 이 책은 한마디로 성자들의 축복이 가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수많은 성자들의 주옥같은 말씀 중에서 가려 뽑은 내용은 읽기만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진정한 인생의 성공지름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과 행복 자원' 을 주제로 한 첫 장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깨달음의 자원이요, 행복 자원이며 고통이 오히려 축복임을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맞는 것이 행복 자원을 키우고 불행 자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마음 확장 행복 확장' 편인 제 3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순간 남들이 고통 받게 만드는 것을 그만두는 이치를 깨닫게 해 주고, 자기의 마음을 확장하고 행복을 확장하는 법, 마음 키우기 수행법을 조목조목 알려준다.

죽음 대하는 올바른 자세 소개해
부처님 등 동서양 위인 말씀 선별

마지막 제6장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 편에서는 임종의 정광명 바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의식이 몸에 남았을 때와 떠나갈 때 시간별 날짜별로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상히 소개한다. 특히 화신으로 성불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는 재생의 바르도(대략 30일~49일)에서 관세음 수행, 육자진언을 통해 소리와 공의 합일 수행을 하면 즉시 바르도에서 해탈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해탈로 가는 길은 수행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르도에서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당신의 깨달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의 심연으로 끌고 갈 수 있지요. 이 또한 명심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모든 것은 결국 당신 자신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맑게 깨어있으면서 지혜롭게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고 당부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저자의 말을 통해서도 이 책 〈죽음수업〉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수업' 임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의 힘, 나 자신의 결정과 선택, 맑게 깨어 있기,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죽음, 그 순간에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필요한 말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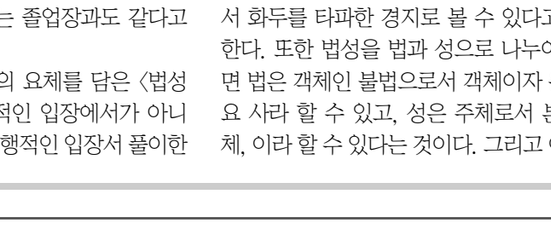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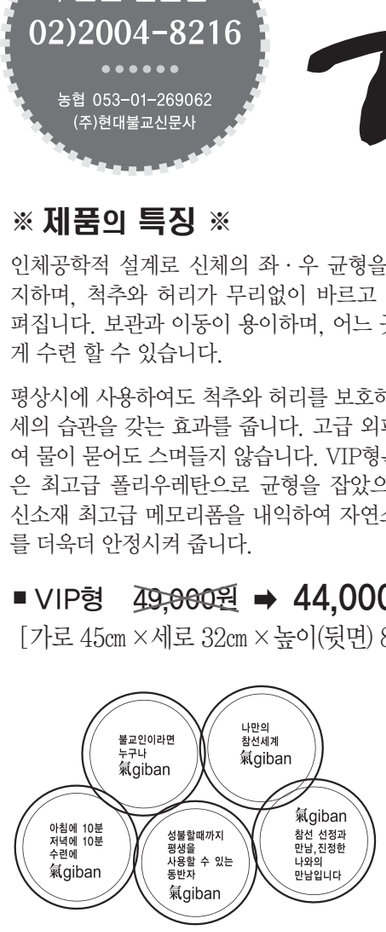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간소히 살라. 단순해질수록 가난하지 않다”

불교로 읽는 古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변택주
‘연구소통’ 소장

자연을 기리고 문명사회를 비판한 〈월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가 이태에 걸친 월든 호숫가 삶을 오롯이 추린 보고서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 교사와 목수, 측량 기사를 하다 1845년 나이 28살에 월든 호숫가로 들어간 소로, 여러 달에 걸쳐 제 손으로 지은 오두막을 조그만 나무 침대 하나, 식탁, 나무로 만든 책상 하나와 걸상 세 개, 솥, 나이프 두 개 포크 두 개, 접시 세 개, 고독과 가난으로 넉넉하게 채웠다.

참답게 사는 밑절미가 뭔지 알고 싶어 숲으로 들어갔다는 소로. 그는 “되도록 오롯한 삶만을 마주해, 깊이 살아 알짬을 모두 빨아들이고 싶었다. 삶이 아닌 것은 넓게 베어내고 바싹 잘라내어 구석까지 몰고 가서 그루터기만 남기고 오롯이 살자는 데 뜻을 뒀다. 만일 삶이 하찮다면 하찮음만을 오롯이 모아 세상에 드러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삶이 거룩하다면 그대로 몸으로 겪고 느껴 내 다음 여행에 오롯이 새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소로가 번잡한 도시를 떠나 월든 호숫가에서 누린 이태 남짓한 나날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에도 걸림 없는 삶이었다. 얻어 입은 옷이 찢어지면 기워 입고,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살았다. 소로는 〈일기(Journal)〉에서 “스토아 철학자 제논이 세계와 맺고 있는 사이와 내가 세계와 맺은 사이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동양사상과 인도철학에도 조예가 깊어 〈공자〉를 번역하기도 했던 소로 사상은 현실세계 무한성을 얘기하는 ‘스토아주의’로 모인다. 슬기로움을 이성으로 이끄는 연장으로 여기는 스토아주의는 논리와 물리를 디딤돌 삼아 윤리로 나아간다. 키케로는 스토아 윤리를 간추려 “덕스러움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단 한 가지 조건”이라면서 “형편이 어떻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겪더라도 행복하다. 굽이굽이 삶이 굴곡져도 오래도록 넉넉하려면 오로지 덕스럽게 사는 것뿐”이라 했다.

스토아주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는 절집 얘기를 떠올릴 만큼 이성을 흔드는 느낌은 좋은 것이든 궂은 것이든 모두 뿌리치려고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고 외친 철학이다. 스토아주의 윤리는 완벽한 도덕을 갖춘 자유에 이르려는 것이고, 그 꼭지점에 주어지는 평정, 마음 놓음이 바로 아파테이아(Apatheia)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 꼭지 니르바나(Nirvana)와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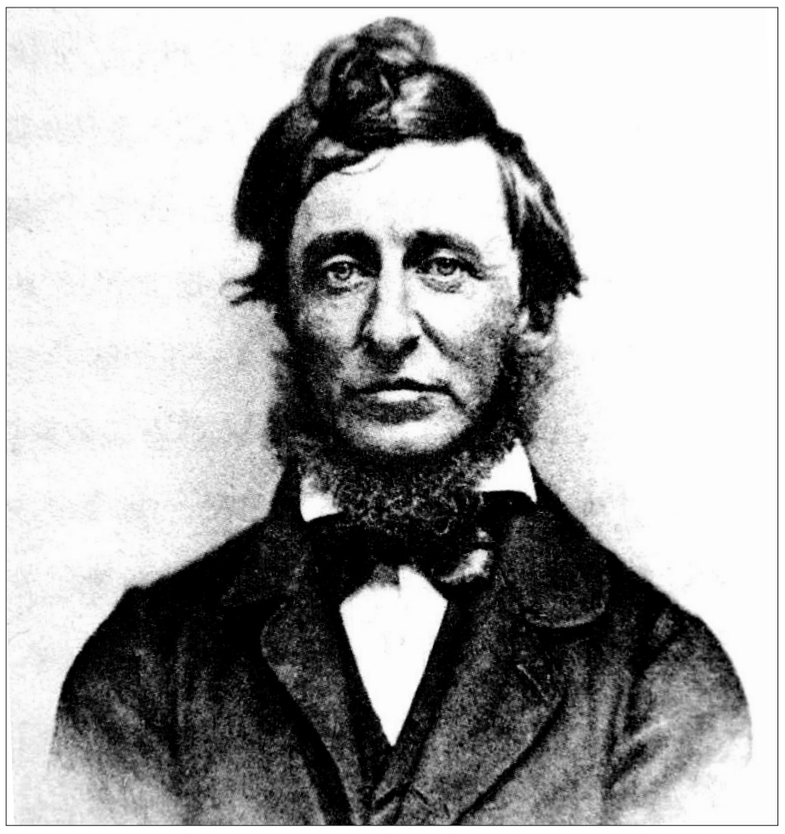
소로는 “모든 목숨붙이는 살아있어야 한다. 사람이나 사슴이나 소나무나 마치 한 가지인데, 이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죽이려하기보다는 보듬으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소로를 깊이 연구한 로버트 리처드슨은 “소로는 일상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와 같은 물음을 늘 던졌다. 자연을 다스리는 법칙이 사람도 다스린다는 철학으로 살아가며 깊은 뜻을 알아내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소로를 볼 때, 비로소 소로를 잘 헤아릴 수 있다”고 했다.

소로는 숲에 들어간 까닭을 “오로지 사는 밑절미를 마주해 죽음을 맞았을 때 헛되게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며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목숨붙이를 보듬어야 한다는 소로, 리처드슨이 드러낸 소로, 오직 사는 밑절미와 마주 하겠다는 소로한테서 고통 뿌리를 낱낱이 짚어 들어가 밑절미를 드러내어 마음 놓는 열반에 이르러, 가붓하게 모든 목숨붙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누리게 하려던 고타마 붓다. 자연과 어우러져 주인공으로 살라, 스스로 하기에 따라 삶을 옹글게도 허술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고타마 붓다를 느낀다.

소로는 끼니를 이으려고 자연스러움을 잃어야 한다면, 차라리 굶어죽겠다고 했다. 고갱이는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는가, 제가 먹는 빵에 얼마나 참된 땀방울이 깃들었는가, 삶에서 무엇을 물려받았으며 무엇을 훔쳤는가에 따른 물음이다. “왜 우리는 헤아려 살피지 않고 아등바등, 서두를까? 어떤 사람이 제 또래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녁이 즐기는 음악에 맞춰 걸어가게 내버려둬라. 그 북소리가 어떻든지 또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이녁이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자라고 무르익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남과 발을 맞추려고 제 봄을 여름으로 바꾸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면서 ‘저다움’을 부르짖는다.

간소하게 제 앞가림하며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소로가 생각하는 행복이었다. 거름도 주지 않은 채, 삽만 써서 농사를 짓기에 거둬들였다고 해봐야 보잘 것이 없다. 그러나 소로는 가벼운 연장과 몸으로만 제 앞가림을 하겠다며 거친 땅을 갈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은판 사진. 소로는 2년 2개월 동안 월든 호수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이곳의 생활을 정리한 수상집이 〈월든〉으로 생태적 삶의 성찰이 잘 담겨 있다.

2년 2개월 호숫가 오두막 생활 정리한 수상집
죽음 앞에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 선택한 생활
‘스스로 주인공으로 살라’ 붓다 가르침과 맞닿아

기른 감자와 콩, 순무 따위만을 끼니로 받아들였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내가 먹은 빵은 내가 굽고, 내가 입은 옷은 내 손으로 빨기를 바란다.” 소로는 “간소하고 간소하라! 바라건대, 되도록 하루 한 끼만 먹어라. 백 가지 요리를 다섯 가지로 줄여라. 단순하게 살수록 그 때 비로소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게 된다”며 우리를 다그치고 또 다그친다.

사람들은 〈월든〉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낭만이나 넉넉함을 좇으려 하지만, 소로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방법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하는지’ 밑절미를 돌아보라며 멱살 잡는다. 그러나 소로가 보여준 삶은 더 많이 갖기를 바라고, 새로운 물질문명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당시 사람들은 소로를 이단으로 몰았다. 부와 명예를 좇아 신대륙까지 흘러들어온 유럽사람 욕망은 끝 간 데를 몰랐다. 전쟁을 부르고, 노예제를 낳고, 자연을 짓밟고, 원주민을 몰아냈다.

대학을 갓 나온 소로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매를 들기보다는 말로 타일렀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소로에게 학교방침에 따르라고 다그쳤다. 하는 수 없이 말썽을 부린 학생 여섯 명을 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소로는 학생을 때려야 한다면 차라리 그만두겠다며 학교를 떠난다. 소로에게 학생을 중심에 놓지 않는 교육현실은 자유로이 굽이치는 시냇물을 밋밋한 도랑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소로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스승 에머슨은 조화로운 얼과 몸을 가진 소로에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소로는 활기차다. 소로가 숲을 걷고 노동하고 땅을 측량할 때마다 참나무 같은 힘을 느낀다. 소로는 나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에 과감히 뛰어들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다. 소로는 내가 막연하고 따분하게 알릴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뛰어난 영상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인다.”

소로는 미국 정부가 인두세를 걷자 그 돈이 노예를 사는데 쓰일지 사람을 죽이는 총을 만드는데 쓰일지 알 수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른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도 인두세만을 내지 않은 까닭은 의사당 앞에서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까지 가축처럼 버젓이 팔리는 흑인 노예제도와 영토를 늘리려고 멕시코전쟁을 일으킨 정부에 맞서려는데 뜻이 있었다. 소로가 숲 속에서 홀로 지낸 지 한 해째를 맞은 여름날, 고쳐달라고 맡긴 신발을 찾으러 마을로 갔다가 인두세를 내지 않았다고 잡혀간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에머슨 “자네는 왜 이곳에 있는가?”하고 묻자 소로는 “선생은 왜 거기 계십니까?”하고 되받으며 기꺼이 옥살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모가 소로의 뜻을 묻지도 않고 벌금을 내는 바람에 뜻있는 버팀은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억누르는 나라권력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소로는 〈시민의 불복종〉을 쓴다. 소로는 이 글에서 ‘누가 쓸 물건이 되기에는, 누굴 따르는 2인자가 되기에는, 또 어느 왕국에 쓸 만한 하인이나 연장이 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고귀하게 태어났다’는 세익스피어 〈존왕〉 5막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적바림했다. 소로는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법정스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만큼 의롭지 못한데 맞서는 뭇사람을 북돋운다.

그런 소로가 어째서 적극 나서서 노예 문제를 비롯한 멕시코 침공을 막으려 하지 않았을까? 소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까닭에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살려고 왔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만 하면 된다.”고 했다.

소로 생애를 낱낱이 적바림한 영국 작가 헨리 솔트는 “소로가 콩을 심고 콩밭을 매는 일은 자연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뜻에서 소로가 앞장서서 미국을 보듬기보다 〈월든〉을 써서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 훨씬 더 훌륭했다”고 돌아봤다.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다스리지 않는 정부가 으뜸정부’라고 했던 소로, 누가 앞장 서 이끌기보다 시민 스스로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스토아학파는 개인끼리 도덕과 행복 일치를 내세웠다. 언뜻 보면 플라톤 행복론과 다름없어 보이나, 플라톤이 내세운 도덕이 도시국가공동체를 앞세웠다면, 스토아학파가 내세운 도덕은 개개인이 서로 보듬는 자유 실현에서 오는 행복이다. 자연은 사람을 넘어서는 흔들림 없는 밑절미로, 행복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아파테이아)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바탕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부유함을 떠나 우주와 결을 이루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여긴 소로는 “제 삶을 사랑하라. 황혼 빛은 부잣집 창문 뿐 아니라 가난한 집 창문도 다사로이 비춘다. 또한 초봄이면 가난한 집 앞에 쌓인 눈도 녹는다. 그대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거기서도 궁전에서처럼 즐겁고 넉넉하며, 너그러이 누릴 수 있으리라.”고 읊는다.

소로는 기쁨이야말로 사는 바탕이라고 했다. “만약 우리 낮과 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향기롭다면, 또 우리가 별처럼 빛나 스러지지 않는데 가까워진다면, 누리가 두루 축하할 것이며 우리도 그때 스스로 축복할 까닭을 갖는다.”

리처드슨은 소로 〈일기〉는 즐거움, 경험을 향한 욕구, 예민한 감각,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기쁨으로 넘친다고 했다.

“나는 숲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 까닭으로 숲을 떠났다. 내 앞에 또 다른 삶이 놓여 있음을 느꼈다. 숲에서 사는데 시간을 더 내어놓을 수 없었다.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쉽사리 길들여진 길을 밟게 되고 스스로 다져진 길을 만들게 되는지 그저 놀랄 따름이다. 나는 손님으로 선실에 편히 묵으면서 항해하기보다 차라리 거친 바람을 맞으며 돛대가 있는 갑판에 있기를 바란다.”

1847년 월든 호숫가를 떠나며 소로가 남긴 말이다. 편안함을 벗어던지고 거친 벌판으로 나서는 구도자다움을 엿볼 수 있다. 월든을 떠난 뒤에도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더 할 나위 없이 소박하지만 힘차게 살다갔다.

소로는 “아직까지는 이 둘레에서 가장 좋은 땅은 사유지가 아니다. … 그러나 언젠가 유원지라는 것으로 나뉘어 야박하게 소수 사람들만 누리는 날이 오리라.” 또는 “이번 겨울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잘라내고 있다. 구름까지 베어내지 못하니 천만다행,… 소나무 가치를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나무꾼일까”라고 짚는다.

“농사꾼이 제 집을 얻었을 때 그 집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실은 더 가난해졌을지도 모른다. 이녁이 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집이 이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 종이가 아니라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을 던지라. 소수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은 다소곳이 순응할 때다. 그때는 이미 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소수가 젖 먹던 힘까지 쏟아 막을 때 봇물처럼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갖는다”며 우리 멱살을 거머쥐는 소로는 오늘날에도 거스를 수 없는 봇물이다.

삶으로 피어오르지 않는 앎은 구두선일 따름. 고타마 붓다가 당신 깨달은 가운데 길을 여덟 갈래로 세워 누리 멱살을 거머쥐어 붓다이듯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 또한 이태 두 달 이틀을 뜻한 바대로 산 옹골찬 삶을 낱낱이 적바림해내어 소로일 수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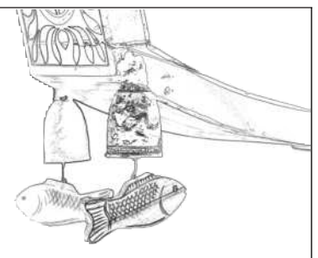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나는 실제로 항상 모든 제자들을 가르쳐 법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면서, 신체에는 나 가 없고 느낌 · 지각 · 형성 · 의식에는 나가 없 음을 관찰하고, 이 오취온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살해자와 같으며,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고 나가 아님을 관찰 하게 합니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어렵고 힘든 사찰과
스님이 안 계신 절을
도와드립니다
음식 솜씨 좋은
공양주도 함께 갑니다
010-4882-3838

최면 공부합시다

스님에 한함. 주1회 1시간 30분(총10회)
실전(다양한 장애에 즉면,
혹은 스스로 개선하고 싶은 일)에
대처하여 빠른 효과가 있도록 유도
기법만 반복 공부
45만원, 3분 이상이면
전국 어디든 가능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번지
010-9609-1919
덕인 합장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장도량)
010-3774-4099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달마와 인연을
소승은 아미타종
초대 종정입니다
이제 걸망을 내려
놓아야 겠다
간섭 받지 않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무소유)
010-9003-7783

인연 찾습니다

조건 최상으로 학교와
종단 괌, 등록 인수하실 분
미국령 GUAM사이버대학교
미국령 종단
2007년 등록 현재 라이센스
010-8774-2040
인터넷 070-8844-2030

양 도 공 고

학교 & 종단
미국령. 현지법인
조건. 양도&동업
2007년 등록
010-8774-204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부부도 가능)
010-8576-44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금호동 관음사, 50-60대)
010-6260-3310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달마일장금(경) 강의 (공양 / 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 4일 (1일 8시간) 총 24시간 강의

•강사 : 유천명리학당 원장직강 011-838-1134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540-5번지 3층 유천명리학당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6시)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안 손으로 짚어 1분 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월요일 오후 2시 ~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사 찰 건 축 전 문

- 상담분야 : 사찰건축 계획, 건축평면구성, 토목, 건축일체
풍부한 고(古)건축이론과 오랜 현장경험, 탁월한 직관력, 안목
* 짜임새 있고 정교한 책임시공으로 보람된 불사(佛事)가 되도록 함
- 시공상담 : 목조건축, 콘크리트건축, 기타 사찰건축일체
• 문의 : 고(古)건축전문 시공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시공 가능함)
031)677-1373. 010-6405-2060
천년 고(古)건축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법륜사)
010-5219-7021

천도재, 49재 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스님, 행자 모십니다

(대전, 60세이상도 가능)
010-4220-0566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전통 선묵화(禪墨畵)연구원

(마음 닦는 그림, 선묵화를 통해서 참나를 찾고자 하시는 분)



(연구회원 모집)
자격요건
1. 서예, 사군자, 문인화 중 1년 이상 공부 하신 분
2. 선(명상) 공부 1년 이상 하신 분으로 그림에 관심 있는 분
3. 초보자는 면담후 결정
지 도 월 2회 내외
1. 1회. 선강의, 명상체험 , 선묵화 지도
2. 1회. 통신 선묵화 지도
지도 법사
범주 스님 지도
(홈페이지: http://www.dalma-art.com)
속리산 선(禪)문화 예술원 054)535-037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백중 천도재
▶ 2재 : 7월 14일(음. 6. 18, 월), 조계종 대종사 성우큰스님
▶ 3재 : 7월 19일(음. 6. 23, 토), 조계종 대종사 불심 도문큰스님
▶ 4재 : 7월 25일(음. 6. 29, 금), 조계종 대종사 현해큰스님
▶ 5재 : 7월 30일(음. 7. 4, 수), 봉선사 조실 월운큰스님
▶ 6재 : 8월 7일(음. 7. 12, 목), 조계종 대종사 암도큰스님
▶ 막재 : 8월 10일(음. 7. 15, 일),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밀허스님
※ 백중 천도재 동참하신 분께는 회주 無一 우학스님의 금강경 CD와 천도 법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 053-474-8228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스님 특별 개인지도(일반인,철학인,무속인)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운을 관상, 손금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개인지도(나이관계없음)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전화상담 안내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로 속 시원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인연 명리 강좌개설

삶은 인연생, 인연멸이라!
- 십이운성과 십신을 접목
- 토(土)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
- 모집대상 : 기초반,통변반
- 강의장소 : 삼성역 8번출구(3분)
010-4047-0134
정인스님 직강

최면 빙의 퇴마

-전생,미래 심리치료 전과정
6회 완성(수강료 백만원)
-단기속성반(3회×6시간)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아직도 망설이는 분 환영)
부산 010-9342-979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화개사
• 법 명 : 덕화
• 주 소 : 경남 진주시 미천면
향양로 365번길 41-10

위 인과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

축령산 보현사에서는 **'제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무루 동참하여 축령산 천하명당터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장소 : 축령산 보현사
문의 : ☎ 031)591-9023
(기도동참자 1인당 1년 10만원)

매월 셋째 토요일 신묘장구 철야기도 후 천도재 봉행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산신기도 (매월 음력 9일 ~ 15일) 오후 2시 부터

천일기도도량 축령산 보현사
보현선원 진명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23-3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언제나 보시하기를 즐기고 견고히 맑은 계 행을 지니며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면 온 갖 소원이 이루어지리."

- 제법집요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 (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 5동 (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 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융자 1억 가능)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수도권 사찰 양도
- 수도권 역세권 목조사찰 90㎡
- 토지750㎡ 요사채 66㎡
- 도심부근산속역사있고 조용한사찰
- 양도금액 : 40억원(융자 있음)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1-297-4281 (창건주)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요양원,연수원,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72-132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경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전각2채
- 요사 : 80평
- 양도가 : 18억9천
- 위치 : 대전
- 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3억3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 관계로 10억이상 되는 실 불사금 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부근 병풍산 아래
- 지장기도 도량 총평수 175평
- 법당 약 25평 / 방3개, 주방, 창고1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0-8330-0005

054)776-5482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종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작은절
- 조용하고 깨끗한 사찰
- 지하철 버스가까운곳
- 기도와 공부하기 좋은 곳
- 대지 191㎡, 건물 76㎡
- 가액 : 2억 5,500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중개보조원)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토굴 포교원 안내

- 위치 : 영주시 하망동 402-40 (동부 초등학교 후문위쪽)
- 시내 10분거리
- 전망좋은 포교원 (촌집)대지 52평
- 가액 3,500만원

010-5538-5570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108번길(당리동 대광빌딩)
- 6층에 5층(엘리베이터) 법당, 방 2개(45평)
- 약사, 관음, 500호신불
- 모든 준비 일체 되있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75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61-3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암자(급)안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
- 실 사용평수 약 500평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비품일체포함,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몸만 오시면 됨

010-4542-0902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총평수 : 160평 삼존불, 탱화, 방 4개 법당 앞
- 정원 미륵불과 석탑봉안
- 가액 : 4700만원 세간일체 양도함
- 선 답사하시고 후에 상담하세요

010-8902-76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남구 일원동 부근
- 지층 35평
- 완벽한 시설
- 현재 신도들이 운영 포교하며 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 주지스님 모심
- 답사 후 연락바랍니다

02)449-53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주차장 완배 실내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종로 5가역
- 4층건물 중 3층 약 14평
- 시설은 운각, 탁자, 에어컨, 냉장고, 사무용품 현재 확장 이전하여 비었음 (언제든 입주가능)
- 가액 : 보증금 일천만원, 월 77만원

02)443-0108

010-9259-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방보살, 삼신당, 호신불 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66만 / 3천 월55만원 /4천 월 44만원 선택
- 시설비: 700만원

010-4590-6777

010-3869-67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율하동 898-3
- 임대 40평
- 가액 : 보종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4825-57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가액 : 15억

010-8625-122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산 5-1 450-62
-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408평
- 정남향 조망수려
- 가액 : 6억5천만원

010-3755-874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부근
- 대지150평, 하천부지 150평, 법당 42평, 전통찻집건물 있음
- 가액: 5억 5천
- 위치: 울산 울주군 두동 부근
- 대지 180평 • 가액: 2억 5천
- 꼭 필요하신분만

010-9042-9935

사찰(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 대지 60평, 건평 1층 30평, 2층 법당 27평
- 석불, 석등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695-4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225-0012

02)403-3333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300만원 조절가능

010-3589-81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산시 북정동 아파트 단지내
- 평수 : 80평 방2칸
- 가액 : 일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무

010-3927-1299

010-5716-10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아파트 상가 대로변 2층 상가
- 규모 : 2층건물 2층 전체 80평, 법당 50평, 공양간, 방3개, 창고2개
- 시설: 삼존불 개금불, 신중단, 영가단
- 냉난방시설 완벽, 집기일체
-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주차공간 충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3574-3885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건천IC 7분소요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 2억 8천

010-4184-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지적 : 14,509㎡
- 종교허가 면적 : 2,770㎡, 전 70평, 요사채 22평,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의 토목공사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484-39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지적 : 14,509㎡
- 종교허가 면적 : 2,770㎡, 전 70평, 요사채 22평,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의 토목공사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484-391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주시 성근동
- 4층 중 3층, 아래시장 근처 시외터미널 10분거리
- 총평수 80평, 법당 30평, 방4, 거실, 주방 시설일체 완비
- 가액:1,000만원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863-4956

054)777-206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산세가 수려하고 조용함
- 법당 33평, 방 6, 공양간
- 가액 : 전세 3,000만원
- 양도는 평당 20만원

010-3827-686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2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특징 : 실평수 보다 훨씬 넓게 사용, 태양광, 심야전기, 지하수 전망 좋음
- 돌탑, 과실수, 기도처 외 모든 시설 완비
- 가액 : 1억 5천

010-7148-8475

절터로 좋은곳

-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을 낀곳
- 토성작업 한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평수 120평, 인법당 27평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M 지장보살
- 가액: 1억7천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 평수: 58평
- 법당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법회가능 3층 엘리베이트 사용
- 전세 : 2,000만원 월세 80만원 (주인과 조절 가능) 시설비: 답사후 조절 가능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지적 : 14,509㎡
- 종교허가 면적 : 2,770㎡, 전 70평, 요사채 22평,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의 토목공사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484-391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층
- 평수 : 40평
- 시설 및 포교원 최상의 위치
- 전세 : 2,000만원, 월세 :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낭월동 산 16-1
- 방 2, 부엌1, 법당1
- 가액 :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42)273-1677

010-8775-167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 약 90평, 2층 - 공양간, 3층 - 법당, 4층 -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011-895-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 평수: 58평
- 법당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법회가능 3층 엘리베이트 사용
- 전세 : 2,000만원 월세 80만원 (주인과 조절 가능) 시설비: 답사후 조절 가능

010-3402-4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층
- 평수 : 40평
- 시설 및 포교원 최상의 위치
- 전세 : 2,000만원, 월세 :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8616-57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2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명상가 · 임상심리학자)

〈5〉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 (사례)

짜증날 때 자신에게 '미안해' 속삭여라

용서의 의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에이미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자신이 끔찍한 엄마, '교활하고 자기도취적인 인간'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내게 되새겨주었다. 에이미의 엄마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근처에 사는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에이미가 주로 엄마를 돌보게 됐다. 그래서 에이미는 수십년 동안 외면해온 사람과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마음을 열기 위해 에이미가 이미 열심히 수행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과 자식과 줄곧 갈등을 겪으며 긴 세월을 보낸 그는 1년 전에 참여한 주말 명상에서 RAIN(본지 999호 27면 참조)을 통해 자신의 삶에 산재한 갈등을 다정하고 명료하게 자각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자신을 더 자주 자각하고 더욱 온화해지면서 에이미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명상 수행이 엄마를 향한 적의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렸을 때, 엄마는 내가 방해하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보탬이 되려고 태어난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엄마 인생에서 나는 또 하나의 애완동물이었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엄마가 이젠 성인이 된 나의 자아까지 짓밟을 것 같아 겁나요. 엄마가 지금 저렇게 아픈데도 내가 분노를 억누르고 엄마를 용서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증오와 비난으로 무장함으로써 우리는 상처를 보호한다. 그 무장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 우리가 연민을 갖고 자신의 취약함을 매순간 온전히 자각할 수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각은 분노에 찬 생각과 감정을 줄이고, 우리의 드넓고 따뜻한 마음 공간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 과정이 갑자기 또는 역으로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 타인에게 분개하고 서로 반복할 경우, 우리가 자신의 아픔이나 두려움을 수없이 의도적으로 자각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연민이 깨어나 우리는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불만이 극도의 증오로 표출될 경우, 또는 상처가 너무 깊다고 느낄 경우, 에이미처럼, 용서는 아득히 멀거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용서는 증오에 찬 비난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늑대에게 더 이상은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용서는 자신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묵살하거나 해악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에이미는 지혜로운 분별을 익혀야 했다. 엄마의 부당한 요구나 상처 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했다.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어떤 면도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말하는 용서는 설사 누군가를 두 번 다시 안 보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방법을 찾는다는 뜻이다. 이 조건 없는 사랑에 귀의하는 데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

분노와 RAIN

에이미와 나는 그녀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자유를 얻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상담 시간에 에이미는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세 살 무렵의 한 가지 경험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엄마가 이층에 있던 에이미에게 목욕물을 받아놨으니 욕조에 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욕실에 들어갔을 때 에이미가 본 것은 5센티미터 정도 고인 미지근한 물이었다. 이 상징적인 순간을 돌이켜보며 에이미는 그때 그 세 살배기의 마음을 번개처럼 스쳐간 깨달음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내 몫은 이게 전부야.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것은 다분히 진실이었다.

엄마는 자기가 지어낸 드라마에 항상 골몰했고 친구들이 무시한다며 사사건건 다투었고 살을 빼려고 기를 썼고 가장으로서 무능하다며 남편에게 화를 냈다. 에이미를 포함한 자식들의 육체적, 정서적 욕구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한 후 에이미는 소파에 털썩 기댔다. "모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던 그 여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다정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엄마의 찡그린 표정이 정말 싫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잘난 척 하는 말투가 싫어요. 엄마의 모든 게 싫어요." 나는 에이미에게 지금 당장 엄마를 배려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서둘러서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대개 분노와 그 밑에 놓인 아픔을 잠시 은폐할 수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초점의 대상을 바꾸게 격려한다. "지금 당장은 당신 내면의 한 곳,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곳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지금은 연민을 갖고 매순간 당신의 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에이미의 경우, 이 자각으로 들어서는 문은 RAIN의 마음챙김이었다.

나는 에이미에게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화가 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금방 조목조목 대답했다. "엄마는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엄마는 자기중심적인 여자예요. 정말 울화통이 터져요. 저는 엄마가 없는 셈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자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노가 느껴져요."

RAIN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모두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일이 언제나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는 않다.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그 강렬한 분노를 꼭꼭 억눌러서 깊이 묻어두려고만 했다. '내려놓음'과는 정반대로 해온 것이다. 그리고 묻혀 있던 분노는 이따금 갑자기 격렬하게 폭발하곤 했다. 에이미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 분노가 머물 공간이 실제로 생겨날까봐 겁나요. 그렇게 되면 나의 인간관계는 모조리 파괴될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상처를 주었어요."

보통 우리는 강렬한 분노에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점차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그 정서적 에너지를 표출하거나, 분노가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해 분노를 표현하는 신체 감각을 묵살하고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분노를 멀리 밀어낸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더욱 철저히 억누른다. 그 이유는 그 분노가 자신을 장악하거나 타인을 밀어낼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에이미가 자주 경험했듯이, 강렬한 분노는 차곡차곡 쌓였다가 복수심과 함께 갑자기 터져 나올 수 있다.



용서는 증오에 찬 비난 내려놓는 것
분노 억누를수록 복수심으로 터져나와
나의 취약함 인식하고 연민 보내
고통까지 품어 안을 수 있어야

RAIN의 2단계 '허락하라'는 자신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방치하려는 말이 아니다. 허락하기는 '행동으로 표출하기'가 아니다. 비난에 관한 자기 대화를 인식하되 믿지는 않고, 분노의 느낌이 일어나게 내버려두되 분노를 표출하거나 분노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에이미는 분노는 그냥 허락하는 게 겁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에이미가 분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안내했다.

이제 에이미는 비난 밑에 놓인 그 정서적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분노에 찬 자기 대화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 자기 대화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비판적인 생각에 빠져 끝없이 돌고 돌았고, 격렬한 분노는 에이미의 몸속 더 깊은 곳, 생각 그 너머의 장소에도 살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에이미가 주의를 확장하고 심화해 몸으로 표현된 그 에너지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었다.

나는 에이미에게 몸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리라고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말이 없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이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내가 물었다. "만약에 그 느낌에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 열기와 압력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강해지게 허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라, 그건 폭발하길 원해요." 나는 다시 그녀에게 그 느낌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고 격려했다.

에이미는 정지한 듯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머뭇머뭇 말했다. "그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에요. 사방으로 퍼지는 불의폭풍, 불길이 거세게 폭발하며 상담실의 모든 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에이미가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세요." 그녀는 나지막하게 계속 말했다. "그 불길이 바다로 돌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차차 고요해지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드디어 이렇게 말했다. "불길이 꺼지고 있어요. 이제는 텅 비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나는 철저히 혼자예요. 쓸쓸하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나 역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에이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격렬한 분노 속에서 그녀는 텅 빈 공간, 사랑이 없는 공간을 발견했다. 이제는 크나큰 슬픔이 드러나고 있었다. 자신의 삶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다.

연민 넓히기

에이미가 무장한 분노의 갑옷이 허물어지며 그녀의 단절감, 평화로운 삶의 원천인 사랑을 상실한 느낌이 드러났다. 나는 물었다. "슬퍼하는 당신의 일부가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에이미는 즉시 알아냈다. "내가 그 고통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 슬퍼하는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싶어 해요." 나는 에이미에게 한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그 상처 받은 자아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속삭여주라고 했다. 에이미는 1년 전 주말 명상에서 자신의 심금을 울렸던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너를 사랑해." 여기서 "미안해."는 사과의 말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슬픔을 간단하게 표현한 말이었다. 에이미는 그 말을 여러 번 속삭인 후,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욕실에 서 있는 여자아이가 보여요. 그 아이가 느끼는 결핍과 외로움이 그대로 느껴져요. 지금 나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말해주고 있어요. '미안해, 너를 사랑해.'"

잠시 후, 에이미는 똑바로 앉아 손을 무릎에 편안히 내려놓고 두 세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맑고 밝은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타라,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그 어린 여자아이, 나의 일부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것에 화가 났던 거예요. 세 살 난 딸을 방치한 엄마와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났어요. 나의 일부가 사랑을 원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요.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어요."

자신에 대한 연민은 용서하는 마음의 본질이다. 하지만 분노는 물론이고 그 밑에 놓인 두려움이나 상처가 너무 크고 강해서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식하고 연민을 보냄으로써 에이미는 자신의 고통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커다란 존재를 알아차렸다. 이 자연스러운 자각, 즉 RAIN(비동일시)은 다정한 조사가 낳은 결실이다. 이 자각 속에 머물 때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귀의처에서 쉬고 있는 것이다.

몇 주 후, 다시 상담실을 찾은 에이미는 자신의 아침 일기 제목부터 보여주었다. "내 마음은 더 크고 더 넓다." 그 전날 밤에 엄마가 수프가 너무 싱겁다고 세 번째로 불평하자 에이미는 분노와 짜증이 치미는 익숙한 느낌을 감지했다. 에이미는 자신에게 "미안해, 너를 사랑해." 라고 속삭이며 그 짜증과 신랄한 비난이 마음속에 그대로 머물게 허락했다. 그러자 긴장이 풀리고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드니 불만으로 잔뜩 찡그린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자신에 대해 자문하는 법을 배울 때처럼, 똑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엄마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질문과 거의 동시에, 에이미는 엄마가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을 감지할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엄마가 들어와 있다고 상상하면서 에이미는 다정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다. "사랑해요."

에이미는 자신이 엄마에게 실제로 다정하게 굴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 엄마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은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에게 유쾌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상담시간에 에이미는 며칠 전의 일을 들려주었다. 아침에 깬 엄마가 열이 펄펄 끓고 땀을 비 오듯 쏟았다. 에이미는 찬 수건으로 엄마의 이마와 뺨, 팔과 발을 닦아주었다. 엄마가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 몸을 닦아준 적이 없었어." 그 순간, 미지근한 물이 낮게 고인 욕조 속의 여자아이가 떠오르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에이미의 엄마 역시 지금껏 아무 관심도 보살핌도 받지 못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다정한 보살핌을 음미하고 있었다. 엄마와 에이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느꼈다. 이 최초의 순간을 에이미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오래도록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게 될 터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타라 브랙의 〈삶에서 깨어나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갤러리 색즉시공



홀로 서기

청년 같은
힘찬 연어처럼
홀로
우뚝 서십시오.

그런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림·글 희상 스님

어머니로서 충실한 것이 곧 '자녀교육'

어머니로서의 모델 신사임당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깊게 생각했던 것 같다. 내 속에서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까지 연결되었던 것 같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며 내린 결론은 공부하는 어머니, 사려 깊은 아내, 마음공부를 위해 노력하는 내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 것도 모른 채 시집을 왔고 아이를 낳았다. 소중한 생명을 만들고 아이들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본질임을 자각한 것은 큰아들을 낳고 나서였다. 육아책과 아동심리학, 위인전 등을 사다가 읽기 시작하다가 대한주부클럽에서 하는 어머니교실을 찾은 게 신사임당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에서 승만보살이 내 모델이 되었다면, 신사임당은 어머니로서의 삶에서 모델이 된 분이다. 신사임당은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왕의 스승이었던 이율곡을 낳아 기른 조선최고의 어머니다.

일찍이 주부클럽이라는 재교육 학습장에 든 것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행히 바른 어른들을 만나서 보고 듣고 발품을 판 것이 큰 공부가 되었다. 좋은 어른들을 뵈며 이미지 저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수양의 과정이 되었다.

지금 주부클럽 회장으로 계신 김천주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성들의 이상적인 모델로 신사임당이 선정된 배경을 알 수 있다.

"1964년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성과 주부들의 의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고 김활란박사의 뜻에 따라 스무 명 내외의 의식 있는 선배님들과 마음을 모아 여성의 이상상 정립을 위해 외부 인사 모윤숙, 이관국, 장덕순, 내부인사 김활란, 정충량, 백신한, 원선희 선생 등이 여러 차례 사전 회합과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 남성들의 사표가 문관에 이율곡, 무관에 이순신이라면 여성들의 이상은 세계적인 인물 퀴리 부인이나 잔다르크를 능가할 겨레의 어머니 신사임당임을 천명하고 민간여성단체인 주부클럽 주도 아래 그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이처럼 겨레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는 신사임당은 시 · 글씨 · 그림에 모두 뛰어났으며 이율곡의 어머니로 사대부 부녀에게 요구되는 덕행과 재능을 겸비한 현모양처로 칭송된다. 신사임당은 그림 뿐만 아니라 글씨와 시, 문장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이율곡은 후일 어머니의 행장기를 저술했는데, 여기서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 우아한 성품, 그리고 정결한 지조 등을 소상하게 기록했다고 한다. 신사임당은 넷 째 아들 이우와 큰 딸 이매창을 자신의 재능을 이어받은 예술가로 키워냈다.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아이 가지면서 자신 돌아보게 돼
불자로서는 승만보살이 롤모델
어머니로서의 삶에선 신사임당
좋은 어른 만나는 것이 '공부'"

내가 보기엔 신사임당이야말로 가정교육에서 인품이 형성된 분이다. 함께 산 외할아버지에게서 걸음걸이에서부터 말씨, 예절 등을 모두 배우고, 17세 때 이미 외할아버지에게〈소학〉,〈효경〉,〈명심보감〉,〈논어〉,〈시경〉,〈사기〉등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그림 솜씨가 좋은 재능을 발견 분은 외할아버지이셨으니 신사임당이야말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성장한 인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사임당은 사마천의〈사기〉를 배울 때, 자신이 닮고 싶은 김명 깊은 인물을 발견했는데, 다름 아닌 중국의 주나라를 세운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과 신념이 남달랐기에 성군을 키워낸 태임을 존경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 혼인을 하면 태임을 스승으로 삼아 자식을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임당이라는 자신의 당호를 태임을 본받아야겠다는 뜻으로 지은 것이다. 신사임당이 많은 성현들 중에 마음으로 존경하여 따르고 싶은 마음이 왕을 키워낸 태임이었기에, 그도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율곡을 생산하고 키워냈을 것이다.

아이들을 생산하고 어머니가 된 이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로 자리잡고 있는 분이 신사임당이기에 항상 마음속에 그분을 담고 살아왔다.

지난해에는 나를 좋은 어머니로 키운 주부클럽에서 상을 받고 시인이 되었다. 주부클럽에서 개최하는 백일장에 큰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든다는 의미로 참석했다가 시 부문에 장원으로 뽑힌 것이다. 백일장 행사가 진행된 지 50년 만에 부처님오신날과 겹쳤다고 하는데, 부처님오신날에 장원이 되어서 뜻 깊었다.

어느 화가는 육십에 그림을 알고, 시인은 칠십이 넘어야 시를 안다고 했는데, 육십 중간쯤에서 시인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알맞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원으로 당선된 시 전문을 옮겨본다.

봄비

봄비는 꽃샘에서 나옵니다.

물도 가다 구비를 치듯
내 한 삶도 이쯤에서
눈뿌리 아득히 아른아른
그 안에 나를 보면
봄비는 눈물입니다.

곰삭은 마음이 사람을 울리며
할아버지의 후한 인심이
손자의 거름이 되듯이
봄비는 내 눈을 열어줍니다.

보슬보슬 봄비가 옵니다.
소리 없이 봄비가 옵니다.

이 시는 주부클럽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실렸는데 실리기 전 수상소감을 써달라기에 이렇게 써서 보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절寺에 가서 부처님 말씀(言)을 들었는데
저를 시인(詩人)이라고 불러주시네요.
우리 모두 부처님 같이 우리 모두 시인(詩人)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 많은 회원들에게 익혔다는 것에 감사한다, 주부클럽 회원지가 전국 30만 회원에게 배포되어 읽혔을 터이니 밥값은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진정으로 좋아하고, 부처님 나라만 생각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주는 것이 내 역할인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시가 당선된 것을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당선소감으로 조그만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엄마, 잘했어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축하해주었다.
"당신들이 잘 커 줘서 엄마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지요! 고마워요!"

〈여여원 원장〉





대행 스님

놓는 마음에서 하는 사이 없이 한마음 낸다면 그게 법!

(지난 호에 이어서)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를, 즐거워도 즐거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착 놓고 '이 즐거움도 거기서 즐겁게 나오게 했구나. 또 괴로움도 거기서 괴롭게 나오게 했구나. 모두가 그놈한테서 나온 거로구나!' 이러면서 지켜보시라 이겁니다. 팥죽 속에서 팥죽 방울이 다 나온 거지 팥죽이 없는데 어떻게 팥죽 방울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렇게 팥죽 방울이 많이 나와서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그러듯이,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다 팥죽솥에서 팥죽 끓듯 하는 살림살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싸 버리고, 보면 없어지고 들으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다니시는 것이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그 발자취가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그 자취를 걸머지고 다니는 마음이 있다면 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이가 없고 고정됨이 없고 그대로 여여하게, 나쁘든 좋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부서지든 변하든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끊임없이 지금 흘러 돌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사대(四大)가 흩어져도 그 의식이 남아서 또 고생할 바에야 살아서 아주 죽어 버려요. 살아서 죽는 것이 열반이지 그냥 죽는 것은 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으면서 마음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죽은 그 마음이, 바로 살아 있는 것도 아니요 죽어 있는 것도 아닌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한 주먹이 불끈 솟아서 하늘을 받치고 땅을 한 발로 디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또 한마음으로 모든 수레를 굴린다는 그 자체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놓고, 놓는 마음에서 자기가 하는 사이가 없이 한마음 낸다면 그게 법이거든요. 여러분은 몇 번 나오고는 "스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정성을 지극하게 했는데도 안됩니다.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값싼 마음이라면 어찌 마음공부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다스리는 그 마음의 보배를 간직하면서, 나오는 여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 다스리면서 거기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또 굴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병이 났어도 너무 늦지 않았으면 낫게 할 수 있고 너무 늦었으면 몸을 바꿔서 또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두루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자로서 공덕을 펴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생각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끝간 데 없이 공덕을 받게 됩니다.

악업도 수미산만한가 하면 선업도 수미산만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악업도 없고 선업도 없이 공덕을 받는다면 더욱더 좋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있지만 이 도리의 공덕을 모른다면, 그리고 무심도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면 앞으로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마음공부 하셨다가 이다음에 몸을 원점으로, 사대로 흩뜨려 보내고도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보배 씨로 출현해서 정말 무심도법의 첨단 과학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왔다' 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 능력자가 되고 대 자유인이 돼서 자력과 광력과 전력과 통신력을 자재로이 끌어서 연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며, 그런 연구와 그런 기술과 그런 의학과 그런 문화 문명을 꽃피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도리를 내놓아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교과서로 나가게 한다면, 유의 세계 무의 세계 모든 걸, 즉 말하자면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종합해서 교과서에 실리게 한다면, 또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물리가 터진다면 기술과 과학 분야에 첨단을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이 배출되어 아마 우죽 쏟아지듯 할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대 물리가 터진다면 바로 여러분의 몸과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또 우리가 우주적으로도 알아야 첨단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물질로써 뭉쳐져 있는데 그 물질로 뭉쳐져 있는 자체가 바로 바탕이 되고 있으니까요. 바탕이 되고 있어요. 뭐냐? 지수화풍(地水火風) 바탕이요, 그 지수화풍 바탕 때문에 이 컵이 나왔다 이겁니다. 컵이 생겼죠. 네 가지가 모두 한데 합쳤는데, 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섯 가지가 합쳐서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도리를, 무심의 도법을 정말 캐치한다면 모든 것을 지수화풍의 그 바탕에 의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으로 능히 들이고 내고 하면서 정신과학으로 일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첨단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산 법문이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실천궁행하는 이런 도법을 가르치신 거지 '너는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런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세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끄달려서, 죽었다 해도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의 의식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재생하면 그리로 또 같이 하려고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내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허허허…. 그래서 죽게 되면 부처님 성전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살아생전에 독사한테 물리고 뱀한테 물리고 곤충한테 물리고 짐승한테 물릴까 봐 무서워하던 의식이 있어서 거길 건너가지 못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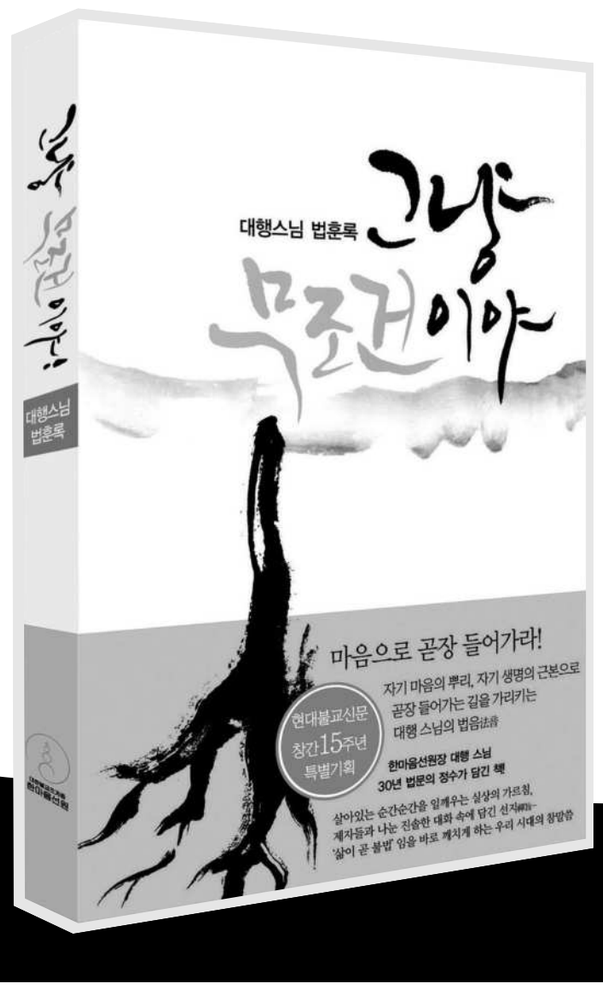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우리가 물질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물질화로 아주 백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체가 없다는 그 소식도 몰라요. 그런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잠재해 있어요. 그래, 죽으면 체가 없는 혼백인데도 자기가 체가 있는 양, 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배 오기를 기다리며 십 년이 되든 오백 생이 되든 거기 섰으니 아니, 배가 옵니까? 글쎄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한생각, 한 찰나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무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 29면에서 계속

질적 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어 놔라 이 소립니다. 물이 깊어서 빠져 죽을까 봐 배 오기만 기다리니 어떻게 부처님 세계의 맛을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러고 있지요.

세 단계의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여러분이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데가 있어요. 우주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예요.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바로 사대가 무너지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대로,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또 어디 가서 태어나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소 부부가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새 부부가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짐승들 곤충들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자기가 모르니까, 귀도 먹고 눈도 멀었으니 어찌 그것을 다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합류화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대로 한데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모이죠.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공업가는 공업가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이러죠? 그렇게만 얘기해도 알겠죠. 그냥 자연적으로 모이듯이 그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 그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집에 들어가질 않나, 독사집에 들어가지 않나, 염소집에 들어가지 않나, 개집에 들어가지 않나! 도대체 이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물질적인 의식들을 다 놓는다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그 첨단을 알고 한생각 끄덕하면 벌써 건너가 있고 끄덕하면 저기 가 있고 만 리라도 끄덕하면 가 있고, 내 몸 아닌 내 몸이 수없이 입자가 되고 분자가 돼 가지고 수없는 중생을 건지고, 수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수없는 중생을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자력은 인간의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한계가 없지만 자석은 물질이라 쓰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한계의 도리를 알 때 무심의 도법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만사를 한 주먹에 놓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자유자재하더라 이런 거지요.

그러니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유자재하더라 이거지요. 모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으니 풀 한 포기도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이심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진리가, 끝간 데 없는 진리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마음 자체의 씨가 바로 보배로구나. 그러면서도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허공을 쥘 수 없고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 마음이 그렇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묘법을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천지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바로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요, 아까 얘기를 했어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희미하게 가는 것 같아요. 허이구, 참!

여러분 육신 속에 들어 있는 그 마음들이,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도 되지마는 세계라고 해도 됩니다. 위라는 세상, 장이라는 세상, 간장이라는 세상, 소장이라는 세상, 이름이 그렇게 많아서 이걸 세계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을 해꼬지하게도 나오고 남을 해꼬지하게 마음을 일으키게도 하는 모든 의식들을 침착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놓고 나는 종노릇을 하십시오. 몸은 종노릇을 하면서 그 다스리는 마음은 항상 한마음으로 돼 주고 겸손하게 돼 주시란 얘깁니다.

아니, 내 몸속에 있는 진드기가 보기 싫고, 촌챙이가 보기 싫고, 거위가 보기 싫고 이렇다면 어떻게 내 몸을 이끌고 다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요. '아! 그것도 나로구나. 나를 끌고 다니는 바로 너로구나!' 하고서 한마음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고 '너희가 모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나로구나!' 하고 인정을 해 줘야 자기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걸 명심하시라 이겁니다. 자식도 잘못하면 "저 도둑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믿고 가르쳤더니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주는 게 부모지 받는 게, 달라고 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거미의 부모도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껍데기로 화해서 그냥 말라서 가루가 돼 버립니다. 어머니는 알을 낳아 놓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낌없이, 자식이 죽게 되면 생명을 대신해 주리만큼 그렇게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껍데기로, 껍데기로 껍데기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 갑니다. 그렇게 자기는 껍데기만 남아서 나중에 함께 가자고 해도 자식들이 안 가지요. 몸뚱이도 가지 않죠. 자기 따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부부지간에 사랑했다, 아무리 재산을 사랑했다, 집을 닦고 깨끗하게 잘해 놨다, 몸뚱이를 깨끗하게 씻고 바르고 온통 귀걸이를 달고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캠핑 와서 그저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놀다가 가기 위해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풀잎의 이슬처럼 왔다가도 그냥 스쳐 가듯이 그냥 또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애들이 공기를 놀다가도, 내 땅 네 땅 하고 놀다가도 저녁때 엄마가 부르면 으레 다 버리고 툭툭 털고 일어서듯이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서 무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현실에서도 남의 뿌리를 싱싱하게 도와주십시오. 뿌리를 도와주면 이파리도 가장구도 싱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건져 주면서, 자기가 예쁘다고 뿌려 놓은 씨도 건지면서,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한다면 젊은이들이 아마 스스로 첨단의 심성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능히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할 때, 저 풀 이파리 하나도 한마음 아닌 게 없이 그렇게 될 때 그 한마음 속에서 일꾼이 나온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나라에 일꾼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결처럼 스쳐 가는 그러한 논다니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만이 생겨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고생하듯 우리 국민은 서로가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잘하도록 만드는 자식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국민 속에서 그런 부모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종성(鍾聲)에도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모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참, 앞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한 꽃이, 인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꼭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바담 풍'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람 풍'으로 알아들으십시오. 나는 두서없이 말했더라도 차근차근히 생각하셔서 내 한마음을 그렇게만 한다면 자식들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요 내 부모 조상들도 길을 찾을 것이요 묵은 빚을 갚을 것이요 햇빛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이 둘이 아니게 모두 합쳐서 나의 마음속에 찰나찰나 들고 나시니 어찌 내가 당당치 않으리오.' 하고서 나가실 겁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양해하시고요, 잘 배우신 양반들이 침착하고 체계 있게 생각하시고 한번 써 놨다가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스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이 둘이 아니게 모두 합쳐서
나의 마음속에 찰나찰나 들고 나시니
어찌 내가 당당치 않으리오.

사회자: 다음은 오늘 준공법회에 즈음하여 먼저 무애 스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애 스님: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큰스님 말씀을 한 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덥지 않은 연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또한 이렇게 다 밝으니 아마 많은 감응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게 공덕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맹이부터 시작하면 껍데기는 저절로 커지지만 껍데기부터 커지면 알맹이가 들지 않듯이 우리 도량도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신도 분들이 있음으로써 더 커지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 복 짓는다고 쫓아다니면서 한 시주는 공덕이 되지 않겠지마는 한마음으로 시주한 것은 참공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김 선생님께서, 전에도 이곳의 중창 불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주해 주셨으니 이 도량에서 모든 분들이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신다면 아마 도량이 더욱 빛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시주를 받고 있는데 다음에는 종각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라도 찾아 주십시오. 저희는 복 짓는 일이라고 강요해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서 동참해 주시면 아마 두루두루 공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각자가 무량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내가 잠깐 말귀를 잡아야 되겠군요. 여러분이 '내가 요만한 시주를 하면 그만큼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무애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 여러분 앞에 무주상 보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든 광주든 본원이든 여기든 어디고 간에 불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디든지 무주상 보시로 하시면 무주상 보시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해 놓은 것은 여러분이 갖지 않는 게 없으니 누구를 줬다 안 줬다 할 것도 없죠.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1년 7월 14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배송 66%

엡손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교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전시상품 절대 아님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검색
입금계좌: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창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명분

불자 세상보기

"세월호 참사 국민의 화합으로 극복해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7월8일 정동 프란치스코 1층 성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비도덕적 행동을 불사하며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에 몸부림쳤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험 장애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행들을 바꿔야 할 될 때가 왔습니다. 안전을 더 중요시하고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큰 위기가 닥치면 똘똘 뭉쳐서 위기에 대응해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 보수 여야를 넘어 앞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국민 모두의 화합으로 극복해 내고 사회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라는 주제로 7월8일 정동 프란치스코 1층 성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천주교 쑥고개 성당 김홍진 신부, 박종화 경동교회 당회장 등 종교계 인사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홍진 신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면 다시금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나 혼자만 일등을 하려고 했다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일등을 해야 한다. 행여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손을

법륜 스님"안전과 행복 강조"

김홍진 신부"근본으로 회귀"

내밀어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손봉호 서울대명예교수(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공공성 회복으로' 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책임윤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성"이라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며 책임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본다. 다만 책임의식만 느낄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전관예우와 관피아 폐해방지, 국가혁신의 출발'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 현상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인사행정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인적자원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문적인 인사전담기구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며 "최근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인사기관이 조직개편 된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우윤근 의장은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 독점의 3대 독점, 관행적으로는 승자독식, 전관독식, 연고독식의 3대 독식의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3대 독점과 3대 독식 하에서 소통은 단절되었고, 사회통합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고갈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동체는 붕괴되었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우 의장은 "전관독식 등 관피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관피아 경력의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을 해야한다" 등 6가지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발언대

교황 행사, 꼭 광화문 광장일 필요있나?



법응 스님
한반도평화통일 실천기획단 공동단장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최초의 신부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따라온 스페인 예수회 소속 세스페데스(Cespedees,G.) 신부라 한다. 이후 일부 왕래가 있었으나 1784년(정조8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귀국하여 이벽, 정약전 등과 같이 신앙 활동을 하니 비로소 교회가 들어서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100여 년 간 대소 박해가 발생했으니 신해박해, 신유박해, 황사영백서 박해사건, 기해박해 그리고 8천여 명의 천주교도가 처형된 병인박해 사건이 대표적 사건이다.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께서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하며, 같은 달 16일에 광화문광장에서 124위 시복을 봉행한다고 한다. 시복식(諡福式, beatification)은 "가톨릭에서 성덕이 높은 이가 선종(善終)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성인(聖人)의 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추대하는 것"이라 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순수한 종교 내부의 행사가 분명하다.

교황의 방한에 대한 최상의 경호와 당연한 경비 및 의전일 것이나, 어찌되었든 시복식이라는 특정종교계의 순수한 내부의식에 국가가 경호와 경비를 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 필자의 의문과 문제의 제기는 순수 종교의식을 왜 광화문광장에서 해야 하는지와 정부가 이를 공식 허가하고 순수 종교의식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경호와 경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으나 순수한 종교의식은 종교 건물이나 그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일에 거리행진 등 문화적 행사를 하기도 하나 수계식 등 순수한 종교 내부적 의식은 실내에서 내부인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상례다. 간혹 평화 기원이나 통일 염원 등 민족적 숙업과 관련된 종교행사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를 떠나 우리 역사와 국민들에게 있어서 광화문 광장이 갖는 상징과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단지 지나간 역사의 한 장소가 아니라, 현재도 엄연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다. 설왕설래 그 처음 설치과정에 얽힌 이야기야 어떻든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이곳에 위치한 이유이고,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알리는 국가적 공식행사가 이곳에서 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서 구태여 특정종교의 내밀한 의식을, 박해와 순교의 역사에 기반한 그 어떠한 심리에서 봉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서울시의 광화문 사용 조례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정하고 있다.

거듭 문제의 제기의 요지는 조선 역사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에서 순수 종교행사를 봉행해야만 하는가, 이다. 만일 이 시복식을 기화로 금년 가을에 광화문광장에서 불교계가 수계식을 하거나 호국의 상징인 서산대사, 사명대사, 만해 스님과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승군에 대한 천도의식을 봉행하고자 하니 허가해 달라 하면 어찌할 것인가?

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지척인 곳에서 (예상 인원)100만명 상당의 인파가 운집하고 장시간 대규모 행사가 진행된다. 경호의 까다로움은 물론이고,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나라 전체가 장기간 상중인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조차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인들에겐 어찌 보면 영광이겠지만,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른 국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분명한 대규모 종교행사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열린다. 여러 종교 단체 수장들이 교황 방문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마치 '국가적 행사' 를 연상시키는 광화문광장의 이 시복식까지도 과연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묻고 싶다. 꼭 광화문광장이어야 했을까? 정부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만 했나? 국민의식에 반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社說

조계종·선학원, 종도가 바라보고 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8차 임시회에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이 통과되자마자 선학원이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 전원이 6월 30일 종단 총무부에 제적원을 제출하는 강수를 뒀고,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다음날인 7월 1일 "종헌 종법 거부는 선학원 사유화에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이후에는 서로간의 공방(攻防)이 이뤄졌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법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망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단의 최고 신성인 종정 진제 스님은 시중을 통해 선학원 이사진의 제적원 제출은 법인 설립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선학원 대책위원회는 연석회의를 갖고 선학원 돌출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단의 엄중한 법 처리도 당부했다.

선학원은 일제 강점기 민족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선각자들이 설립됐다. 만들고도 10년이 지나서야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선학원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면밀히 이어져올 수 있었고, 이 전통은 해방 후 정화운동을 걸쳐 현재 조계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선학원을 만든 이는 조계종 스님들이다. 결국은 조계종과 선학원 모두 한 뿌리라는 것이다.

이제 선학원은 폐쇄적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조계종도 원로의원 명선 스님의 "징계 등의 사무적이고 딱딱한 해결방법은 불화를 부르고 결국 갈라지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원만한 대화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봉합되길 바란다.

종교가 갈등 유발처가 돼서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마스에 대한 응징을 이유로 맹폭격을 가했다. 여성과 어린이 희생자가 23명이나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 트위터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자지구의 미사일 폭격을 불꽃놀이를 관람하듯 웃으며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유대인들의 반드시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어야 한다. 철저한 종교인인 그들이 갈등을 유발하면서도 그 갈등을 즐기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고산문화재단은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의 종교인식과 불교 이미지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의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실제한 결과가 나왔지만, 종교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종교가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한다' 는 의견에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35.9% 등 50.5%가 동의했다. 또 68.0%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 이라고 응답했다. 종교가 전반적으로 사회 통합의 성소가 아닌 갈등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종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참다운 인간으로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개인의 복락을 빌기 위해서로 종교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종교 지도자의 각종 부도덕 행위와 종권 다툼은 종교를 불신케하는 대표적 요소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신뢰도와 인지도 역시 낙제 수준이었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해서야 되겠는가. 진정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한국 종교에게는 절실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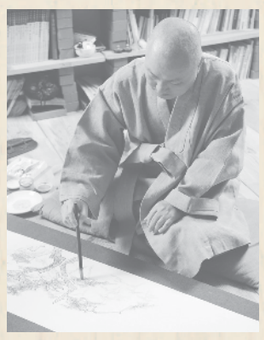
三千三

세계 최초, 3003위 大아라한 展

작품 조성 기간 10년

수행과 예술 그리고 자신의 길

적산(寂山) 스님



모든 것을 던져 몰입했던 10년의 고행 끝에 탄생한 나한 연작에는
제가 유년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온 작가로서의 꿈과, 출가 이후의 수행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불교의 세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다양한 나한들은 다원화된 시대속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들의 구제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대승적 주제의식을 삼천삼 점의 나한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인사 원각스님을 은사로 출가
E-mail : seungik320@hanmail.net



2014. **7. 16** (수) - **7. 29**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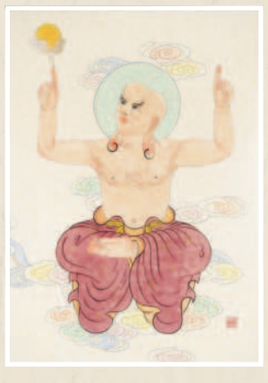
오프닝 7.16(수) 오후 5:00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3, 4, 5F)

전시장 내 특설법당 (1일 3회 기도)
국태민안 · 남북통일 · 소원성취
*기도 접수 문의 : 010-6432-0086









4×6배판 / 총 3,072페이지(3003점 나한상 수록) / 6권 세트 구입시 70만원(1권당 15만원)

후원 月刊美術世界 BTN 불교TV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사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법보신문

Gallery MISUL SEGY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4 Tel. 02-2278-8388